현대불교

제 778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4월 7일 수요일 (음력 2월 23일 · 불기 2554년 · 주간)





4대강 살리기 불자 '결집'

4대강 수륙대재위 17일 조계사 인근서 수륙대재 봉행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을 참회하고 뭇생명을 위로하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재 추진위원회(상임추진위원장 퇴휴, 이하 추진위)는 3월 31일 조계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월 17일 오후 3시 조계사 및 인근 우정국로 일대에서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재'를 봉행한다. 행사에는 1만 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했다.

행사에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불교환경연대, 대한불교청년회 · 불교여성개발원 · 조계종 종무원조합원우회 · 포교사단 · 참여불교재가연대 · 생명나눔실천본부 등 불교단체를 비롯해 조계사 · 운문사 · 봉녕사 · 도선사 · 화계사 등 20여 사찰이 참여한다.

추진위는 조계종단 공식 환경기구인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주경)와 함께 수륙대재를 봉행해 종단 내 공신력을 높이고,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고통의 실상을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청화 스님(조계종 前 교육원장) · 신경림 시인의 시 낭송, 수륙재, 문화공연, 결의문 발표, 21배 서원기도 등 행사를 진행한다.

추진위는 4대강 살리기 운동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전개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추진위는 전국 사찰에 수륙대재에 앞선 14일 초하루 법회에서 4대강 살리기와 뭇생명에 대한 참회를 주제로 법문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전국 사찰에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는 단일 문구의 현수막 게시, 서명운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남한강 여주보 여강선원(선원장 수경)에 이어 영산강, 금강 등 4대강에 지역거점 선원을 열고 4대강 사업으로 뭇생명에 대한 참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동상임추진위원장 퇴휴 스님은 "4대강 살리기는 단순히 강과 몇 종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닌 모든 생명체 살리기 운동"이라며 "돌이킬 수 없는 생명파괴가 자행되는 절박한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고 행사취지를 밝혔다.

추진위는 동참 호소문에서 "혈세를 쪼개 이익을 챙기려는 집단의 물욕에 눈이 멀어 정부는 멀쩡히 살아 숨 쉬는 강의 심장에 비수를 들이대고 있다"며 "불교의 진면목을 보여 뭇 생명이 공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4대강 반대를 위해 불교계 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 종교계가 힘을 모으고 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소장 능원, www.choice33.net)은 최근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알리는 포스터 2000부를 제작해 전국 사찰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또, 3월 23일 여주 여강선원에 대형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4대강 개발 현장에서 개발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28일 경남불교평화연대와 4대강 저지낙동강국민연대는 경남 창녕군 함안보 낙동강 일대에서 '지리산 파괴와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생명평화 지키기 천지명양 수륙대재'를 봉행했다.

사찰생태연구소(소장 김재일)는 4월 5일부터 남한강을 중심으로 생태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4대강죽이기 저지 및 생명의 강 지키기 범국민 대책 위원회'는 4월 24일, 5월 1 · 8 · 15일 4대강 공사현장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4월 19일에는 천주교가 시국미사를 개최한다.

이상언 기자



불교사회정책연구소가 전국사찰에 배포한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알리는 포스터.

길상사에 법정 스님 기념관

법정 스님 유지 따라 신문 소년에 책 전달… 저서 내년부터 절판


법정 스님의 상좌 덕진 스님(오른쪽)이 법정 스님의 유언에 따라 3월 31일 서울 길상사 향지실에서 스님에게 신문배달을 했던 강씨에게 스님의 머리말 책 6권을 전달하고 있다.

법정 스님의 유품을 한 자리에 모은 기념관이 길상사에 들어서고, 이를 통해 스님의 가르침이 오랫동안 대중과 함께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상좌 덕진 스님은 3월 31일 길상사에서 법정 스님의 3재 봉행 후 "법정 스님은 책, 가사, 장삼, 퀸, 친필원고, 미니CD플레이어 등을 남기셨다. 책을 비롯한 스님의 유품은 길상사 내 기념관을 설립해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길상사에 들어설 법정 스님의 기념관은 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닌 길상사 내 기존공간을 활용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0년대 법정 스님에게 '신문을 전달하던 꼬마'가 스님의 머리말에 있던 책을 전달 받으면서 기증의사를 밝힘으로써 알려졌다.

덕진 스님은 법정 스님의 3재가 봉행된 3월 31일 서울 길상사 행지실(行持室)에서 법정 스님이 즐겨 읽던 책 6권을 '신문을 전해주던 꼬마'에게 전달했다.

'신문을 전달하던 꼬마'는 1970년대 초 법정 스님이 봉은사에서 머물 당시, 사찰에서 공양주였던 어머니와 살았던 강모(49 · 봉은사 신도)씨다. 독실한 불자인 그는 현재 남양주 봉인사에서 기도 수행 중이다.

강씨는 법정 스님에게 누를 끼칠 것을 염려해 이름과 얼굴의 비공개를 요구했다.

강씨는 "스님이 유언에서 '어린 소년을 찾아 책을 전달하라'고 밝힌 것은 무소유의 가르침을 전하시던 스님께서 심부름했던 소년에게 진 빚을 다 갚으려고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책들이 사부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에 조건 없이 기증하겠다"고 밝혔던 것.

강씨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여 년을 스님에게 신문을 전달했다. 어느새 '꼬마'에서 지천명의 나이가 된 강씨가 회상한 스님의 모습은 지금껏 알려진 것과 다름 없었다.

"법정 스님은 당당하고 강직하며 고고한 분이셨습니다. 하루 3끼 발우공양을 한 스님은 행전(行纏)을 차지 않고 공양을 했을 때는 바로 참회를 하셨고, 한 여름에도 승복을 팔목 위로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스님의 위엄은 스님이 법당에 들어오시면 순간 고요해 질 정도였습니다. 스님의 엄격함이 봉은사의 기강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강씨가 기억하는 스님은 강직했던 품성과 계율을 철저히 지켰던 선사였다. 또, 자연을 사랑했고, 아버지와 같은 따뜻함을 가진 보살이었다.

"신문이나 우편물이 종무소로 오면 다래헌의 큰 문을 열고 들어가 스님에게 신문을 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스님이 머무시던 다래헌에 들어가는 것은 저만의 특권이었습니다. 개구쟁이였던 저는 방청소나 책 정리를 하거나 스님의 팔다리도 주물러 드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스님은 눈이 오면 눈을 치우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눈이 녹아서 지저분 해지면 그제서야 치우시곤 했습니다."

강씨는 어느 날 홀연히 봉은사를 떠난 스님을 입적 전까지 만나지 못했다. 입적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야 스님을 찾아뵌 것에 강씨는 못내 죄송스러워 했다.

이 날 덕진 스님이 강씨에게 전달한 법정 스님의 책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강승영 옮김, 이레), <선학의 황금시대>(오경웅 지음, 삼일당), 르네 젤러의 <생텍쥐페리의 위대한 모색> (안응렬 역, 홍성사), <선시> (석지현 편역), <벽암록>(안동림 역주, 현암사),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등 6권이다.

6권의 책에는 낙관 · 글씨 등 스님의 온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편, 봉사 시민단체인 맑고향기 룹게 관계자는 "법정 스님의 저서를 출판사와의 계약에 따라 올해 말까지만 유통하고 절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함석헌기념사업회는 법정스님의 미발표 원고 '악에 관한 것' 전문을 3 · 4월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글=이상언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무비 스님 동국역경원장 취임



조계종 3대 지표의 하나인 역경(譯經)을 담당하는 동국역경원장에 무비 스님(조계종 前 승가대학원장)이 임명됐다.

동국대(총장 오영교)은 4월 7일 오전 11시 동국대 정각원에서 신임 동국역경원장 무비 스님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무비 스님의 역경원장 임명은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이 3월 3일 봉선사에서 월운 스님을 예방했을 때, 월운 스님이 무비 스님을 추천해 이뤄졌다. 행사에서는 前 역경원장 월운 스님의 동국역경원 명예원장 추대도 있었다.

조동섭 기자

민추본, 조불련 대표단 초청키로

신계사 성지순례 조속한 재개 합의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는 3월 30일 개성에서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위원장 심상진)와 남북불교교류를 위한 실무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에서 남북불교계는 △금강산 신계사 성지순례의 조속한 재개 △동봉행 등을 통해 남북화해와 단합, 평화를 위해 남북불교도들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남북불교계는 6월 8일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창립10주년 기념법회에 조불련 대표단을 초청할 의향을 전달하는 한편, 10년 간의 남북불교간 교류협력사업을 평가하고 전망하는 '남북불교도합동대토론회'를 남북간 정세추이를 봐가며 진행하기로 했다.

조동섭 기자

▶23 새 연재-김경현 원장의 몸 · 마음 이야기

▶14 정진동참기-묘실상선원 ▶4 인터뷰-지성 통리원장 · 목탁 스님

"부처님진신사리만다라는 부처님이 이룩하신 위대한 깨달음과 진리와 기쁨이 충만한 바라밀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송광사 천지암 조실 활안스님 極大同 活眼

부처님의 세계를 형상화한 부처님진신사리 만다라를 모시는 것은 불상이나 탱화와 같이 부처님의 큰 지혜와 복덕을 가정에 모시는 것입니다.

부처님진신사리 만다라



건강 · 합격 · 취업 · 스트레스해소 여러분을 소원성취의 세계로 안내해드립니다

부처님진신사리 만다라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한 성화(聖畵)가 만다라이고,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산이 사리입니다.

만다라와 사리를 함께 표현한 것이 부처님진신사리 만다라' 입니다

이 만다라에는 가운데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주변에 가섭불, 목련존자, 사리불, 용수보살, 라훌라존자의 사리를 최첨단기법으로 정밀 재현해 만다라에 모셔져 있습니다.

만다라는 불길한 기운을 막아주고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우주의 신비로운 생기가 걸어놓은 곳에 머물게 합니다.





부처님진신사리 만다라 이런곳에 꼭 필요합니다!
· 수행정진하는 스님들의 서재와 다실
· 건강을 기원하는 가정과 각종 고시를 앞둔 수험생의 공부방
· 계약과 입찰이 많은 건설회사 대표의 집무실
· 우울증과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바라는 분
· 개업 선물, 승진 선물, 집들이 선물, 불사회향 선물

제품규격

A형 60Cm X 60Cm, 4Kg	B형 80Cm X 80Cm, 6Kg
C형 95Cm X 95Cm, 10Kg	D형 105Cm X 105Cm,12Kg

※부처님진신사리 만다라의 모든제품은 여러 큰스님들을 모시고 점안의식을 봉행한 생명력을 얻은 성물(聖物)입니다

불 · 교 · 미 · 디 · 어 · 연 · 구 · 소 바라밀다院

종오합장

제품가격문의

121-872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81-92번지 가원 201호

대표전화 02-3275-0108 핸드폰 010-2022-0108

총무원-봉은사 '토론회' 합의

악화일로였던 봉은사 사태가 불교단체들의 중재로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불교단체들의 제안에 조계종 총무원과 봉은사가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극적인 사태 해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4월 1일 총무부장 영담 스님 명의로 발표한 입장서에서 "불교단체들의 봉은사건 해결을 위해 제안한 토론회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영담 스님은 입장서에서 "제33대 총무원 집행부는 대화와 토론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단체들의 토론회 제안을 받아들여 대화의 장을 적극적으로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3월 30일 불교환경연대 대표 수경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퇴휴 스님,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도법 스님, 설법연구원장 동출 스님, 참여불교재가연대 김동건 상임대표 · 정웅기 사무처장, 대한불교청년회 정웅정 중앙회장 등 불교단체 대표들은 인사동 한 음식점에서 회동을 갖고 봉은사 사태 해결을 위한 중지를 모았다.

31일 오전 불교단체 대표들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봉은사 부주지 진화 스님을 잇따라 만나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봉은사도 토론회를 통한 대화와 소통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단체들의 중재가 있기까지 봉은사 사태는 총무원과 봉은사간 공방이 멈추질 않았었다.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28일 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2007년 대선 당시 이상득 의원과 MB 대선 운동을 도왔고, 최근에는 정부의 세종시와 관련해 청와대 비서관과 충청지역 사찰을 방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자승 스님의 해명을 촉구했다.

스님은 법회에서 강남 순복음교회 김성광 목사의 "얼음 깨는 배가 돼 불교를 깨부수고 봉은사를 깨부수겠다"는 발언 등을 비판하며, "봉은사 직영은 결국 이러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불교단체 제안 양측 수용
주제 · 방식 · 시기 등은 미정

명진 스님은 "개신교 장로인 대통령은 김성광 장경동 등 불교폄훼 발언을 일삼는 개신교 목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대통령의 한쪽에는 이러한 지원이 있고 자승 스님이 지금과 같은 입장이다. 한국불교의 미래로 평가받던 봉은사를 흔드는 것은 결국 그들이 바라는 바를 들어주는 셈이다"고 말했다.

명진 스님은 안상수 원내대표와 집권여당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스님은 "차라리 (안상수 원내대표가) 처음부터 현 정권에 대해 너무 비판하니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없느냐고 부탁했다고 밝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영국 거사가 자리에 없었다' '명진 스님을 모른다'고 (안상수 원내대표가) 거짓말 한 것이 더 크다. 군대에 안 가려고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거짓말까지 하니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정계은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명진 스님은 해군 최악의 참사인 1974년 YTL정 침몰사고로 복무 중인 동생을 잃은 일화를 소개하며,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은 현 정권 관계자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스님은 법문이 끝날 무렵, "다음 일요법회에는 장삼을 입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여법한 법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해 타협의 여지를 보이기도 했다.

명진 스님의 정권유착설 제기에 총무원은 "명진 스님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석명서를 내고 반박했고, 봉은사는 총무원의 석명서에 "안상수 의원과의 대화내용도 밝혀라"라며 재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29일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부산 범어사에서 회의를 열고 봉은사 측을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 스님과 기획실장 원담 스님이 배석한 회의에서,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중앙종회의 봉은사 직영 지정 승인 결정은 종헌 종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종단 내적인 필요와 의지에 이뤄진 종교적 행위를 근거 없이 왜곡 과장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어 주지스님들은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외압 주장을 중단하고, 봉은사 신도회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종단 방침과 종무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총무원 집행부는 중앙종회 결정을 존중해 적법하게 (봉은사 직영전환의) 결과를 집행하되, 충분한 소통과 화합의 책무를 다하라"고 말했다.

30일 총무원 정례브리핑에서는 기획국장 만당 스님이 "봉은사 문제와 관련된 징계 및 언론 대응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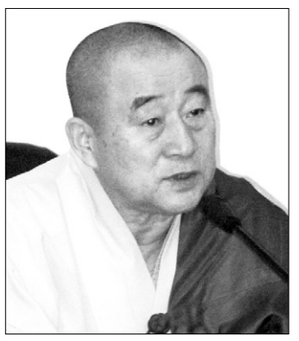
거듭되는 폭로와 반박 속에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던 봉은사 사태에 불교단체의 토론회 제안은 양 측에 소통과 타협의 기회를 마련해 줬다는 점에서 불교계 안팎의 지지를 얻고 있다.

하지만 총무부장 영담 스님이 4월 1일 입장서에서 "토론회를 위해 주제, 방식, 시기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처럼 주제도 없이 원칙만 합의한 토론회가 개최될 때까지는 풀어나가야할 문제가 많다.

조동섭 · 노덕현 기자

"인재양성 절실 승가대학 세울 터"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재임… 감사원장 춘광 스님



천태종 종의회(의장 도산)는 3월 30일 단양 구인사 인광당에서 제86차 정기종회 본회의를 열고 제15대 총무원장에 現 총무원장 정산 스님의 재임을 결의했다.

총무원장에 재임된 정산 스님(사진)은 4월 1일 서울 관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년제 정규 승가대학 설립을 통해 수행 · 경전 · 교리 · 의식 · 포교 등 전문교육을 통해 종단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산 스님은 "△정규 승가대학 설립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전개△일심청정 관음정진 100만독 정진 △십선실천운동 전개 △지속적인 복지사업 전개 △한국불교 국제화 등에 중점을 두고 종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교육불사는 종단 중흥의 발판을 마련하는 가장 중요한 불사중의 하나로 임기 중 반드시 추진할 사업"이라며 "승가대학 및 원각문화재단을 설립해 종단 인재양성의 토대를 갖추고, 중 · 고등학교도 설립 또는 인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1년 한국 천태종 중흥조 상월원각대조사 100주년을 맞아 천태종에서는 상월 조사 일대기 등 서적 출판, 구인사 박물관 내 유품 전시관 조성 등을 추진 중이다.

포교 · 수행 강화를 통한 종단 위상 제고도 정산 스님이 주력하는 부분이다.

지난해 관음정진 100만독 불사를 통해 수행종단으로서의 위상을 떨쳤던 천태종은 올해에는 4월 7일 제주 문강사 봉행으로 시작되는 십선실천운동대법회를 통해 수행 종단의 위상 다지기에 나설 계획이다.

정산 스님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종단 운영을 위해 인사고가 제도를 정비하고, 종단 재정 확충과 말사 운영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의회에서는 감사원장 춘광 스님도 재임됐다.

재적의원 30명 중 28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종의회스님들은 '총무원장 · 감사원장 추천 · 임명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감사원장 춘광 스님은 인준 후 인사말에서 "임명 동의에 감사드린다. 부족하지만 종단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종의회는 총무원을 비롯한 종단 각 부서 및 산하기관의 2009년도 세입 · 세출 결산안 110억 8590만 5976원을 심의 · 의결했다. 이에 앞선 28~29일에는 각 부처와 산하단체 예 · 결산과 종무행정을 심의했다.

조동섭 기자

생명 살리려는 고인의 뜻 영원할 것



4월 1일 故 한주호 준위의 빈소를 찾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헌화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4월 1일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천안함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故 한주호 준위(법명 해륜) 빈소를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자승 스님은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 국방부 군종실장 김상래 법사, 포교국장 남전 스님, 군법사 10여 명과 함께 빈소에서 헌화를 하고 <반야심경>을 봉독하며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이어 스님은 고인의 부인 김말순 씨와 아들 한상기 중위 등 유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크시겠다"며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다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뜻은 국민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故 한주호 준위는 진해시 해군교육사령부 법당인 흥국사에서 30여 년간 신행생활을 해온 불자로 신행활동에도 열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3월 26일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에 대해 대변인 원담 스님(기획실장) 명의로 실종자들의 조속한 구조를 바라는 기원문을 27일 발표했다.

글 = 조동섭 기자
사진 = 박재완 기자

태고종 임시중앙종회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원봉)는 3월 31일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102회 임시중앙종회를 개최했다.

이날 종회에서는 26억2000만원의 2009년도 세입 · 세출결산과 종단간부인준 등이 의결됐다.

종회의원스님들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前 중앙사정원장 월운 스님, 중앙호법위원장에 경남남부교구 종무원장 무호 스님, 총무원 종무조정실장(총무부장 겸직)에 청광 스님이 인준 · 결의됐다.

조동섭 기자

대전 · 충청지역 포교결집대회

대전과 충청권 불교계의 포교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불교 대법회를 시작으로 2010년 포교결집대회가 시작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4월 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10 대전-충청지역 포교결집대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공주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 예산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 등 3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한글금강경> 독송, 사회복지봉사단 발대식, 포교공로상 시상식 등이 이어졌다.

충청지역 불자들은 대전 · 충청권 연합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통해 자비나눔운동의 조직적인 확산을 다짐했다. 대전 · 충남 불교방송국 설립을 위한 10만 불자 선포대회도 함께 진행됐다.

이어 포교원은 18일 오후 2시 제주 관음사 대불전에서 '제주 불자 결집대회'를 개최한다.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3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2010년을 '포교역량 조직화의 해'로 선포한 만큼 올해는 포교활동이 취약한 지역부터 결집대회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대전 · 충청지역 포교결집대회는 충청권 포교신도단체의 자생적 포교역량강화를 시도하는 결집대회라는데 의의가 있다"며 "포교결집대회를 통해 숨은 불자들을 발굴해 불자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속가능한 포교역량 조직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포교원은 봉축 이후 전남 · 강원 · 인천지역 등 에서 포교결집대회를 준비 중이다.

박선주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2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어장(魚丈)스님
전통의식 및 상용의식 강의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대한불교조계종 어장이신 동주원명 큰스님께서는 불교 전통의식의 보존, 계승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하여 전문의식 뿐만 아니라 기초과정인 상용의식을 중심으로 매주 1회 어장스님이 집필하신 '승가의범'을 교재로 강의를 해주십니다. 뜻있는 스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강의내용 _ 상용의식 (불공시식 1년 과정)
• 일 시 _ 매주월요일 오후 6시~8시 첫 강의 4/12 월요일
• 장 소 _ 홍원사
• 모집인원 _ 00명 • 수 강 료 _ 매학기당 80만원
• 연 락 처 _ 02)2658-3100 (홈페이지 : www.hongwonsa.org)



학원 · 교회 · 인터넷서 불교폄훼는 진행중

안양 백영고 특정 종교 강요 · 불교 비하 UCC · 김성광 목사 망언… 편향 백태

안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전교생에게 특정 종교 행위를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 학교의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는 학칙에 근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네티즌은 "불교계 좌편향 실상 '그냥 묵과할 수 없다'"는 UCC를 제작해 인터넷에 배포했고, "불교를 때려부수자"며 불교계 비하발언을 했던 김성광 목사(서울 대치동 강남교회)의 망언도 재차 드러났다.

#전교생 교회로 등교하라니

안양시 평촌에 위치한 학교법인 백신학원 백영고의 한 졸업생은 2009년 11월 5일 자신의 블로그에 '2010년 신입생에게 바치는 글'을 올렸다.

졸업생은 글에서 "한반에 불교, 천주교, 무교인 학생이 절반 가량 되지만 (백영고는) 미션스쿨이기 때문에 새중앙교회에서 매주 금요일 1교시 '명사특강' 수업이 진행된다. 다른 수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예배시간'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아침마다 새중앙교회로 등교해 워십(찬송과 암송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학교로 와 2교시 수업을 듣곤 한다. 산이 무너지고 강물이 마르는 일이 있더라고 항상 그 시간은 예배를 드린다"고 밝혔다.

졸업생이 밝힌 '명사특강' 과목에서는 수업 마지막에 학생회장이 대표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로 시작하는 '나의 다짐'이란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또 1학년생을 대상으로 '기독교 세계관'이란 수업을 편성해 현직목사 등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졸업생은 "신앙논술을 1년에 4번 본다. 안 쓸 수가 없다. 정말 안 쓰면 유급인지는 모르겠다. 상을 주긴 하는데 일단 상에 관심이 없어도 생존본능처럼 채우기는 해야 한다"고 적어, 학교가 특정 종교를 강요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신앙 논술' 문제는 △십계명을 암기해 쓸 것(필수)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정을 설명하고 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할 것 등 기독교적 세계관과 직접 관련된 질문이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불합리한 처사"라며 반발하기 시작했으나, 학교 측은 "일부의 불만일 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독교 이념을 근거로 설립한 백영고는 홈페이지의 학교 특색에서 "진실하고 성실한 기독교인으로 기르는 신앙교육"을 명시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원장 박광서, 이하 종자연) 한기남 사무처장은 "백영고 등 개신교 측은 문제제기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 강제종교교육이 위법임에도 자신들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종교인권 내용이 포함돼 있는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등에 처벌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효력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한 네티즌이 개인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한 UCC.

최근 종자연은 백영고의 종교침해 사실 등을 담은 이메일을 교계 관계자들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불교계 종립학교에서는 창의적 재량활동 등으로 수업을 진행하거나 대체수업을 실시해 특정 종교를 노골적으로 강요하는 경우는 없다.

학교법인 보문학원 산하 대전 보문중이 종교 과목을 대체수업으로 실시하는 예이다. 대전 보문중 신병훤 교법사는 "대체 수업으로 한자를 진행했었고 현재는 컴퓨터 수업을 하고 있다. 수업 참가율은 50%정도다"라고 말했다.

전국교법사단회장 이욱태 교법사(해동중)는 "불교계 사립학교에는 수업시간에 예불을 드리거나 하는 종교활동을 하지는 않고 종교일반, 문화, 국제, 환경, 문화유산 등 사회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창의적재량활동 수업으로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기도교육청은 교회 등교를 금지시켰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담당 김종표 장학사는 "29, 30일 학교현장에서 확인했다. 금요일 1교시마다 교회로 출석하게 했던 것은 금지시키고 방과 후 희망자에 한해 참석하게끔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종교과목을 개설할 경우 학생의 선택권 보장과 종교수업 · 행사를 강요할 수 없다. 하지만 전국 236개 종교계사립학교 가운데 복수과목 미개설, 과목 외에 예배 등 종교행위 의무화를 강요해 학생들은 힘없이 종교자유를 침해받고 있어 교육당국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좌파? 불법에 좌우가 어딨나

최근 한 네티즌은 '불교계 좌편향 실상, 그냥 묵과할 수 없다'는 UCC를 배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UCC에는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의 영향으로 인해 불교계 내부에도 종북 좌파들의 입지가 강화됐다"며 민족공동체추진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월간지 <민족21> 발행인이라는 근거로 명진 스님을 북한 추종인사라고 주장했다.

또 "좌파 승려들의 영향으로 자유민주체제를 굳건하게 수호하려는 현 정부에 맞서 소위 종교차별이라는 명분을 세워서 반정부 선동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들은 현실정치까지 개입하면서 4대강살리기 반대 등 공공연하게 정부정책반대를 선동하면서 정치집단화를 꿰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이들 좌파승려들은 조계종 총무원의 인사문제를 모 정치인 탓으로 전가시키면서 봉은사 주지 자리를 놓고 무소유가 아닌 소유를 둘러싸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치지 않는 김성광 목사 망언

불교계 비하발언을 일삼는 김성광 목사(서울 대치동 강남교회)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성광 목사는 3월 24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는 주제의 수요예배에서 "봉은사는 좌파, 반정부 반국가 행동하는 단체" "불교, 가톨릭은 공산당 국가 만들고 김일성 추종세력 종국 세력"이라고 종교간 대립을 부추겼다.

김 목사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며 "봉은사는 1년 예산이 150억이다. 여기저기 용산참사에도 돈 가져다 줘서 좌파라고 소문이 났다. 6 · 15선언부터 시작해서 전부 반정부 활동만 한다"며 말했다.

이어 김 목사는 "봉은사에 절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20만 명이다. 그 옆에는 국회의원 박씨가 있고, 이쪽에는 봉은사가 있고, 우리 강남교회도 쳐다봐야 해서 골치가 아프다"고 비꼬았다.

김 목사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이 모든 불순 세력, 어두운 세력들이, 공산당 세력, 파괴세력들이 다 떠나고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 축복받는 나라가 될 것을 믿는다"고 주장했다.

가톨릭과 불교계의 4대강 저지 운동에 대한 비난도 서슴치 않았다. 김 목사는 "불교, 가톨릭의 반정부 반국가 행동으로 단체들도 여기저기 일어난다. 이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며 "불교, 가톨릭은 공산당 국가 만들고 김일성 추종세력 종국 세력"이라고 설교했다.

이에 더해 김성광 목사는 불임여성이 절에서 기도하다가 안구종양암이 걸린 사례를 들어 "절간만 다녔다가 귀신과 마귀가 들어가 병이 났다"며 "절에 가면 절만 하고 비싸다는 부적을 했다. 갈 때마다 108배하니까 배는 다 들어가겠다"고 말해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학원, 교회, 인터넷까지 사회 곳곳에서 불교폄훼와 종교편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상언 기자


죽비와 목탁

뭇생명 귀하다면 17일 조계사로

정부의 4대강 삽질이 쉬지 않고 있다. 강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간다. 뭇생명이 죽어간다. 공사현장에서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이들은 참회기도뿐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불교계는 오래전부터 뭇생명 살리기를 호소해 왔다. 수경 · 지율 스님이 그 예다. 스님들은 공사현장에서 참회하며 죽어가는 뭇생명을 살리는 뜻과 힘을 모아 달라 호소했다. 그 외침에 귀 기울이는 불자는 많지 않았다.

3월 15일 불교 · 개신교 · 천주교 · 원불교 등이 모인 종교환경회의는 낙동강 상주보에서 공동기도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여한 스님은 지율 스님 혼자였다. 스님의 얼굴에는 외로움과 아쉬움이 역력했다.

봉은사 직영사찰 건 등이 불교계의 이목을 빼앗는 동안 4대강 현장에서 불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비록 불교계의 4대강 저지 운동은 가톨릭계 등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시작했지만 결집되지 않은 반대의사는 무시해도 무방할 소수의 목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4월 17일 오후 3시 조계사 일원에서 봉행되는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재는 불자들이 그동안 뭇생명 살리기에 소홀했음을 참회하는 세레모니이다.

부처님은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 이것이 있다(此有故彼有 此起故彼起 此無故彼無 此滅故彼滅)"고 설했다. 연기법이다. 인연연기를 모르는 사람은 무자비(無慈悲)하고 몰자비(沒慈悲)하다.

글씨가 없는 비석 또한 무자비(無字碑) 또는 몰자비(沒字碑)라 불린다. 글씨가 없는 비석은 가치가 없다. 풍채는 좋으나 글을 모르거나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을 조롱해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연기를 아는가? 마음에 부처님 가르침인 '연기'를 새기고 산다면, 뭇생명에 대한 참회의 날인 4월 17일 조계사에서 만나자.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순례' 국제학술회의 11일 한국불교학회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선근)는 선묵혜자 108산사 순례기도회와 공동으로 '순례'를 주제로 4월 11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기조강연 △'108산사순례-21세기 한국불교 신행문화의 패러다임'(선묵혜자 스님)과 △'21세기의 보현행원'(미국 스토니브룩대 박성배 교수)을 비롯해 주제발표 △세계의 중심상징과 성지순례(동국대 김용표 교수) 등이 발표된다. (02)2260-3130

이은정 기자

불자경제인연합회 6월 15일 출범

불자 경제인을 하나로 모은 한국경제인연합회가 6월 15일 출범한다.

한국경제인연합회 추진위원회(위원장 구자선)는 3월 30일 인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범 일정 등을 공개했다.

4일 발기인 대회를 연 한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제1차 창립준비위원회 회의를 갖고 구자선 BBS불교방송 이사를 추진위원장에 추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추진위원인 임장수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구자견 본가식품 회장, 김봉석 신이법무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임장수 부회장은 "현재까지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등 5개 종단 신도 중 20여 기업 불자 대표가 가입했다"며 "마음을 함께 하는 종단협 등록 종단의 기업대표들을 모아 창립까지 200여 불자기업인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불교온라인쇼핑몰
HyunbulShop


죽욕기 145,000
02)2004-8216

能仁香堂
향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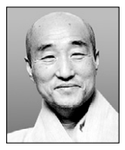
자연만을 모은 순수한 향
바로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능인향당
www.nihwa.com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96번지 (02)3663-6777
능인향당은 중국에 일체의 로얄티를 주지 않습니다. 능인향당의 침향은 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 등에 로얄티를 주고 수입하여 판매하는 침향과는 다른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향입니다.


일주문



<부처님의 생애> 독후감 대회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5월 2일까지 <부처님의 생애>를 주제로 부처님 오신날 기념 독후감대회 출품작을 공모한다. 발표 10일 (02)733-6390



무료합동결혼식 봉행

의정부 송산노인복지관 운영지도위원장 일면 스님은 4월 22일 복지관 3층 강당에서 '제6회 무료 합동결혼식'을 개최한다.



BBS 어린이 찬불가 대회 접수

BBS불교방송 이사장 영담 스님은 5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창사 20주년 기념 제1회 어린이·청소년 찬불가 대회를 개최한다.



원혜 스님 하나원 수계법회

공주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은 4월 4일 안성 하나원 통일법당에서 수계법회를 열고 새터민 70여 명에게 계사로 수계했다.



전등사기 강화게이트볼 대회

강화 전등사 주지 혜경 스님은 4월 9일 강화 공설운동장에서 '제5회 전등사기 강화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한다.



옥천범음대학 생전 예수재 특강

태고종 옥천범음대학 학장 기봉 스님은 5월 4일 생전 예수재 특강을 개최한다. (02)392-3234



美불국사 선각 스님 해외포교 법회

미국 세인트루이스 불국사 주지 선각 스님은 4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해외포교 활성화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화엄사 성지순례

하복동 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은 4월 17~18일 구례 화엄사에서 '제19차 성지순례법회'를 개최한다.



제17기 기초불교 영어강좌 실시

박상필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회장은 4월 10일~6월 5일 서울 템플스테이센터 3층 문수실에서 제17기 기초불교 영어강좌를 실시한다.

■평화재단 사무실 이전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은 3월 31일 사무실을 서울 서초3동 1593-7 서초이오빌 2층으로 이전했다. (02)581-0581

국제불교교류센터 총지사 자리에

총지종 제16대 지성 통리원장 간담회서 밝혀

"총지사 부지 700여 평을 국제불교교류센터를 위해 내놓겠습니다. 이를 위해 불교계가 범종단적으로 힘을 모아 국제불교교류센터 불사가 원만 회향되기를 기원합니다."

1월 29일 취임한 제16대 총지종 통리원장 지성 종사(사진)는 3월 29일 역삼동 총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국제불교교류센터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불교계 공약 사안이다. 마땅한 건립 부지가 없어 공약(空約)이 될 뻔한 것을 최근 지성 종사를 비롯한 총지종도가 마음을 모아 결단을 내렸다.

지성 종사는 "취임 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종단협 사무총장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 등을 예방했을 때 다들 분위기가 좋았다"면서 "국제불교교류센터가 들어서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실을 비롯해 국제불교 교류를 위한 공연장 세미나실로 활용될 것"이라며 국제불교교류센터 유치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성 종사는 "대선 후보의 국제불교교류센터 공약은 2007년 3월 총지종이 개최해 시작된 국제재가불교대회의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지성 종사는 "승직자 복식 통일 등 불합리하고 미비된 종단 법규와 조항, 관행 등을 공의를 모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종단 교세발전을 위한 공격적인 포교 대책도 공개했다.

지성 종사는 "종단이 최근 서원당(법당) 내 불상 봉안, 만다라 불사, 사원 신축 등을 도모해왔으나 교세 확장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면서 "불교대학을 교구별로 확대 운영하고, 총지종보 등을 활용한 문서포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된 종도의 복지를 위해 생활공동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총지종은 속리산 국립공원 인근 종단 소유 부지 70만 평에 100~200평 규모의 하우스를 짓고 종도를 위한 생활공동체 건립·운영을 준비 중이다.

고령화된 종도의 평균 연령을 낮추는 것 또한 지성 종사가 관심을 두고 추진 중인 사안이다.

지성 종사는 "종단 교화 발전을 위해서는 역량있는 도제 양성이 필요하다. 청년회 학생회 구성을 위한 포교활동비 지급까지도 고려중이다"고 말하고

"불교 고령화의 대안으로 자성학교를 활성화시키는데 종단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지성 종사는 1993년 10월 중앙교육원 아사리 과정을 수료하고 전법관정 수계를 받았다. 같은 해 정혜서원당 주교와 통리원 재단사무국장을 시작으로 총무부 기획국장, 재무부장, 총무부장, 총지종유지재단, 사회복지재단 이사, 통리원장 직무대행, 학교법인 종립 관음학사 이사, 사감원장 등을 두루 역임한 종사는 대전 만보사 주교에 재임 중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이정씨 '계간문예' 신인문학상

남북 현실 다룬 '붉은 댕기머리 새'로



前 불교방송 조사자료실장 이정씨(사진)가 <계간문예> 신인문학상 소설 부문에 당선, 소설가로 변신했다.

당선작은 '붉은 댕기머리 새'. 새 삶터를 찾아 고향인 북녘 땅을 도망치듯 떠난 이들의 시선을 통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남북의 현실을 드러냈다.

50대 중반의 변신이란 점에 놀랐다. 그러나 이씨는 오래 전부터 꿈꿔왔으며, 더 이상 늦추면 인생이 아까울 것 같아 신인상에 공모했다. 틈틈이 습작을 놓지 않았다. 동국대 국문학과 재학 중 학내 문학상도 수상했다. 정찬주, 황청원 등 문학동네의 중견들과 함께 탁마했다. 이번 신인상 공모에 중편 1편, 단편 5편을 냈다. 그러니까 그는 '오래된 신인'이다. 이씨는 "지난 십삼 년 동안 제 화두는 북한과 북한사람이었습니다"라며 "강성대국의 도래를 신앙처럼 굳게 믿고 꺾어질지언정 휘어지지는 않겠다면서 울던 간부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여건이 허락하는 한 현대사에서 벌어진 이 불행한 형상에 대해서 증언하고자 합니다."

소설가 이동하·백시종씨는 심사평에서 "주제의식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는 성실한 필력을 높이 샀다"며 새로운 작가의 등장을 축하했다. **정성운 기자**

이정호 교수 경북의사회 학술상 수상

이정호 동국대 경주캠퍼스 의과대학 교수(신장내과)는 3월 27일 경북도의사회에서 제정한 제1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대구 제이스호텔에서 열린 '제59차 경상북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만성 복막투석 동물모델에서 알라게브리움(Alagebrium)에 의한 복막내 후기당화산물의 분해효과'라는 대표논문으로 학술상을 받았다.

이 교수는 "향후 복막투석 환자의 복막 기능을 오랫동안 보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이경섭 동국대 경주병원 병원장은 대한의학협회로부터 의료계 발전에 기여로 공로상을 수상했다.

노덕현 기자

"티 없이 맑은 모습에 반했습니다"

미얀마의 날 10주년 행사 준비하는 목탁 스님

4월 16일은 미얀마의 날이다. 아직은 낯설지만, 어느덧 미얀마의 날을 정해 기념식을 올리고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 노력해온 시간들이 쌓여 10년이 되었다.

한국-미얀마 친선교류협회(이하 친선협회, 회장 목탁·사진)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미얀마의 날 선포 10주년 기념식 및 미얀마 전통의식인 물축제를 봉행한다. 우 묘르윈 주한 미얀마 대사를 비롯한 한국주재 외교관, 친선협회 회원 등 1천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선우용녀·김흥국·이의정시에 이어 불자탤런트 김용림·김혜옥씨에게 친선대사 위촉장도 수여한다.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친선협회 회장 목탁스님은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일깨워준 수행법을 지키며 물질문명에 물들지 않고 매사를 긍정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티없이 맑은 청순한 심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미얀마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소회를 밝혔다.



조계종 중앙상임포교사로 전국을 다니며 부처님법을 펼쳤던 목탁스님이 미얀마와 특별한 인연을 맺은 것은 90년대 초. 미얀마 불교대학에 논문 한편을 제출했는데, 종교성에서 친선협회를 만들어 교류하자는 제안과 함께 초청장을 보내왔다. 능력이 없다며 거절하고서는 잊고 지냈다. 그러던 중 조계종단 정치에 휩쓸렸으며,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무상(無常)을 절감했다.

미얀마가 빛이 되었다. "티 없이 맑은 모습에 반했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를 조직해 운영을 맡아왔으니 미얀마와의 교류에 본격 나서기로 하고 친선협회를 구성했다. 2년 전에는 서울 청진동에 미얀마문화원(02-733-5665)도 열었다.

"우선 미얀마의 소수민족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극빈 지역에 우물파기 운동도 펼쳤는데, 이 운동은 이후 여러 NGO의 사업으로 퍼져나간 것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목탁스님은 "월 1만원을 후원하면 이들이 더욱 즐겁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면서, "한국불교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목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東大 경주캠퍼스 수계대법회



동국대 경주캠퍼스 수계대법회에는 1500여 명의 동국인들이 모여 참된 불자로의 길을 다짐했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정각원(원장 화랑)은 3월 31일 교내 문무관에서 교직원, 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전 동국인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전계사 정련 스님(동국대학교 이사장)은 "부처님의 다섯 가지 계법은 우리들 스스로 지켜야 하는 가르침 즉, 불자의 바른 행실"이라며 오계를 잘 지키는 것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청주 용화사 자선장터 열어

청주 용화사(주지 각연)는 4월 9~11일 벚꽃과 함께하는 불우한 이웃돕기 자선바자회를 개최한다.

이날 자선바자회에는 용화사 자비회 등 에서 준비한 먹거리 장터와 불교용품 전시전, 우리차 시음회, 목판인쇄체험 등이 열린다. 총 3일간의 판매수익금은 불우한 이웃돕기성금 및 신도운영위원회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043)274-2159 **혜철 충청지사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4기 佛教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5월 26일까지 접수
◆ 개강일시 : 2010년 5월 27일 매주 (목) 오후 5시 ~ 8시 (3시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 사무실 : 02) 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불교문화페스티벌 23일 법주사서

보은 법주사(주지 노현)는 4월 23일 '불교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내륙의 숨은 보석, 청정충북!'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10 대중청방문의 해'를 맞아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 적문 스님과 연구원들 20여 명이 사찰음식 조리 시연을 펼치며, 25개 팀의 사찰음식 경연대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 108범종 타종식과 법고경연대회 등이 펼쳐져, 불교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다.

한편, 법주사는 3월 25일 경내 궁현당에서 교구종회를 열고 주요 일정을 의결했다. 법주사는 4월 21일 보은군 노인위안잔치, 5월 9일 충북도민기원 대법회, 16일 무심천 유등제를 봉행할 예정이다. 또 아이티 성금 1500만원을 총무원에 기탁했다. (043)540-3615

이은정 기자 · 혜철 충청지사장

호스피스센터 창립 대구사원련 신도회

죽음을 앞둔 환자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여생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호스피스 활동이 대구지역에서 체계적으로 펼쳐진다.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신도회(회장 임문우)는 4월 10일 대구시 남구 불교대구회관에서 '대구불교 호스피스센터' 창립 발대식을 개최한다.

불교회관 5층 연합회 사무실에 들어서는 호스피스센터는 병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불교계 호스피스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센터장을 맡은 임문우 신도회장은 "가능한 모든 역량을 모아 불교 호스피스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한 · 태 불교 교류 활성화 최선"

한 · 태 불교문화포럼 경주서… 2010방콕-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전행사

'2010방콕-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사전 특별행사인 '한 · 태 불교문화포럼'이 '한국과 태국 간 불교문화 교류 및 협력'을 주제로 경주에서 개최됐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장 김관용 경북지사)는 3월 31일~4월 2일 경주 불국사 · 동국대 경주캠퍼스 등에서 한 · 태 불교문화포럼을 개최했다.

경주 불국사(주지 성타)와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손동진)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성타 스님, 태국 백만불사 주지 파람하바나비리악흔 스님을 비롯해 백상승 경주시장, 김광조 유네스코 아태본부장, 태국 문화부 피라나이 대외협력국장, 라바니치 종무국장 등 한국 · 태국의 불교계, 학계, 문화계 인사 300여 명이 참가했다.

김관용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북도와 경주시는 방콕-경주엑스포를 한국과 태국의 우호와 교류, 협력증진은 물론 양국의 전통과 문화적 역량을 전 세계에 확인하는 명품문화행사로 준비하고 있다"며 "한 · 태 불교문화포럼이 불교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 받는 큰 결실로 연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4월 1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0 한 · 태불교문화포럼에서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가 기조강연하고 있다.

4월 1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세계적인 불교 석학 루이스 랭카스터(美 UC버클리대)교수가 '불교문화 교류의 의의와 한국 · 태국간 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했다.

랭카스터 교수는 "방콕-경주엑스포는 양국 간 오래된 전통적 유대를 바탕으로 유라시아 동쪽에 꽃피웠던 영향력의 새로운 이해와 증진을 조성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랭카스터 교수는 "부처님 가르침은 국경과 인종, 대 · 소승을 초월한 진리이며 이를 실천하는 한 방편은 대중이 협력해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한 한국과 태국의 교류와 협력에 대한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태국 승왕(僧王) 비서인 사키아 스님(마하마쿠불교대), 솜분 박사(쫄라롱콘대) 등이 양국의 불교전통과 문화, 불교와 사회, 불교문화 교류에 대해 발표했다.

포럼에 이어 경주엑스포공원 내 엑스포문화센터에서는 '한국불교의 전통과 계승'을 주제로 문화예술 공연이 열렸다. 불국사 합창단에 이어 영산재가 공연됐다.

영산재는 한국전 6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에 육 · 해 · 공 · 군 및 의료지원단으로 참전한 1만5000명의 태국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136명의 전몰용사와 타계한 참전자들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한 특별 헌정행사로 마련됐다.

2일 참가자들은 불국사 환영법회에 참석한 뒤 석굴암 등 경주지역 문화시설을 둘러보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마쳤다.

이에 앞선 31일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교내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과 태국의 불교 문화 및 학술교류'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손동진 총장을 비롯해 성본 · 진월 스님, 이봉춘 · 김성철 교수 등 동국대 불교문화대학 교수들과 태국 카세살트 대학 핌푸앙 박사 등 태국 불교계 인사 20여 명이 참석해 학술교류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손동진 총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국과 태국의 불교문화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진정자 · 이석주씨 등 표창

백제불교회관 개관 9주년 기념법회



대전 불교계의 축으로 자리한 백제불교회관이 개관 9주년을 맞아 성대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3월 26일 열린 기념법회에는 마곡사 대외협력국장 혜우 스님, 한밭불교회장 지홀 스님, 대전비구승가회장 대연 스님, 청우사 재원 스님 등 지역불교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前 방송인 진정자씨가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을 받았으며, 이석주, 이종애씨가 포교원장 표창을, 김순영, 신언숙씨가 마곡사 주지 표창을, 허윤호, 손승연 씨가 관장표창을 각각 받았다.

백제불교회관 관장 장곡 스님은 "불모지나 다름없는 대전불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준 모든 불자들게 감사하다"며 향후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마음언어 들리도록 용맹정진"

대불련 석종사서 새내기 템플스테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경호, 이하 대불련)는 3월 26~28일 충주 석종사에서 '2010 KBUF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삶은, 항상 가슴 떨리는 처음. 처음 뵙겠습니다! 낯선 나와의 만남'을 주제로 열린 이번 템플스테이는 전국 대학에서 모인 10학번 새내기 등 50여 신입회원이 참석했다.

이번 대불련 템플스테이는 2박3일 동안 새벽 예불을 비롯해 '나, 낯설게 만나기' 참선교육, 법우 찾기, 보왕삼매론 사경 정진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여 학생들의 신심을 고취시켰다.

특히 27일에는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이 지도법사로 나서 법문으로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혜국 스님은 "경쟁과 시험 등 사회 체계를 우주의 법칙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항상 계(戒)를 수지하고 마음의 언어가 들리도록 용맹정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경상대 10학번 김동환 법우는 "대학에 막 들어 온 새내기로서 학교 공부도, 부처님 공부도 열심히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박경호 대불련 회장은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항상 수행정진 하는 대불련이 되겠다. 최선을 다하는 학생 집행부와 지도위원단을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선주 기자

100자 뉴스

예산 수덕사 '수덕사 선 미술관' 개관

예산 수덕사(주지 옹산)는 덕숭총림 방장 원담 스님 2주기를 맞아 선 미술관 개관식 및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원로의원 혜정, 정무, 혜정, 고우, 해승, 법흥, 월탄, 종진, 명선, 활안 스님, 종회의장 보선 스님,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 등 종단 원로, 주요 스님들이 참석했다.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은 "이응노, 장욱진, 허백련, 최초 여류 서양화가 나혜석 화백 등과 인연이 있는 곳으로 향후 누구나 편히 찾고 활동할 수 있는 도량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참가 대중들은 선개관식 이후 수덕사 황하정루로 자리를 옮겨 원담 스님 2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선미술관은 개관기념전으로 원담 스님 유작전을 개최 중이다.

안성 활인선원 제3회 참선대중화선회 개최

안성 활인선원은 4월 9~11일 '제3회 참선대중화선회'를 개최한다. 청소년 · 대학생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선회는 '참 나를 찾는 지름길, 행복을 찾는 가장 편안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화두참구 프로그램이 개최된다.

활인선원은 "이번 선회는 참선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화두참구에 무게를 뒀다. 자신의 삶을 바로보기 위한 화두참구에 혼신을 다하자"며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031)1644-5266

대중결사 거제 금강사서 아카데미 개최

청정승가대중결사(대표 진오)는 4월 5일 거제 금강사(주지 성원)에서 '경남지역 포교현황'을 주제로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금강사 주지 성원 스님이 '거제 금강사의 포교 경험과 그 성과'를, 김태종 포교사가 '경남지역 포교실태 및 종교현황'을, 울산 해남사 주지 만초 스님이 '새로운 명상 프로그램 소개'를 각각 발제했다. (02)732-1209

대구불교발전위원회 발족

대구에서 기업인들이 중심이 된 불교발전 모임이 결성돼 주목받고 있다. 영도벨벳 류병선 회장(대구광역시 신도회 회장)과 건풍산업 이지철 대표 등 기업인 30여 명은 3월 29일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대구광역시 불교발전 위원회'를 창립했다.

대구 불교발전위원회는 앞으로 불자 인재를 양성하는 연구 지원사업 등 지역 불교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이 참석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겠다는 불자 기업인들의 뜻이 지역 불교계를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들 것"이라고 격려했다.

동국대 국내 최초 IPTV 고위정책과정 개강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국내 최초로 IPTV 분야 전문교육과정인 'IPTV 고위정책과정'을 개설하고 3월 29일 입학식을 봉행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오영교 총장을 비롯해 김원호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 금기현 전자신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제1기 'IPTV 고위정책과정'에는 강승규 · 안형환 국회의원(문화방송통신위)과 김영일 불교방송 사장, 탤런트 류시원, 이재용 MBC아나운서 등 각계 인사 32명이 등록했다.



“무한봉사를 선언합니다”

2일, 선운당서 생활 의례봉사단 출범

불교생활의례문화원 산하 생활의례봉사단(단장 강홍원 · 前 포교사단장)이 4월 2일 서울 견지동 중앙신도회관 선운당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무한봉사를 펼칠 것을 선언했다.

생활의례봉사단은 염불 · 염습 · 불교제례 봉사 등으로 구성돼 활동하게 된다.

출범식에서는 유영춘 염불팀장, 박상기 염습팀장, 김승연 불교제례팀장이 각각 추대 돼 봉사단을 이끌게 됐다. 봉사단은 서울 · 경기권에 봉사단원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12그룹을 뒀고, 각 그룹별 연등장과 부연등장, 단원을 배치했다.

봉사단원은 사전에 염불 · 염습 교육과 불교 상례 지도사 과정을 이수한 불자들로 구성됐다.

염불 봉사단은 환자가 있는 병원이나 가정을 방문해 환자의 가족과 함께 경전을 독송, 정근 등을 실시해 환자의 편안한 임종을 돕는다.

또 염습 봉사단은 고인의 소렴(小殮)과 대렴(大殮) 작업을 맡고, 제례봉사단은 불교식 제례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강홍원 생활의례봉사단 단장은 “불교 장례 등 생활의례봉사를 통해 어려운 불자들을 돕고, 불교 의례문화가 우리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봉사단 활동에 매진하겠다. 또 본원(서울)과 지방이 연계한 불자생활공동체 상부상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 지부 설립도 계획 중이다”고 밝혔다. 불교 장례 등 생활의례봉사를 원하는 불자들은 불교생활의례문화원 전화 상담으로 생활의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은 3월 2일부터 매주 화요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에서 ‘제3기 불교 상장례 염불봉사자 양성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총 20강으로 구성된 강의는 △불교임종의례 △상례 · 매장작법 및 수계 △염불의 공덕 · 수행 △염습 △성복제 △발인작법 및 영결식 △다비 등으로 진행된다. (02)720-1097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조계종 자원봉사단 전국 확대

조계종 자원봉사단이 전국 조직으로 확대돼 지역포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은 4월 3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충청지역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봉행했다.

충청지역 자원봉사단은 마곡사(주지 원혜)와 수덕사(주지 옹산)에 설치되는 불교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불자의 자원봉사 네트워크 및 다양한 포교 · 봉사활동을 펼친다.

조계종 사회복지대단 이운희 과장은 “체계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자비실천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조성해가자”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과거사는 결코 덮어지지 않는다

日초등교과서 독도 자국영토 표기, 위안부 할머니들 일본 규탄

일본정부의 과거 침략야욕이 그칠 줄 모르는 가운데 최근에는 초등교과서 등에 독도를 자국영토로 표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의 참회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원장 원행)은 3월 31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제911차 수요 집회를 봉행했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나눔의 집은 국내 유일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이다. 나눔의 집은 사회단체들과 1992년 1월 8일부터 매주 수요집회 등을 통해 일본 측의 공식사과 발표 및 피해보상을 적극 주장해 오고 있으나 일본의 무대응으로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2009년 기준 위안부피해 신고자는 234명이고 이 중 90명만이 생존해 있어 조속한 해결이 절실하다.

이날 집회에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에도 배춘희, 이옥선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5명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불교여성개발원, 고등학교연합회 등 사회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를 강력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젊은 나이에 위안부로 끌려간 대한의 꽃들이 이제 고령의 할머니가 됐다”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위안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성명서를 통해 참가자들은 △한국정부의 관심과 적극 대응 △일본정부의 사죄 및 배상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교육실시 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나눔의 집 배춘희 할머니(81세)는 “일본 대사관을 수요일마다 찾고 있지만 일본은 수십년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일본정부의 참회를 거듭 촉구했다. 또 나눔의 집 할머니들은 일본의 사과 표명이 있을 때까지 수요 집회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4월 3일 광주 나눔의 집 쉼터에서는 전쟁으로 피해를 받은 한일 양국의 피해자들의 마음을 보듬는 ‘한일 우정 페스티벌’도 개최됐다. 이날 우정 페스티벌에는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한 · 일 원폭 피해자들이 참가해 당시 사진 공개 및 증언 · 토론으로 제국주의에 의한 전쟁의 폐해를 성토했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위안부 문제는 2007년 미국 하원에서도 인류역사상 가장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만큼, 일본과 한국 등 전쟁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해결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만 한일 양국의 진정한 화해와 동반자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선주 기자



3월 31일 열린 제9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참자가들은 “한국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고 적극 대응해 일본이 과거 역사에 대한 참회와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불교계 모든 사회복지사 대상 실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은 사회복지사의 직무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2010년 국가지정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보수교육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120여개,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650여개를 중심으로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은 전국14개소 시설에서 권역별로 나뉘어 총 23회(수도권 10회, 지방 13회)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제1차 교육은 4월 10일 오전9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불교계 사회복지기관 소속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제1차 교육 프로그램은 △의사소통기술과 라포(두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를 나타내는 심리학 용어)형성기법 △윤리적 갈등을 중심으로 본 사회복지 가치 △사회복지시설의 브랜드 전략으로 마련된다.

(02)723-5101~2

박선주 기자

권역	회수	일시	주회 및 장소
수도권	1차	04.10(토)	총무원/한국불교역문화기념관
	2차	07.09(금)	승가원/승가원대강당
	3차	07.10(토)	승가원/승가원대강당
	4차	07.24(토)	종로노인종합복지관
	5차	10.23(토)	총무원/한국불교역문화기념관
	6차	10.30(토)	종로노인종합복지관
	7차	11.06(토)	진각복지재단/진각복지센터
	8차	11.20(토)	총무원/한국불교역문화기념관
	9차	11.27(토)	인덕원/인덕원 강당
	10차	12.11(토)	총무원/한국불교역문화기념관
충청권	1차	6.26(토)	대전서구 노인복지관
호남권	2차	6.12(토)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영남권	3차	6.19(토)	바라밀/화순 나들이보인복지관
	4차	4.24(토)	금오종합 사회복지관
강원권	5차	8.28(토)	함께하는마음재단/남구사회복지
경기권	6차	5.29(토)	강릉장애인 종합복지관
	7차	4.17(토)	수원영통종합사회복지관
	8차	9.04(토)	연꽃마을/용인시노인복지관
	9차	9.11(토)	연꽃마을/일산노인복지관
	10차	10.16(토)	수원영통종합사회복지관
	11차	10.19(토)	시설장 대상전통불교문화원
	12차	11.16(토)	실무책임자 대상전통불교문화원
	13차	12.04(토)	연꽃마을/파라밀요양병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연간 교육계획. 교육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해외

표현의 자유 VS 종교의 권위

가수 에이콘 ‘부처 모독’ 스리랑카 공연 무산

최근 세계적인 동물보호단체 PETA가 ‘동물을 구입하지 말고 입양해달라’며 십자가로 알몸을 가린 모델을 광고에 등장시켰다. 국내 모 방송사에서는 수녀복을 찢는 키스신을 방영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권위’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 상업적인 작품에 종교상징물을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면에 무제한적 표현은 ‘신성을 모독하는 죄악’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 출신의 유명 R&B(알앤비) 가수 에이콘(AKON · 사진)도 이러한 논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4월 24일 불교국가인 스리랑카에서 공연을 열 예정이던 에이콘은 ‘부처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비자도 거부됐다.

논란의 원인은 에이콘이 참여한 데이비드 게타의 음악 ‘섹시 칙(Sexy Chick)’의 뮤직비디오 때문이다. 뮤직비디오에서는 비키니와 반바지만 입은 젊은 남녀들이 불상이 있는 야외수영장에서 파티를 열어 춤을 추고 있다.

로이터, AFP 등 외신의 3월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스리랑카 시민들과 불교도들은 “부처님과 우리의 민족을 모욕하는 행위다”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 중 일부는 에이콘의 콘서트를 기획하는 스리랑카의 한 민영방송국에 찾아가 시위 · 항의를 하는 동시에 돌을 던져 본사 건물을 파손 시키고 4명의 부상자를 내게 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AFP통신은 “스리랑카 경찰 당국은 에이콘의 콘서트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수도 콜롬보에 있는 방송국 건물에 돌을 던진 시위대 일당을 모두 체포했다”고 전했다. 그는 “논란이 생기기 전까지 뮤직비디오에 불상이 나왔는지도 몰랐고 특정 종교를 모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마음이 아프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나은 기자

비누독을 연화시키는 삼베훼이셜타올



■삼베훼이셜타올 – 각 6,000원

삼베 타월의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 타올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삼베훼이셜타올 세안법

① 삼베훼이셜타올를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②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③ 삼베샤워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 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 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혈색이 좋아짐에 화장이 잘 받습니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특허출허제품임

· 품 명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올
· 재 질 – 햄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 격 – 세안용 (30cm x 28cm)
· 제조원 – 초록살림원 (한국산)

삼베수세미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수세미는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식기세척시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뽀드득한 느낌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박 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삼베수세미의 효과

* 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땅속에서 자연소멸)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품명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질 – 햄프사, 죽사
· 용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욕실청소 등
· 규격 – 30cm x 30cm(소) / 30cm x 50cm(대)

위생 · 항균 · 항독 삼베 수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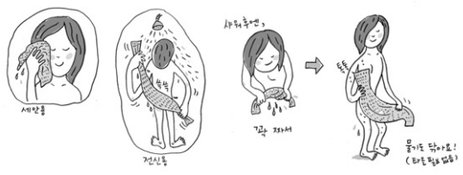
■삼베수세미올 – 각 4,000원

건포마사지용 삼베샤워타올



■삼베샤워타올 – 각 15,000원

· 품명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올
· 재질 – 햄프사, 죽사
· 용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격 – 전신용 (30cm x 130cm)



‘건포 · 습포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마사지법

·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포,습포 마찰을 권합니다.
· 냉한 체질은 건포, 습포마찰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찰이 좋습니다.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포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찰을 피합니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 상처나 피부질환시 문지르지 말아야합니다.



■건포 마사지의 효과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거칠어질 의심은 버리세요. 비누독이 안 쌓이니 피부가 좋아집니다.
* 죽은 세포나 피지가 매일 제거가 되어 때가 안 낍니다.
* 몸의 때는 비누 때로 인해 생깁니다. 비누 때가 없어지므로 때가 안 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현불샵 특별 할인 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 할인)

■구성 : 삼베훼이셜타올 + 삼베수세미 + 삼베샤워타올 + 삼베항균비누 3개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돌잔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혜초 스님 열반지는 오대산 보리지암"

김규현 티베트문화연구소장 20년 추적… 17일 KBS 역사스페셜서 방송

<왕오천축국전>을 지은 혜초(慧超 · 704~787) 스님은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 문명 교류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해동반도가 배출한 첫 번째 세계인'이라는 위상과는 다르게 정작 혜초 스님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많지 않다.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는 <왕오천축국전>은 원래 3권이었으나 앞뒤가 잘려진 채 발견돼 자료가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혜초 스님의 생애에는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특히 스님의 생애 가운데 그 '시작과 끝'은 더욱 불분명하다.

20여 년간 혜초 스님의 발자취를 쫓아 10여 개국을 누빈 김규현 티베트문화연구소장은 최근 수차례 현지답사를 통해 혜초 스님의 열반지 발견에 근접했다. 특히 김 소장의 연구 · 답사 행적은 4월 17일 오후 8시 'KBS역사스페셜'을 통해서 방영될 예정이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인'인 혜초 스님의 발자취를 다시 한 번 새길 수 있게 됐다.

김규현 소장은 "혜초 스님은 780년 4월 15일 오대산 건원보리사에 도착해 불전 번역에 매진했다. 도착 당시 세수 80을 바라보던 혜초 스님이 다른 사원으로 거처를 옮겼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혜초 스님은 건원보리사에서 열반했을 것"이라 주장하며, 9세기의 오대산의 정황이 상세히 그려진 <오대산도>와 <오대산도 선묘 방제시의도>를 통해 열반지를 찾아왔다.



오대산도 선묘 방제시의도. 혜초 스님의 사형 함광 스님은 대종황제의 칙명으로 금각사(30) 불사를 위해 청량사 주지(9)로 부임했다. 함광 스님은 혜초 스님에게 청량사 바로 앞 보리지암(6)에서 머물게 했다.

김 소장은 "여러 문헌을 종합해 볼 때, 스님은 목욕재계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흰 사자를 타고 친히 마중 나온 문수보살의 손을 잡고 열반에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혜초 스님이 열반에 들었다는 건원보리사는 <오대산도>(13m×3.4m)에 그려진 산내 85개 사원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최근 답사 전까지 김규현 소장은 "그 동안 관계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건원보리사를 찾지 못했다. 이 사찰은 금각사의 별칭이거나 소속 말사의 하나일 것"이라고 결론을 지어 왔다.

이후 김 소장은 혜초 스님의 열반지를 밝히기 위해 최근에만 세 차례 중국 현지를 답사했다.

'오대산도 선묘 방제시의도'를 분석해 혜초 스님이 열반한 건원보리사가 청량사 인근이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던 김 소장은 답사와 <대정신수대장경> 등 문헌을 통해 혜초 스님의 말년 행적을 추적했다.

767년, 불공삼장의 제자이자 혜초의 맏 사형(師兄)인 밀교승 함광 스님은 오대산 선찰로 유명한 청량사에 주지로 부임했다. 당 대종황제는 부왕인 건원 숙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함광 스님에게 청량사를 기지로 삼고 금각사를 짓도록 명했다.

김규현 소장은 "혜초 스님도 자연스레 함광 스님을 따라갔고 함광 스님은 혜초 스님에게 청량사 바로 앞 보리지암에서 머물게 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혜초 스님이 마지막 역경을 하던 장소도 보리지암이기 때문에 이곳이 열반지로 유력하다"고 주장하고<오대산도 선묘 방제시의도>에서 열반지를 찾아냈다.

김 소장은 "최근 답사를 통해 건원보리사의 확실한 위치에 접근했다. 건원보리사터를 찾으면 그곳에 '해동사문보리혜초행적비'를 세우는 등 본격적인 선양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S 역사스페셜'에서는 김 소장의 그간 연구 · 답사과정을 소개한다. 프로그램은 '8세기 인도를 순례하는 구도자들을 위한 안내서(가제)'로 김 소장의 연구논문과 <왕오천축국전>을 토대로 8세기 불교 네트워크를 형성했던 중국(당), 인도, 서아시아,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종교 문명 충돌의 현장을 관통하는 혜초 루트의 의미를 재조명한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혜초(慧超 · 704~787) 스님

우리나라 최초로 동서문명교류의 루트인 해양 · 육로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과 인도를 지나 아랍권까지 갔던 세계적인 여행가다.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을 남긴 저자다. 스님의 저서인 <왕오천축국전>은 <대당서역기> <불국기> <남해기귀전>과 함께 '4대 여행기'로 꼽힐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헌이다.

경기도 평택시는 2009년 5월 평택항 인근에 혜초 스님의 시와 인도 여행기, <왕오천축국전> 집필 과정 등을 새긴 '혜초 기념비'를 세웠다.

초보부터 고수까지 '수행나침반'

최기표 교수, '차제선문' 최초 완역

'사찰음식' '선(禪)체험' '절하기' '템플스테이' 등 불교를 소재로 한 웰빙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참선수행은 두뇌활동을 촉진해 심리적 안정을 주는 등 정신건강에 효과적이어서 각광을 받고 있다.

수행을 하다보면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역주 차제선문>(불광출판사 刊)은 수행의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수행을 하는 불자들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저작이다.

<차제선문>의 원 제목은 <석선바라밀차제법문(釋禪波羅密次第法門)>으로 '선바라밀의 차례를 풀이한 법문'이라는 뜻이다.

<차제선문>은 중국 천태종의 실질적 개창자인 천태 대사(天台大師) 지의(智顗 · 538~597)가 설하고 그의 제자 관정이 정리한 것으로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 행해진 온갖 선정의 종류와 수행 차례, 수행 방법 그리고 수행 중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과 이에 대한 대처법 등을 망라한 저술이다.

천태 대사의 수행 이론이 담긴 문헌으로는 <마하지관(摩訶止觀) 10권> <차제선문 10권> <소지관(小止觀) 1권> <육묘법문(六妙法門) 1권> 등 네 가지 전적이 핵심이다.

그 가운데 <차제선문>은 수행의 실질적 지침서로 삼기에 가장 적당하다.

이 법문을 완역한 역주자 금강대 최기표 교수는 "단순히 고전(古典)의 위치에 머물지 않고 현대의 불교수행에도 가치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차제선문>이 선정 이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저술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현대어 번역본은 없었다.

일본과 대만에서 번역을 진행하긴 했으나 완역하지는 못했고 한국에서 최초로 완역했다.

제1~5장은 선정과 관련한 기초이론을 소개했다. 제1장에서는 "보리심을 발해 사홍서원을 세우는데, 이 서원을 이루기 위해 선을 수행한다"는 선바라밀 수행 이유를 설명했다. 제2장은 '선바라밀'을 풀이했다. 제3장에서는 선정에 들어가는 문을 밝히는데 크게 심문(心門)과 색문(色門)의 두 문으로 나누고, 색문은 다시 부정관문(不淨觀門)과 아나파나문으로 구분된다. 이는 각각 출세간상상선(심문), 출세간선(부정관문), 세간선(아나파나문)에 대응한다. 제4장은 선바라밀을 수행하는 차례를 밝히고 있다. 제5장에서는 선정법과 수행자의 마음자세가 유루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4구로 나눴다.

제6장과 제7장은 실제 실천하는 내용으로 방편과 수증(修證)을 설명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보물 삼층석탑에 사리함 대신 일본신문

범어사 석탑 보수 과정서 드러나… 일제강점기 도굴 추정

보물 제250호 부산 범어사 삼층석탑의 사리함 대신 일본 신문에 싸인 채 텅 빈 유리함만이 발견돼 사리구 일체가 일본 강점기 도굴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는 "3월 29일 석탑 보수 과정에서 1층 탑신 중앙 사리공을 개봉한 결과 전통 방식의 사리함 대신 일제가 만든 것으로 보이는 빈 유리함이 발견됐다"고 31일 발표했다.

발견된 유리함은 일제강점기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신문에 싸여 있었다. 유리함 안에는 기록을 적은 종이가 있었으나 부패가 심해 내용은 식별할 수 없었다.

범어사 삼층석탑은 불교가 흥성하던 통일신라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범어사 측은 석탑 안에 불경, 불상 등 다수의 유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왔다.

석탑 해체 결과,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문화재 전문가들은 1930년대 일제가 석탑 기단부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1층 탑신에 있던 사리함 등 유물을 빼돌리고 유리함을 대신 넣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화재청 최춘숙 문화재감정위원은 자문의견서에서 "석탑 사리공에서 발견된 유리병 속에는 산화된 종이 뭉치 및 산화물과 깨어진 유리 조각만 남아있었을 뿐 사리 · 사리장엄구 · 공양구 등 유물은 전혀 없었다"면서 "산화된 종이 뭉치가 한지가 아닌 양지이고, 조각 일부에서 활자본 인쇄물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일제 강점기 때의 인쇄물을 넣어 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범어사 삼층석탑 보수과정에서 드러난 사리공 입구 모습. 사리함을 비롯한 다수의 유물이 발견될 것으로 추정됐으나, 일본신문에 싸인 텅 빈 유리함만이 발견됐다.

한편, 범어사 삼층석탑은 대부분 2개 층의 석탑 기단부를 가진 통일신라시대 석탑들과 달리 일제가 석탑을 해체 · 보수하면서 최하층 기단부가 한층 더 올려진 상태였다. 이에 범어사와 문화재청은 일제가 설치한 석탑 기단부를 제거하기 위해 3월 19일부터 석탑을 해체 · 복원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은정 기자

진각논문대상 5월 14일까지 공모

진각종 교육원(원장 경정정사)은 5월 14일까지 '제12회 진각논문대상' 논문을 공모 · 접수한다.

논문은 '계율의 성립과 변천문제'의 지정주제와 자유주제로 진각종 교학 2편 · 불교일반 3편 · 밀교일반 3편 등으로 나누어 공모할 수 있다. 당선된 논문들 중 최우수 1편에 500만원, 선정 7편에 편당 250만원씩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당선자들은 이후 논문 작성에 들어가 11월 12일 발표회를 통해 논문을 평가받게 되며, 당선작들은 회당학보에 게재된다.

신청자의 학력과 전공 제한은 없으며, 접수된 논문계획서를 바탕으로 종단 내 · 외부의 저명한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6월 18일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진각논문대상'은 진각종 교학 확립과 불교 및 밀교 연구의 발전을 위해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에서 매년 공모하고 있다. (02)913-0133

이나은 기자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창업을 위한 전문자격증 교육생 및 지부모집
제7기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 육 과 목	교 육 기 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월요일 반

수시교육 / 매월 상시 모집 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i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교육원
영남본부교육원 055-543-3155 / 부산해운대지부 051-757-9990 /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대구교육원 053-566-1116 / 호남본부교육원 063-254-5500 /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부산교육원 051-636-2972 / 광주교육원 062-672-5432 / 울산교육원 052-260-1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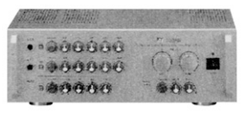
-지부모집-
현재 9개 운영 중 아래 9개 지부를 상시 모집합니다.
강원남부 / 강원북부 경기남부 / 경기북부 충청남부 / 충청북부 대전 / 인천 / 수원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海月 金文華의 魂이 담긴 스피커의, 힘 있고 우렁찬 소리는 스님의 건강과 절 전체에 氣를 불어넣어 줍니다.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ital Echo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 高音質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전용스피커

◇가격 : 500,000원(설치비 포함)

•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탁상 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

Q 시어머니가 아프다며 엄살 부리는 것 같아 얄밉습니다. 하루 세끼 챙겨 드리는 것도 귀찮고, 싫은 사람 보는 것도 힘들고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이런 제 자신이 냉정한 사람처럼 느껴져 괴롭고 남편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A 마음 속에 일어나는 여러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시어머님과의 관계가 편안해질 수 있을지 도움을 청하시는군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자책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내담자께서는 이미 스스로 문제를 알고, 해결하려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시어머니를 싫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네요. 싫은 마음이 오랫동안 쌓여온 응어리인지, 함께 생활하면서 생긴 감정인지요?

시어머니 등 외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스스로 변하는 것이 빠르고 쉬운 길이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선 부정적이고 미워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자기성찰을 하다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또는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시어머니의 장점 10가지를 적어보면서 마음의 움직임과 변화를 느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싫은 마음이 있는데 대화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서로 기분이 좋을 때 대화를 나누시길 권해봅니다. 연인도 사랑을 키우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듯 고부간에도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니 서두르지 말고 서로를 이해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감정과 생각을 털어놓으며 수다를 떨거나 스트레스 해소법을 마련하는 것도 좋겠죠.

Q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남편의 성격이 이상해졌습니다. 되는 일도 없고 걱정하던 차에 아는 분이 천도재를 권해 4번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더 나빠지고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천도재를 해주신 스님께서는 고액의 불사를 하라고 합니다. 천도재 했는데 왜 효과가 없나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다급한 마음에 주위 분 권고를 듣고 조상 천도재를 올렸지만 남편은 호전되지 않고 점점 더 나빠지시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대중을 만나면 근기에 따른 처방으로 중생의 병을 고쳐 주셔서 '의왕(醫王)'이라고도 했습니다.

부처님의 처방은 연기론에 근거한 과학적인 것이었습니다. 내담자께서도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남편의 병인을 먼저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황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순차를 따라 남편의 상태를 파악해 그에 맞는 처방을 하세요.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남편의 증세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정성을 다해 기도를 하신다면, 마음이 훨씬 안정됩니다. 기도를 하면 마음이 강건해져 어떠한 역경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정갈한 장소에서 108배를 하거나, 경전을 읽거나, <반야심경> 사경을 해도 좋을 듯합니다. 기도는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또 재의 효력에 대해 궁금해 하셨습니다. 재의 본래 의미는 몸과 입, 뜻으로 지은 삼업(三業)을 맑게 해서 악업을 짓지 않겠다는 뜻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몸과 마음을 다해 귀의한다는 표현의식입니다.

그러한 뜻이 돌아가신 영혼을 위로하고 불법에 귀의해서 악업이 소멸되기를 기원하는 재이지요. 충분히 의미 있는 불교의 의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담자께서 하신 천도재는 많은 공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스님이 권하시는 고액의 불사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 시점에서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형편에 어울리는 보시를 하신다면 스님도 이해할 것입니다. 남편께서 하루 빨리 좋아지시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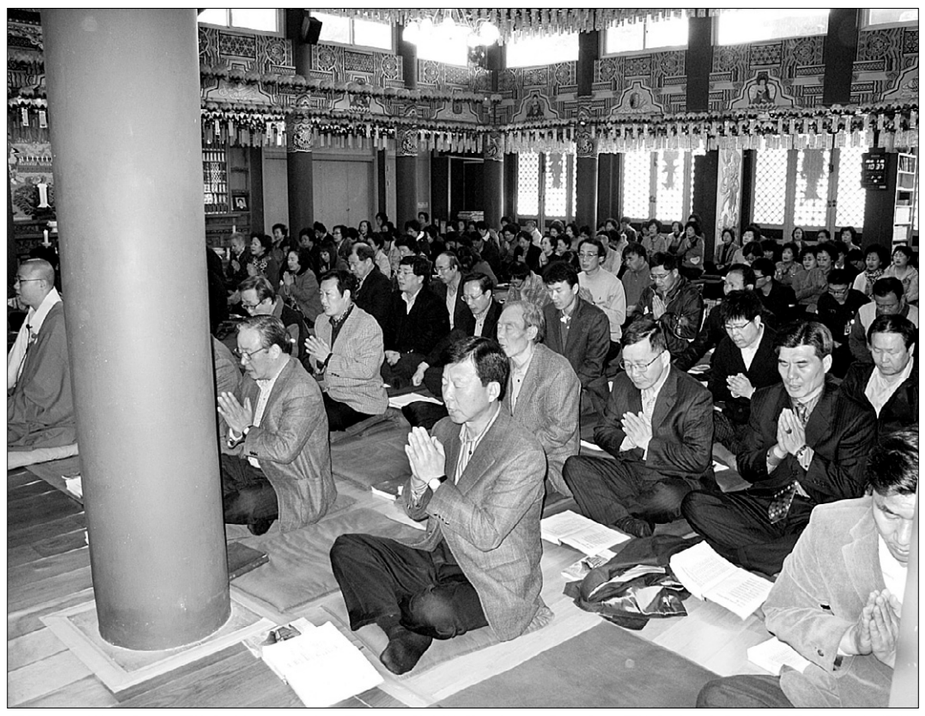
시어머니를 보면 미운 마음이 들어 괴롭습니다
갈등 생길 때마다 장점 10가지를 적어보세요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불교' 라는 인연의 씨앗 심어요

희망법당 탐방

공군복지단, 보라매법당


공군 보라매법당 일요가족법회에는 250여 신도들이 참여해 불법을 나눈다. 3월 28일 가족법회에 참석한 신도들은 한송 스님(국방부 군종과장) 초청법문으로 일요일을 맞이했다.

공원내 법당 신도 대부분 일반인… 연령별 맞춤 포교
불교는 '우상숭배'라는 왜곡된 인식 변화가 가장 시급

쌀쌀한 바람이 이따금씩 불어오지만, 햇살만큼은 완연한 봄이다. 그런 봄을 여유롭게 느낄 수 있는 일요일 아침, 서울 보라매공원은 산책을 하거나,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분주하다.

보라매공원의 음악분수가 내려다보이는 산기슭의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성불하세요"라는 소리가 산새소리와 어울려 하모니를 만든다.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보라매법당 신도들이 매주 발행하는 정기법회 회보를 나눠주며 하는 말이다.

가족법회가 시작되자, 보라매법당 안에는 250여 신도들로 빼곡했다. 3월 28일 열린 가족법회에는 국방부 군종과장인 한송 김상례 법사의 초청법문이 있는 날이었다. 어느 때보다 법당은 활활발발했다.

"신도등록 가구 수만 5000세대가 넘습니다. 대부분(군인가족이 아닌) 일반신도인데, 일요법회마다 200~250명의 신도가 법회에 참가합니다."

공군 복지근무지원단 보라매법당 주지법사인 상원 스님은 군인법당에 일반신도가 많은 이유를 "단지 위치적, 환경적 요건이 좋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너무 겸손하게 말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당연하다는 듯 "사실인걸요"라고 답했다.

공군 법당인 보라매법당 신도 중 공군 가족은 5% 정도에 불과하다. 법당이 위치한 공원 주위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밀집된 것도 일반인 신도가 많은 요인 중 하나이다. 특히 공원을 산책 나왔다가 법당을 들리는 사람들도 많다.

신도의 연령대가 불교계 일반 신도연령에 비해 낮은 것도 보라매법당의 특징이기도 하다.

"신도 연령이 고령화된 불교계에서, 보라매법당 신도들은 연령대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30~50대 분들이 많죠. 법당을 찾는 젊은 불자들을 위해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보라매법당은 어린이와 청소년 · 청년 법회가 주를 이룬다. 상원 스님이 2008년 처음 보라매법당에 주지법사로 부임할 당시만 해도 청년 법우들의 인원은 3명에 불과했다. 현재는 20여 명이 넘는 청년불자가 청년회를 조직해 활동 중이다.

스님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 법회 때에는 연령층에 따라 사용되는 법요집부터 다르다"며 젊은 층 대상의 포교활동에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하면서, 불교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불교를 '우상숭배'라고 오해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발생된 잘못된 이미지들을 주로 기억합니다. 이러한 시각은 앞으로 불교가 빨리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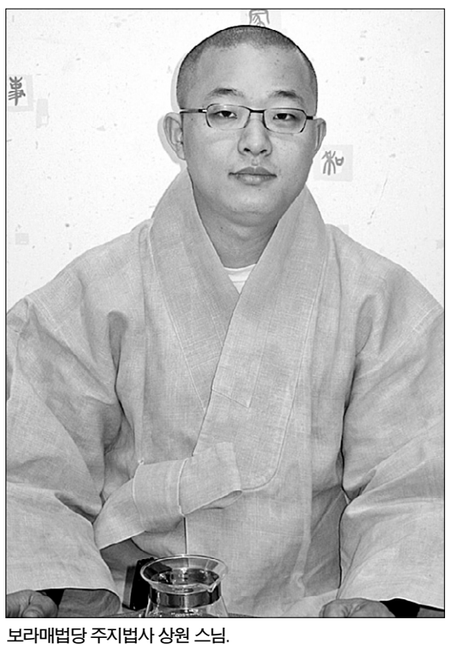
또 상원 스님은 "불자들 간에 세대와 관계 없이 화합과 교류가 잘 이뤄지는 것이, 앞으로 불교포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현상들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불교가 발전하기 힘들어진다고 판단한 이유에서다. 그래서 스님은 한 달에 한 번 정기회의를 마련해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군법당의 지도법사는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바뀐다. 상원 스님도 보라매 법당에서 함께 신도들과 보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 들어 초청법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줘야 신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까 고민 끝에, 초청법회를 열어 신도들에게 많은 법문을 들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는 법문보다, 다른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신도들이 좀 더 깨달음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보라매법당은 이런 초청법회와 더불어 <아함경> 강의, 성지순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산사랑회'라는 모임을 조직해, 깨끗한 산을 가꾸기 위한 환경보호 운동도 실천 중이다.

"제가 하는 일은 씨앗을 심어 주는 일입니다. 군장병들을 비롯해 많은 젊은이들에게 불교라는 인연의 씨앗을 심어줘, 그들이 그 싹을 잘 틔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제 몫입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불교를 알리는데 힘쓰겠습니다."


보라매법당 주지법사 상원 스님.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종도를 모십니다

아름답고 뜻 있는 삶을 함께 하고자 하시는
승려(비구, 비구니) 및 재가불자 분들께서는 모두 연락바랍니다.

종 정 법장 종회의장 행 선
총무원장 효 성 총무원부원장 화 암. 지 성

포교원장 호암 교육원장 법안 총무부장 무상
재무부장 고성 교무부장 영경 사회부장 초암
감찰부장 성각 포교부장 법인 교육부장 종산
부산교구종무원장 대안 대구교구종무원장 고성
경북교구종무원장 초암 경남교구종무원장 성각
전북교구종무원장 지오 충청교구종무원장 법현

종단 입종절차 문의는 총무원으로 직접 연락바랍니다.
불기 2554년 4월

총무원 주소 :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 224번지
연락처 : 070-8876-2848, 054) 974-4725 / 팩스 054) 974-4726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율종 총무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안내

종 정 정 화
총무원장 혜 봉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함께 하고자 하시는
비구, 비구니, 법사, 포교사님을 모십니다. 좋은 인연 되시길 바랍니다.

- 입종서류 : 본종단 소정양식,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사진 4장, 법당 내외사진 각1장, 주민등록 앞 뒤 복사본. (무속인 입종은 사양합니다)
- 입종하시는 즉시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하여 드립니다.
- 각 지역별 종무원장 또는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문의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바로잡습니다 : 본지 편집 착오로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종도모집 광고 중에서 정화 종정예하 취임 이전 광고인 '종정대행 총무원장 혜봉' 문안이 들어간 광고가 게재되었습니다. 이러한 착오로 종정예하 및 종도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깊이 해량 바랍니다.

제4회 서울 · 경기 파라미타 연합법회

나이 어리다고 불심도 어리지 않아요



3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열린 제4회 서울 · 경기 파라미타 연합법회에 능인선원 법우들이 특별 초청 돼 난타 공연을 했다.

3월에 때아닌 꽃샘 눈보라 끝에 쨍쨍한 햇빛이 세상을 비춘 3월 28일, 사찰 청소년법회 지도자와 법회 학생들을 위한 불심 한마당이 열렸다.

"띠띠빵빵 차를 타면 만나는 부처님~ 흔들흔들 차 속에서 어지러우시지도 않은가봐~!"

제4회 서울 · 경기 파라미타 연합법회가 열린 조계사의 아침은 참새 떼가 재잘거리는 것처럼 말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절 같다' 던 표현은 간 곳 없이 조계사 도량은 학교 운동장처럼 시끌벅적 했다. 아이들의 술래잡기와 찬불가 연습 등으로 부산한 법당 밖과 달리 법당에서만은 여느 때처럼 노 보살님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

파라미타 연합법회가 열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는 서울 · 경인 지역에서 모인 청소년 불자들로 가득했다.

청소년이 주인공인 법회답게 여느 법회에서 느껴지는 엄숙함이나 경건함이

부처님 가르침 대로 살겠다 다짐

"청소년 법회 활성화 되기를…"

이번 만큼은 느껴지지 않았다. 흥겹게 주고받는 대화 속에 세상의 봄기운은 다 이곳으로 모인 듯 전통공연장은 맑고 밝은 기운으로 가득했다.

마이크를 타고 씩씩한 법우의 목소리가 들린다.

"지혜와 자비로 온생을 가피(加被)하시는 부처님!
저희들은 바쁜 학교 생활과 학업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참된 불자 청소년의 길을 갈 것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튼튼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하여
대한민국의 대들보, 더 나아가 인류평화의 일꾼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저희들의 이 다짐과 서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초발심으로 정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발원합니다."

박혜인(능인선원), 유기형(봉은사) 법우의 발원문 선창에 아이들은 모두 건강한 불자로서 자라기를 발원했다. 발원문을 낭독하는 아이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다. 지도 스님들과 교사들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띄웠다. 발원문 낭독이 끝나자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이사 주경 스님은 법문에서 "어느 곳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예뻐 보인다"며 "잘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친구가 되자"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청소년은 무엇이든지 수확할 수 있는 밭이다. 좋은 씨앗을 심자"고 당부했다.

"오늘 이 시간을 마음껏 즐기자"는 주경 스님의 선창에 놀이마당이 시작됐다.

이날 놀이마당에는 구룡사, 봉국사, 옥천암, 인천불교회관, 화계사, 진관사, 봉은사, 능인선원, 조계사, 금강선원 등 10개 사찰의 지도교사 41명과 263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해 각 사찰에서 준비한 합창, 퍼포먼스, 뮤지컬 등을 선보였다.

진관사 이대운 지도교사와 화계사 김꽃다울 법우의 사회로 진행된 놀이마당은 어느 축제 못지않게 화려함과 흥겨움을 선사했다.

능인선원의 댄스팀은 '신류가(身流歌)' 이다. 단장 박현지(19)양은 "작년까지 팀 이름이 니드(NID)였는데 이번에 바꿨다. '신류가' 는 몸짓의 노래라는 뜻이다. 우리말이 소중하고 아름답다"고 말했다. 노래에 몸을 맡길 줄 아는 능인선원 법우들은 7~8곡의 노래에 맞춰 춤을 췄다.

참가한 10개 사찰 청소년회 법우들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행사가 진행될수록 관객들의 집중도가 높아졌다.

또 각 사찰의 청소년 법회 지도교사들이 몰래 준비한 공연과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이경재 교사의 지도하에 연등축제 율동('행복창고')을 사부대중이 다함께 해보는 시간도 있었다.

전통공연장이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호응은 대단했다.

진관사에서 온 박준호(17)군은 "연합법회를 통해 여러 곳의 친구들을 만나게 돼 좋다. 앞으로 다른 절의 청소년회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다"고 말했다. 능인선원 박현지양은 "우리 능인선원은 다른 건 몰라도 놀 준비가 된 친구들이 많다. 심심하거나 친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라"며 한 마디를 더 보탰다.

자신이 소속한 사찰을 소개하는 법우도 있었다.

사회를 본 화계사 김꽃다울양은 "화계사는 국제선원이 있어서 외국인 스님들을 만나볼 수 있다. 봄이 오면 꽃이 만발하는 화계사로 꽃구경도 오고, 부처님도 만나자"고 말했다.

함께 사회를 본 이대운 교사는 "진관사에는 잔디가 깔려 있고 계곡도 흐르고 있다. 우리 절에 찾아오면 잔디 위에서 놀 수 있다. 궁금한 학생들은 언제든지 와도 좋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불자들의 신명나는 놀이마당을 뒤로 청소년 포교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파라미타 제1기 출신으로 현재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뛰고 있는 김민기 행정지원주임은 "파라미타 창립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사찰 등 불교계 동참이 줄고 있어 안타깝다. 불교에도 청소년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많다. 부모님들의 관심과 지역 각 사찰의 활발한 동참이 이어져 청소년 법회가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제4회 서울 · 경기 파라미타 연합법회에 참가한 서울 조계사 청소년회 학생들이 장기자랑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각 사찰 청소년법회 지도교사들이 '붉은 노을' 을 부르고 있다.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는?

'파라미타' 는 보살의 수행덕목인 바라밀다(波羅蜜多)의 산스크리트 표기(범어)로 어둠의 이 언덕에서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이다.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는 '청소년들이 진리와 자유의 세계를 향해 나아간다' 는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 1996년 조계종 산하단체로 설립됐다.

청소년 불자들을 사회봉사와 수련 등을 통해 불교적 실천으로 이끄는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는 현재 전국 광역시 · 도에 12개 지부, 21개 지회가 설립돼 3만 여 청소년 불자가 활동하고 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쌍계사 보살계법회 4월 18~20일

하동 쌍계사(주지 상훈)는 4월 18~20일 3일간 정기보살계 대법회를 봉행한다.

행사는 18일 오후 2시 입재법회를 시작으로 20일 오전 8시 대장경 정대불사 및 육조봉찬회 총회에 이어 수계법회가 이어진다.

이번 수계법회에는 조실 고산 스님을 증명법사로 전계대화상 보광 스님, 갈마아사리 지하 스님, 교수아사리 일해 스님 등이 계사로 등단해 경내 금강계단에서 보살계를 수계한다.

접수 · 문의는 부천 석왕사, 부산 혜원정사, 서울 혜림정사, 하동 쌍계사로 하면 된다.

상훈 스님은 "많은 불자들이 동참해 무량한 보과 지혜를 닦고 생사해탈의 법연을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쌍계사는 1200여 년 전 진감 국사가 창건한 이래 계법의 중흥조 금담 율사의 계맥을 이어온 전법도량이다. (055)883-1901 박지원 기자

부산 최초 우바이중창단 '청공' 창립

3월 30일 창립법회… 우바새 '청공'과 불음 공양 앞장설 계획

불자로만 구성된 여성중창단이 부산지역 최초로 탄생했다.

불교여성중창단 청공(단장 김선희, 동명불원)은 3월 30일 오후 1시 남천동 소재 한 중식당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음성공양 봉사활동에 돌입할 것을 다짐했다.

그동안 부산시는 200만 명에 이르는 재가불자들이 거주해 '우리나라 불교의 중심지'라고 자부해왔다. 하지만 여러 장의 찬송가 음반을 발매할 정도로 수백 여 개의 남 · 녀 · 혼성 중창단이 활성화된 이웃종교와는 달리 불교계는 여성불자들로 구성된 중창단이 전무한 상황이어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성민 지휘자는 "그간 여성중창단이 전무했다는 사실이 불자성악가이자 여러 합창단의 지휘자로서 가슴이 아프고 부끄러웠다"며 "앞으로 여성중창단 청공은 기존의 남성중창단인 또 다른 청공과 함께 부처님의 노래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모든 단원이 봉사정신으로 법석이 여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음성공양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도법사 김해 길상사 혜수 스님(가운데)과 김선희 단장(뒷줄 가운데), 지휘자 정성민씨(오른쪽)와 '청공' 단원들.

여성중창단 청공은 기존의 남성불교중창단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공의 리더 정성민씨가 주도해, 현재 지도하는 홍법사와 홍제사, 동명불원 등의 합창단 가운데 기량이 뛰어난 13명의 소수정예 중창단원을 선발해 창단됐다.

김선희 단장은 "우리는 모두 거룩하신 부처님의 인연으로 처음 만나, 13명의 단원이 한마음으로 걸음마를 시작하려 한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목소리를 통해 향을 사르고 공양을 올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성공양에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청공의 노래를 듣는 모든 불자들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신심이 더욱 돈독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중창단 청공은 기존 남성중창단 청공에서 활동 중인 지휘자 정성민, 반주자 김보성을 비롯한 동아대학교 성악가 출신의 김선희 단장(동명불원 합창단)과 홍법사 합창단 출신의 정은아 총무, 오다현(소프라노), 이미경, 그리고 불참회 합창단 출신의 안덕자, 하순임, 홍제사 합창단의 이옥숙(알토), 성은화, 곽경희 등 총 13명의 신심 깊은 불자합창단원으로 구성됐다.

김해 길상사 주지 혜수 스님이 지도법사를 맡아 단원들을 이끌게 된다.

혜수 스님은 "모든 게 이뤄질 때는 순간적으로 이뤄진다. 사람이 태어남과 죽음 역시 찰나이듯, 이것이 바로 인연이다. 인연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대다수"라며 "찰나의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인만큼 불교여성중창단 청공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도 중요하다. 모두 힘을 합쳐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010)9879-6882(김순희 단장)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창원 성불사 주지 승지 스님

평양까지 뛴다! 가사장삼 마라토너

2007년 가을, 부산 강서구 경마공원에서 열린 마라톤대회에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은 마라토너가 있었다. 가사장삼을 정갈하게 갖춰 입고 준프로급 참가자들과 선두 대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달리는 이는 바로 '마라토너 스님'으로 유명한, 창원 성불사 주지 승지 스님(사진)이다.



승지 스님이 마라톤을 시작한 계기는 이렇다. 어느 일요일 오전, 속리산 법주사 경내에 북새통을 이루던 관광객들을 마주하면서부터였다. 스님은 관광객들을 보고 '저 많은 사람들이 모두 불자들은 아닐 텐데 저들을 포교하면 참 좋겠다'라 생각하면서 창원으로 돌아오던 길에 수많은 마라토너들이 대회에 참가한 모습을 보게 됐다.

스님은 "마라톤 참가자들 속에 가사장삼을 입고 달린다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그것만으로도 포교가 될 것이라 생각해 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사실 장삼을 입고 뛰면 속도가 제대로 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마라톤 복장으로 달린다면 개인 건강관리를 위해 뛰는 것 밖에 안 될 것 같아 가사장삼을 모두 갖춰 입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2년간 크고 작은 대회에 참가해 총 1603km의 기나긴 길을 달리면서 반드시 지키려 노력한 철칙이 있었다. 결승선에 다다르기 전까지 절대 멈춰서 쉬어가거나 중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약 3km 지점을 넘어서면 마라토너들은 달리기의 진수를 느낀다고 해요. 이 경계에 닿으면 출발선부터 거쳐 온 과정이 진정한 수행의 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마라톤을 멈출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승지 스님과 함께 길 위에서 수행정진을 하는 '한국불자마라톤' 회원들의 등번호판에는 조계종 前 총무원장을 역임한 법장 스님이 직접 써준 휘호가 늘 새겨져있다. '주선일미(走禪一味)'즉, 달리는 것과 참선은 같다는 가르침이 담겨있다.

승지 스님은 "정진은 편안한 자세에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 할 때 깨달아 중생을 제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라톤 자체뿐만 아니라 군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출가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포교가 되고, 부처님의 꽃이 되고 향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오늘도 스님은 "하루 빨리 남북통일이 되어 서울에서 평양까지 여러 불자들과 함께 달리는 상상을 합니다. 저의 남은 여생을 마라톤으로 수행정진하고 포교하며 회향하고 싶어요"라며 달린다.

한편 스님은 포교의 발원을 넘어, 국내 200만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달릴 계획이다. 스님은 4월 2~20일 열리는 장애인축제 '1004릴레이 희망의 마라톤'에 경남지역 대표로 참가해 임진각~울산(700㎞) 구간 중 경남 화개장터~통도사(234㎞)를 달릴 예정이다. cafe.daum.net/sabee

박지원 기자

해운대 정토회 '법륜 스님 봄 강좌'

수행공동체 해운대 정토회(지도법사 법륜)는 4월 7일~5월 26일 '2010년 법륜 스님의 봄 인생강좌-당신의 인생, 행복으로 디자인하라!'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법륜 스님과 즉문즉설로 진행되며, 기간 내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 30분 하루 두 차례 마련된다.

즉문즉설(卽問卽說)이란 부처님 당시의 대기설법(對機說法)의 전통으로,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물으면 부처님은 질문자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한데서 기인했다.

법륜 스님은 "즉문즉설은 자신의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데 훌륭한 방편이 될 것"이라며 "이번 법회를 통해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의문점을 명쾌하게 풀어내어 희망의 길로 안내하는 지혜의 샘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5월 12~19일 매일 오후 3시에는 동래 정토회에서도 법륜 스님의 봄 인생강좌를 들을 수 있다. (051)747-9997(해운대), (051)-557-2746(동래) 박지원 기자

휴휴정사 영어템플스테이

부산 범어사 경내 휴휴정사는 4월 한 달간 테마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영어템플라이프는 4월 10일 열리며, 영어로 사찰안내, 발우공양, 스님과의 차담 등을 진행 한다. 정기템플스테이는 4월 17~18 사찰 문화체험, 암자순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산행템플스테이는 4월 24~25일 참가자들이 금정산 고당봉 산행을 통해 명상수행 법을 배우게 된다. 참가 신청은 범어사 홈페이지 템플스테이 예약란에서만 접수 가능하다. (051)508-5726 박지원 기자

"중생구제와 불국토 건설에 앞장"

부산불교실업인회 창립 19돌 기념법회

부산 불자기업인들의 모임인 부산불교실업인회가 창립 19돌을 맞았다.

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김윤환 · 영광도서 대표)는 3월 26일 서면 부산불교실업인회관 묘광선원에서 창립 19주년 기념식을 갖고,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을 초청해 법문을 듣는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을 시작으로 강령 낭독, 신입회원 입회선서, 신임 임원진 임명, 모범회원 표창 및 공로패 수여, 김윤환 회장의 기념사, 원허 스님 초청 법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윤환 회장(오른쪽) 및 기업인 회원들.

원허 스님은 법문에서 "일주문에는 '입차문래 막존지해(入此門來 莫存知解)'라는 문구가 있다. 일주문을 들어설 때 세상에서 가져온 알음알이를 다 버리고 들어와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빈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부처님의 법문을 가득 담을 수 있다"며 "기업활동으로 바쁘겠지만 매월 정기법회 만큼은 온갖 지식과 알음알이를 잠시 비우고, 열정적인 수행정진으로 잊고 지낸 불성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스님은 애플의 창시자인 스티븐 잡스의 성공일화를 소개해 불자기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에 앞서 김윤환 회장은 기념사에서 "불교실업인회는 부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열심히 익히고 선망하는 훌륭한 불자기업인들의 모임인 만큼, 열정적인 기업 활동과 보시를 실천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며 "부처님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중생구제와 불국정토 건설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51) 818-9914

박지원 기자

화제의 불화

■ 후손까지 번영하게 축원불공 마쳐
■ 재난과 액운을 쫓고 소원성취 영험



「세존이시여 무슨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을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찰귀의 액란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된다.

수월관음도

가정과 사업장에 꼭 있어야할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여의주를든 수월관음도는?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닌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에나 잘 응할수 있다.」<관세음보문품경에서>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 모습으로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란을 소멸하고 세상사는 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워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음 부처님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成浩화백께서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단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판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란이 있다. 전화로 신청 하시면 특급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린다.

규격 : 가로 67Cm×세로 85Cm 가격195,000원
문의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

용띠, 쥐띠, 원숭이띠, 드는 삼재 시작 조심

닥처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묵는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쥐띠,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뱀띠,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리며 지갑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금액 45,000원
문의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입금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 공급가격 별도 상담요)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 차량사고 예방과 생명보호의 필수품!
■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 호신불을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30%할인)

마애불 새옷 입다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 봉불 및 헌공의식

선운사 도솔암으로 오르는 서편 암벽 칠송대(七松臺)에는 고려 초기에 봉안된 마애불상(보물 제1200호, 높이 13m, 너비 3m)이 있다. 마애불상은 평평한 네모진 얼굴, 가느다란 눈과 우뚝 솟은 코, 일자로 도드라진 입술에 엄격한 미소가 가득한 정감 가는 모습으로 오가는 대중을 반겨왔다. 하지만 조선 영조 때 마애불을 보호하던 목조 전실이 소실된 후 자연 마모가 가속화돼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런 가운데 지장도량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보물 1200호)이 100일 동안 건식 · 습식 세척 등 문화재 전문가들의 손길을 거쳐 1100년 만에 새 옷을 입었다.

도솔암(감원 종고)은 3월 31일 마애불 봉불 및 헌공의식을 봉행했다.

종고 스님은 인사말에서 "마애부처님을 깨끗이 씻어 봉불하니 도솔산에 미륵의 꽃이 핀 것 같다"며 "미륵신앙의 성취는 개인과 사회의 자유와 평화, 성불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법회에 앞서 "마애불 조성 후 1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번도 관불과 헌공의식을 진행했다는 기록이 없다"면서 "오늘 행사는 1100여 년 만에 마애불이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이다"라고 말했다.

도솔암 관계자는 "그동안 정기법회가 없었으나 이번 봉불법회를 계기로 매월 음력 5일인 미륵재일에 정기적 법회와 미륵신앙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며 "올 가을께 미륵신앙을 재조명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소실된 미륵전 복원불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미륵불로 불리는 미륵불의 배꼽부분에는 석회로 메운 흔적이 있다. 그 안에는 선운사를 창건한 검단 선사의 신기한 비결(秘訣)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동학농민전쟁 당시 무장접주 손화중 등 주도세력들이 민심을 모으기 위해 불상의 배에서 비결을 꺼낸 것으로 유명하다. 미륵의 출현을 내세워 민심을 모으기 위해 이 비기를 꺼내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스님들의 저항을 뿌리치고 동학농민운동의 주도세력은 배꼽부분을 도끼로 부쉈다. 실제로 동학도의 손에 비결이 들어갔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당시에는 비결을 넣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3개월 후인 11월 3일 추운 겨울날씨에도 동학도 수천명이 모여 최초 교권운동인 삼례집회(參禮集會)가 열렸다.



새로 단장된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보물1200호).

조동제 전북지사장

위봉사 일요가족불자회
'선화당' 개원

사찰에서 수행 정진 중인 스님들의 수행환경 보존을 위해 신도회가 신행활동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완주 위봉사 일요가족불자회(회장 이두연)는 최근 전주시 삼천동 농협농산물 공판장 앞에 '선화당'을 개원했다.

법중 스님은 개원식에서 "단순히 공부를 한다는 것은 지식을 얻는 것에 불과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지혜를 얻는 것"이라며 "부처님 지혜를 얻기 위해 공부하는 불자가 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화당은 위봉사에서 정진 중인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환경을 위해 위봉사 신도인 이타순 보살(법명: 원만심)이 200평 규모의 토지와 건물을 보시해 마련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구례지역 마을잔치
어르신들 위해 열어

산에는 산수유꽃이 피는 봄날, 산중의 스님들이 나와 지역 어른들과 놀이마당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의 명산인 지리산 화엄사(주지 종삼스님)에서 지원운영중인 구례노인전문요양원(원장 일문스님, 화엄사 총무)는 지난 3월 26일, 앞마당에서 노인 위안잔치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종삼스님, 종열스님(화엄사 전 주지)등 교구 스님들과 성문스님(용문사 주지), 서기동 구례군수를 비롯한 구례군 토지면 어른 300여명이 참여하여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개원 1주년을 맞아 구례지역 어른들을 초청하여 생신잔치, 한정하 명창의 판소리, 가야금병창, 남도민요 등 국악공연과 화엄사-용문사합창단의 축하공연, 기념품 증정이 진행됐다. 요양원 어른 생일잔치에는 박삼덕 어른 비롯한 10명분의 생일잔치가 벌어졌다. 생일잔치는 촛불 끄기, 케익컷팅식, 생일선물 전달로 진행됐다.

한편 구례군노인정문요양원은 지난 2008년 7월 개원하여 현재 60명 어른을 모시고 있고,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광주기관차승무사업소 기관사 임천택

불심으로 달리는 '반야열차' 기관사

"열차에 탄 수 천명의 시민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것이 즐거워요. 졸음이 오면 졸음이 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수경과 광명진언을 노래처럼 외우면 금세 졸음은 가시고, 열차 운전석은 법당이 됩니다."

임 포교사는 30여 년 동안 60만km 무사고운전을 한 베테랑 철도기관사이다. 광주철도공사 연등회 회장인 그의 또 다른 닉네임은 '봉사의 달인'이다.

그를 다른 포교사들이 봉사의 달인으로 칭하게 된 데에는 많은 봉사활동이 있다. 력을 보면 알 수 있다.



광주철도공사 연등회 임천택 회장.

연등회는 기관사 30여 명이 자원봉사와 후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등회 회원들은 향림사에서 운영하는 우산복지관에서는 노인나들이 행사, 목욕봉사, 노인위안잔치를, 초등학교 장애인 수용기관인 현비동산에서는 어린이 물놀이와 재정후원을, 재가노인시설인 대해노인복지센터에서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목욕봉사, 바깥나들이 등을 진행해 왔다.

임 포교사를 비롯한 연등회 회원의 이런 노력이었을까. 연등회는 2007년 철도공사(사장 허준영)로부터 장려상을 수상하고, 광주본부로부터는 청년봉사상 수상을 2년 연속했다.

임천택 포교사 또한 2009년 조계종 포교원장상과 중앙단장상 등을 수상했다.

2005년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으로부터 받은 공로패는 힘든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간부들은 견책(경징계)을 받았지만 행정무효소송과정에서 그 사유가 인정되어 견책이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임 포교사의 열성적 자원봉사에 대한 작은 공덕이 아닐까 싶다. 여기에 포교사로써 고령정보고등학교(소년원) 팀장, 광주지역단 감사 등 포교사단의 각종 업무를 묵묵히 진행한다.

"자원봉사를 자발적으로 처음 시작하려면 쑥스럽지만 자주하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진 봉사는 생활이 되고 수행이 됩니다."

임 회장은 동료나 후배들에게도 자원봉사활동과 불교공부에 동참할 것을 적극 권한다. 특별한 권유 없이도 임 포교사의 모습을 보고 동료 기관사 2명이 포교사가 됐고, 1명이 불교대학을 다닌다고 한다. 불법을 알리는 그의 따뜻한 선행에 열정이 만든 결과물이다.

법회부터 향림사 불교대학을 1기로 졸업할 때까지 임천택 회장은 늘 청일점이었다.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그는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배운 것을 널리 알리는 포교사를 길을 걷게 됐고, 이후 자연스럽게 자원봉사 활동과 불교공부를 지속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는 그에게 마지막 바람이 있다.

"최근 연등회는 자원봉사와 후원은 잘 이루어지나, 법회가 미진한 편입니다. 연등회의 교육프로그램과 법회를 정상화하여 후배에게 넘겨주는 것이 그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자리를 떠나기 전, 연등회 법회 활성화를 이룰 것을 서원합니다."

불심(佛心)으로 달리는 기차를 운전하는 임 포교사는 '반야열차' 기관사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의 모습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돼 널리 퍼지고 있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백련사 팔국사 다례문화제 개최

강진 백련사(주지 여연)는 4월 10일 '백련사 팔국사 다례문화제'를 봉행한다.

백련사는 고려 고종 19년(1232년) 원묘국사가 백련결사를 일으킨 곳으로 유명하다. 최초의 민간결사인 백련결사는 고려후기 몽고군과 왜군의 침략으로 큰 고난을 겪던 민중에게 참회와 염불 수행을 통해 현세를 정토로 만들자는 희망을 주고자 시작됐다.

백련결사를 기점으로 백련사에서는 120년간 원묘 · 정명 · 원환 · 진정 · 원조 · 원혜 · 진감 · 목암 국사 등 8명의 국사를 배출했다

팔국사 다례재는 백련사가 배출한 여덟 국사에게 육법공양을 올리는 제례의식이다. 다례문화재에는 다례재에 이어 인근 동백숲에서 산사음악회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부도밭에서는 초의차문화회(회장 여연) 주관으로 들차회가 진행된다. 청소년을 위한 '아함 혜장선사와 다산 정약용'을 주제로 답사 및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4월 10일 강진 백련사에서 열리는 팔국사 다례문화제 포스터.

또, 백련사 만세루에서는 '천년의 숨결'을 주제로 8~18일까지 열리는 전시회에는 이호신, 송필용 화가, 박정호 판화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061)432-0837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추모공원 조성 범시민대회
김대중 · 노무현 前 대통령 추모 · 소통

광주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공원조성 범시민대회가 지난 3월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시민대회는 정동채(전 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섭(민주당 국회의원), 강운태(민주당 국회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와 일반시민 300여 명이 참여했다. 광주 문빈정사 앞마당에 두 전직대통령을 추모하고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공원조성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지선 스님은 인사말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으로 동서화합과 남북협력의 시대를, 노무현 대통령은 깨어있는 시민의 주권시대를 열어주었다"며 "기념공원은 두 전직대통령의 정신과 민주항쟁의 연속성과 현재성을 동시에 아우르기 위해 인류 보편의 가치를 품은 무등산 들머리에 민주주의와 지역화합을 표상할 수 있는 의미로 세워진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가슴 밑바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아픔과 자부심을 서로 화답할 수 있는 소통과 연대의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범시민대회를 진행한 추모공원조성위는 지난 2009년 5월 노무현대통령 서거이후 영호남의 주요 민주인사들과 고인의 가치를 계승하고자 추모비 건립을 모색한바 있다. 이어 9월 김대중대통령 서거이후 김대중평화센터와 노무현재단의 추모사업과 병행하여 광주정신에 부합되고 무등산과 조화로운 기념공원 조성을 위해 지선스님을 준비위원장으로 위촉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 11월 준비위를 구성하고, 12월 광주광역시에 기본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행사관계자는 "향후 4월말 창립총회를 통해 지방정부와 보조를 맞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오색공단등 · 영가등 ·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 팔각봉축접등 · 종등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방등계단 석종(보물 제26호)과 5층 석탑(보물 제25호)(왼쪽).
금산사 부도밭 전경과 모악산(위쪽).

용화세상 향한 마음 세월의 자취 초월하니 미륵님 오셨네



31 미륵의 근본도량
금산사

조금 일찍 갔습니다. 풀린 개울물이 속삭이듯 흐르고 산수유 꽃 노란 미소가 다소곳한 풍경만으로 금산사의 봄을 느끼기에는 부족합니다. 예로부터 호남의 4경(四境)으로 금산사의 봄, 변산반도의 여름, 내장산의 가을단풍, 백양사의 설경을 꼽았다고 합니다. 봄경치가 아름다운 금산사의 진풍경은 꽃이 흐드러지고 신록이 무르익어가는 5월 초쯤이나 되어야 제맛을 낼 것 같습니다.

대개 사찰의 중심은 대웅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금당이 건물의 배치나 정신적인 중심을 이루는 것은 당연한 일. 하지만 금산사는 좀 다릅니다. 금강문과 천왕문을 지나 보제루를 지나면 정면으로 대적광전이 보입니다. 5여래(비로자나불 · 석가모니불 · 노사나불 · 아미타불 · 약사여래불)와 6보살(대세지 · 관음 · 문수 · 보현 · 일광 · 월광)이 장엄하게 모셔진 대적광전이 보입니다. 그러나 발길은 마당 서쪽의 미륵전(국보 제62호)을 먼저 향하게 됩니다. 미륵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언제나 껄껄껄 웃으며 그 너른 품을 한없이 풀어헤쳐 일체중생을 받아들이는 미륵부처님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미륵신앙의 중심에 있는 금산사. 그 도량의 핵이 미륵전입니다. 그 건물 안에 커다란 미륵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몰라도 저절로 미륵의 용화도량으로 빨려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륵전은 밖에서 보면 팔작지붕의 3층 구조지만 내부는 한 층입니다. 키가 11.82m나 되는 커다란 미륵 부처님과 좌우 협시를 이루는 법화림(높이 8.19m)과 대묘상(높이 8.19m) 보살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목탑 형식의 건축이 불가피했을 겁니다. 거기에 각 층마다 편액도 각기 다릅니다. 1층은 대자보전(大慈寶殿), 2층은 용화지회(龍華之會), 3층은 미륵전(彌勒殿)입니다. 미륵부처님을 한자로 '자씨(慈氏)보살'이라 번역했고, 미륵부처님이 용화수 아래에서 성불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셋의 이름은 모두 미륵부처님을 모신 집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미륵전 옆에는 높다란 석축이 있습니다. 방등계단입니다. 금산사가 유식학을 근간으로 하는 법상종과 미륵신앙의 중심도량인 것은 개산조로 여겨지는 진표율사가 미륵부처님으로부터 수계를 받은 뒤 철저한 지계와 수행을 강조하고 점찰법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금산사의 방등계단은 통도사의 금강계단처럼 수계를 받는 성스러운 장소로 조성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중앙에는 석종형부도(보물 제26호)가 모셔져 있습니다. 두 단의 석축 위에 모셔진 석종은 조선중기 이후의 양식이지만 석축과 부도의 기단 등은 고려시대의 솜씨 그대로입니다. 학자에 따라 이 방등계단이 도솔천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송대(松臺)라고도 불리는 이 성역은 매우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즉 미륵하생처로서의 미륵전과 별도로 도솔천을 구현시킴으로써 미륵상생의 의미도 펼친 것입니다.

금산사는 미륵상생신앙과 하생신앙이 조화를 이루는 도량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방등계단에 올라서면 도량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에서 생육신의 한 사람인 김시습이 시 한 수를 읊었다고 합니다. 천하의 영재였던 그가 시대의 불운을 한 가슴에 안고 떠돌던 중에 금산사 방등계단에 올랐으니, 그 마음이 결코 밝지 않았나 봅니다.

방등계단 우뚝한 위용 땅위의 도솔천으로 상징

진표율사 혜덕왕사 등 중창… 미륵상 · 하생 신앙 조화

구름 기운 아물아물, 골 안은 넓은데
엉킨 수풀 깔린 돌에 여울소리 들려오네.
중천의 별은 금찰(金刹, 금산사)을 밝히는데
밤중에 바람과 우레가 석단(방등계단)을
감싸 도는구나. (후략)

도량의 왼쪽으로 난 길은 모악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등산로입니다. 개울물에 노란 산수유 꽃이 스미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절의 영역, 광교원(廣敎院) 구역이었던 곳이 지금은 부도밭입니다.

야트막한 담장을 둘러친 부도밭에는 2기의 탑비와 12기의 부도가 모셔져 있습니다. 부도와 비가 짝이 맞은 것은 없고 각기 하나의 승탑으로 탑비로 그렇게 조용히 모악산 정상을 옆에 두고 서 있습니다.

금산사의 개산조로 추앙되는 진표율사(眞表律師, 생몰미상)의 부도는 전해지지 않지만, 최근 금산사에서 팔각원당형의 형식을 따라 새로 조성해 부도밭의 맨 윗단 중앙에 모셨습니다. 진표율사를 금산사의 개산조로 보는 것이 통례지만, 진표율사가 12세에 금산사로 출가했다는 설을 참조하면 그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도량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표율사는 어릴 적 개구리를 잡았다가 느낀바가 있어 출가했는데 온 몸을 던져 수행을 했습니다. 지장보살과 미륵불에게 수계를 받기 위해 팔이 부러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견디는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소에게도 계를 설하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왕실의 시주물을 나누어 주는 등 율사의 일화들은 백제유민들의 희망과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부도밭 가운데에 위치하는 혜덕왕사진응탑비(慧德王師眞應塔碑, 보물 제24호)는 비가림막 시설을 했습니다. 때문에 부도밭의 고즈넉한 맛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세월의 풍상이 살점을 뜯어내는 것을 막자면 최소한의 보호시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탑비는 많이 마모되어 글자를 판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해동금석원> <조선금속총람>등의 사료(결락된 부분이 없지 않지만)에서 그 전문을 읽을 수 있음이 다행입니다. 탑비의 이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귀부는 선명한 갑골문이 특징입니다. 조밀한 갑골문이 살아있는 거북을 연상케 하고 움츠린 듯한 목과 하늘을 쳐다보는 눈동자가 매우 사실적입니다.

혜덕왕사 소현(韶顯 1038~1095) 스님은 고려 문종 33년(1079)에 금산사를 중창했습니다. 여러 사찰을 다니며 법석을 열었고 왕실의 법회를 주관하기도 했던 스님은 1079년에 금산사의 주지를 맡았습니다. 이 때 스님은 광교원을 설치하여 <법화현찬> <유식술기> 등의 장소(章疏) 32부 353권을 간행한 것으로 전합니다. 그 엄숙하던 간경불사의 현장이 지금은 부도밭으로 변했으니 세월의 무상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탑비는 고려 예종 6년(1111)에 세웠는데, 예종이 혜덕왕사라는 탑호를 내렸습니다.

비문에 의하면, 혜덕왕사가 입적했을 때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애도하는 마음으로 제문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일부가 소개되고 있으니,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여 진교(眞敎)를 홍포하여 왔는데, 이제 스님께서 입적하였으니 내 누구와 함께 친할 것인가"라고 한탄했습니다.

진표율사가 창건에 맞먹는 중창으로 금산사의 터를 다졌고 혜덕왕사의 중창이 도량을 일신했다면, 그 뒤를 이어 원명해원(圓明海圓 1262~1330) 스님은 고려말의 금산사를 장엄한 고승입니다. 혜덕왕사진응탑 바로 아래 네모난 갓을 쓰고 서 있는 비의 주인공입니다. 이 비석은 부도탑비라기보다는 행적을 기리기 위해 후에 조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원 스님은 덕망이 얼마나 높았던지 원나라에 초빙되어 원 무제의 원찰인 승은복사의 초대 주지를 맡았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원나라에 머물다가 고려 충숙왕이 원 황제에게 요청하여 귀국(1328)했을 정도입니다. 해원 스님은 금산사를 중창하고 다시 원나라로 가서 입적했는데, 계행이 철저하였을 뿐아니라 유식학에 밝아 어느 논쟁에서나 뭇사람들을 감화시켰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금산사를 빛낸 고승은 뇌묵처영(雷默處英)과 소요태능(逍遙太能 1562~1649) 스님이 꼽힙니다. 처영 스님은 서산대사의 제자로 임진왜란을 맞아 금산사를 중심으로 1000여 명의 승병을 모아 호남 승군의 총수로서 왜적과의 싸움에 앞장섭니다.

태능 스님의 부도는 부도밭에 있지만 탑비는 전하지 않고 관련 사료들에만 전합니다.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하고 송파의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을 때, 삼전도의 비문을 지었던 백헌(白軒) 이경석(李景奭1595~1671)이 태능 스님의 비문을 지었습니다. 그는 소요태능 스님의 생애를 간략히 정리하고 말미를 아름답고 웅혼한 비명(碑銘)으로 회통했습니다.

무(無)의 근본 본래 없을 것 없고
유(有)라지만 유를 어찌 있다 하리요!
멸(滅)하지만 그 본성은 멸하지 않고
우연(偶然)이라 말하지만 우연 아닐세!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이에 앞서며
제 아무리 장수한들 이에 뒤지랴!
어느 누가 이것보다 장수할 건가?
그의 실체 영원하여 생멸이 없네!

임연태 (시인 · 본지논설위원)

2010년 봄
햇차 선금주문 할인행사
· 청와대 사랑채 납품
· 김포공항 국내선 4층 입점
· 제다실습(전남 무안군 초의선사)
· 초의신다 최고금상 수상
문의:(061)285-0301,2

단 한번의 기회. 노동부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햇차를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품질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세계가 인증(최고금상)한 "다성 초의차"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만 선착순 선금 주문을 받으니,
착오 없이 기간 내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만통(1통 100g) 주문 받습니다.

※ 햇차 선금 주문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우 전(첫물)	세 작 (두물)	중 작 (세물)
선금 주문 가격	35,000원	20,000원	10,000원
판매 가격	70,000원	50,000원	30,000원
선금 주문 기간	3월01일~4월10일	3월01일~4월20일	3월01일~4월30일
차 만드는 시기	4월10일~4월20일	4월21일~4월30일	5월01일~5월15일
차 발송 예정 기간	4월27일~4월30일	5월01일~5월15일	5월15일~5월30일

※ 우전은 4월10일, 세작은 4월20일, 중작은 4월30일까지만 선입금과 함께 주문을 받으며, 그 이후에는 정상 판매가격으로 판매됩니다.

(사)초의학술문화원 · 일지암영농조합법인 공동주최 입금 : 농협 635070-51-049724 일지암영농조합법인 국민은행 796201-01-376888 (사)초의학술문화원 전화 : 061-285-0301,2 팩스 : 061-285-0304 choyeetea.co.kr/choyee.or.kr


▲초의선사 동상

▲초의선사 생가

▲초의선원

▲조선차역사박물관

▲청와대사랑채 무료시음

▲제다체험

▲한국차문화특강

▲청와대사랑채 다도체험

▲특허증

▲최고금상 상패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10>

올바른 정신의 백치가 되어라

한 스님이 물었다.
"하루 24시 중에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합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자네는 하루 24시간에 쓰임을 당하고 있지만, 노승은 24시간을 사용하고 있어. 자네는 어느 시간에 대해 묻는 것인가?"

問 十二時中如何用心 師云 你被十二時使 老僧使得十二時 你問那箇時

시간에 쓰임을 당하는 사람은 경계에 이끌리는 사람이다. 슬픔을 슬픔이라고 하고, 기쁨을 기쁨이라 하고, 분노를 분노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시간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다. 도를 깨달은 선사들은 슬픔 · 기쁨 · 분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살아간다. 선사는 나아갈 때 나아가고 나아가지 못할 때는 나아가지 않는다. 일을 하면서도 성급하지 않고 차분하게 순서대로 해나간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선사를 놀라게 하거나 슬퍼하게 하지 못하니, 선사는 시간에 이끌리지 않는다.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도 시간에 이끌리지 않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천만의 말씀이다. 24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앎에 대해 큰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 적어도 영혼이 깊이 깨어날 정도의 각성이 일어나야 가능해 진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확 바뀌어야 한다.

시간을 사용하려면 영혼이 깊이 깨야한다

간택하는 마음을 버리면 도를 얻는다

한 스님이 물었다.
"확인의 본분사는 어떠한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나무가 흔들리니 새가 날아가고, 물고기가 놀라서 뛰니 물이 흐리다."

問 如何是學人本分事 師云 樹搖鳥散魚驚水渾

여기서 학인의 본분사를 물은 것은 근원을 묻는 것이 아니다. 이 질문은 다만 학인으로서 해야 할 직분에 대한 물음이다. 예컨대, 여기에 대해 조주 스님은 자못 엉뚱한 듯 대답하고 있으나 잘 생각해 보면 이보다 적합한 대답은 또 없다.

'나무가 흔들리니 새가 날아간다…' 고 표현한 것은 학인은 학문에 매여 있는 단계로 아직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경계라는 것이다. 학인은 그른 것에 대한 분노가 있고, 옳은 것을 신봉하는 단계에 있어 매사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그 무엇이 아무리 흔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을 당해도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래 갖고 있는 무한히 자유로운 부처의 심성을 드러내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잘못 알고 물들었던 거짓의 세계에 유혹당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학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메시지다.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백치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노승은 자네보다 못하네."
한 스님이 또 물었다.
"저는 노스님을 이겨낼 도리가 없습니다."
조주 스님이 답했다.
"자네는 어찌하여 백치가 되었는가?"

問 如何是少神底人 師云 老僧不如你 學云 不占勝 師云 你因什麽少神

질문자가 백치(白痴)에 대해 묻자, 조주 스님은 "노승은 자네보다 못하네"라고 말함으로써 "백치는 나 같은 사람이야"라는 뜻으로 답변했다. 이어 질문자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리 해도 저는 노스님을 이기지 못합니다"라는 뜻으로 스스로를 낮춰 말했다. 그러자, 조주 스님은 "자네가 백치인 나보다 더 못하다니, 그렇다면 자네야 말로 백치군" 하고 대답을 마쳤다.

여기서 두 사람 모두 백치가 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있다. 선(禪)은 아무 것도 모르는 백치와 같은 상태가 되라고 가르친다. 멀쩡한 정신에서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정신만 없애서 마치 백치와 같이 하얀 바탕을 드러낸 상태가 되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바보가 되어 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한한 진리의 말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인생의 스승이 되기 때문이다.

한 스님이 물었다.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만 간택을 꺼릴 뿐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요즘 사람들이 안주처로 삼더군요."
조주 스님이 답했다.
"전에도 누군가 내게 물었는데 지금 5년이 지났으나 아직 주소(註疏)를 달지 못하고 있네."

問 至道無難唯嫌揀擇 時時人窠屈 師云 曾有問我 直得五年分疏不得

도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만 간택하는 마음, 즉 사랑과 미움을 선택하고, 부자와 가난을 가리고, 잘난 자와 못난 자를 구별하며,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없애면 이미 도에 들어간 것이라고 3조 승찬 스님(僧璨 · ?~606년)은 말했다. 그런데 사실 간택하는 마음을 버리기란 여간해서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다. 다만 한번은 진리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야 한다. 설법을 듣거나, 불경 책을 볼 때 마음을 가다듬고 진심으로 기울여보라. 문득 한 소절에 깨달음이 일어날 것이다. 모든 선사들은 그렇게 단번에 깨달아서 부처의 마음을 회복했다. <신심명>에 나오는 삼조 승찬 스님의 이 법문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다.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한 관리가 물었다.
"단하 화상이 목불을 태웠는데 어찌하여 원주 스님의 눈썹이 빠졌습니까?"
조주 스님이 되물었다.
"귀관의 댁에서 산 것을 요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관리가 답했다.
"며슴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것 참 좋은 솜씨를 가지고 있군요."

有官人 問 丹霞燒木佛 院主爲什麽眉鬚墮落 師云 官人宅中變生作熟是什麽人 云所使 師云 卻是他好手

석두(石頭) 선사의 제자 단하(丹霞) 천연 스님이 행각하다가 몹시 추운 날 어느 절에 찾아들어가서 하룻밤을 묵게 됐다. 스님은 너무 추워서 법당의 목불을 내려와서 군불을 지폈다. 지나가던 원주가 이것을 보고 노발대발하면서 "어째서 부처를 쪼개서 군불을 때는가?" 하고 다그쳤다. 그러자, 단하 스님이 말하길 "사리를 얻으려고 그랬소"라고 천연덕스레 대답했다. 원주가 기가 막혀 하면서 말하길 "목불을 태워서 어떻게 사리를 얻는단 말인가?" 하고 말했다. 이에 단하 스님이 단호하게 말하길 "사리가 없다하니 좌우에 있는 부처도 마저 가져다 때야겠군"이라고 말했다. 그때 원주의 눈썹이 떨어져 버렸다는 일화가 있다.

관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 목불을 팬 사람은 단하 스님인데 눈썹이 떨어진 사람은 원주이니 무슨 이치로 그러했냐고 물은 것이다. 여기에 대해 조주 스님은 단하 스님이 솜씨가 좋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여기서 조주 스님이 "단하 스님의 솜씨가 좋았던 것이오"하고 말하지 않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선은 주로 비유와 은유를 통해 상대가 스스로 알게 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지 직접적인 표현은 잘 하지 않는다. ■ 무불선원 선원장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15

꽃을 뿌린다는 것

꽃을 뿌린다는 것도 그 이치가 이와 같으니라. 이른바 정법의 공덕 꽃을 널리 설해 유정(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롭게 하고 은갖 진여의 성품을 다스려서 훌륭한 것을 두루 베푸는 것이니라. 이 공덕의 꽃은 부처님께서 찬탄하신 것이라 시들거나 떨어지지 않느니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꽃을 뿌리면 한량없는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만일 여래께서 제자와 중생들로 하여금 곱고 파릇파릇한 것을 가위로 잘라 초목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꽃을 뿌리게 하셨다고 말한다면 옳지 못한 것이니라.

왜냐하면 계율을 바르게 지키는 자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일체의 모든 물건을 범하거나 죽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니라.

잘못하여 상하게 하는 것도 큰 죄를 받는데 하물며 요즘 사람들처럼 청정한 계율을 무너뜨리고, 만물을 손상시키며 복을 구하는 것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이익을 바라지만 오히려 손해가 되는지라 어찌 옳은 일이라 하겠느냐?



동성 스님 作

[원문]

又散花者 義亦如是 所謂演 說正法諸功德花 饒益有情 散治一切眞如之性 普施莊嚴 此功德花佛所稱歎 究竟常住 無凋落期 若復有人 散如是花 獲福無量 若言如來 令諸弟子及衆生等 剪截翫綵 傷損草木 以爲散花 無有是處 所以者何 持淨戒者 於諸天地森羅萬像 不令觸犯 誤損者由獲大罪 況復今者加毁淨戒 傷損萬物 求於福報 欲益反損 豈有是乎.

[해설]

정법의 꽃은 일체를 하나의 마음으로 또는 하나의 심화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이웃 더 나아가 사회에 부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으로 포교를 하라는 말입니다.

진여(眞如)는 우리의 본래 성품을 뜻합니다. 하나의 도리를 전하는 것이 훌륭한 것을 베푸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은 공덕이 되고 인과가 성립이 됩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는 인과가 돌아오기 때문에 영원한 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법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우주를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보고 그 법을 주위에 전하는 것이 훌륭한 일을 베푸는 것입니다.

마음의 공덕은 시들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까?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시들 수도 없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바로 둘이 아닌 하나의 마음자리 하나 차원의 연꽃을 말합니다.

연못에 피는 연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본래의 마음에서 보면 하나의 마음으로 된 부분을 연꽃에 비유했습니다.

연꽃은 더러운 곳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운 물이 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물들지 않습니다.

도둑놈이 됐든 살인자가 됐든 본래 그 마음은 조금도 물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을 잘못 썼을 뿐입니다. 본래 우리의 마음은 연꽃처럼 탁한 물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연꽃에 비유했습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보고 그 법을 남에게 전하는 일은 영원히 새지 않는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회향의 꽃은 자연적으로 핀 물질적인 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의 꽃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계율을 지킨다는 부분은 구태여 지킨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본다면 우주는 나와 한 몸이니 대상이 없어 남의 생명을 끊는 것은 내 목숨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도 내 것을 훔치는 일이 됩니다. 계율을 나와 남이 하나라는 차원에서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연꽃 같은 마음입니다.

꽃을 꺾게 되면 큰 죄를 받게 됩니다. 초목도 모두 나와 같은 생명입니다. 꽃을 꺾게 되면 꽃도 두려움에 떨게 됩답니다. 꽃이나 식물도 우리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끊어서 남에게 베푸는 것은 오히려 죄가 됩니다.

다른 생명을 끊어가면서 남에게 공덕을 짓는 것은 공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인과로 인해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익이 안 되고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부득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 산천초목이 다 생명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해도 이익이 안 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부득이 다른 생명을 해쳐야 한다면 최소한의 업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으로 정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업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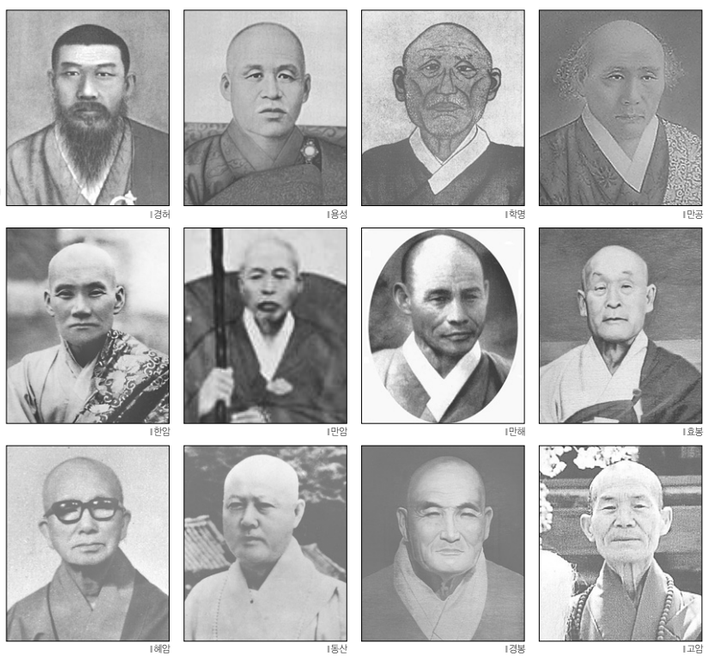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경허 용성 학명 만공
한암 만암 만해 효봉
혜암 동산 경봉 고암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5~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 국민 343601-04-046766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이~’ 하는 그 놈 찾아 떠난 7일 간의 마음여행



용맹정진 동참자들. 선원장 도원 스님이 7일 간의 수행을 이끌었다.

동참기

한때는 주말마다 철야정진을 하고 밤을 새워 경전과 선어록을 공부하며, 출퇴근 시간마다 선사들의 법문과 경전을 테이프로 들어가며 환희심에 젖어 산 적이 있다. 7년 전 조계사에서 모 선사의 법문을 듣고 마음이 밝아지는 체험을 한 이후, 경전과 선어록을 보는 안목이 완전히 달라지고 비로소 무엇을 찾고 구하는 갈망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시절이 있었다. 그 이후 좌선 또는 간경, 행선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더욱 더 불법(佛法)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만하면 그 무엇에도 의지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정진하며 살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수행을 통해 얻어진 힘을 삶의 현장 속에 적용하는 일은 여전히 만만치 않았다. 사회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무수한 경계들,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치는 오해와 갈등 등은 그야말로 ‘좌선은 연습이요 생활이 실전이다’라고 한 말을 상기시켜주었다. 되돌아보면 그 많은 시행착오와 경계들이 내가 나에게 던지는 화두이자 공부거리였던 것 같다.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자작자수(自作自受)의 구도 여정에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드러난 것[自心所現]임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끝없이 초월하는 향상일로(向上一路)의 여정에서 매사에 정성스럽게 진실 자체가 되어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본래부터의 천진한 앎과 양심이 있으니, 양지양능(良知良能)의 본래심은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3월 21~28일, 대전 묘실상선원(선원장 도원)에서 ‘선칠(禪七: 7일간의 집중 참선수행) 용맹정진’에 동참키로 한 것은 새로운 삶을 기약하는 나만의 정신자세를 다잡기 위해서였다.

21일, 대전시 동구 중동 47-18 중동타워 9~10층에 자리한 묘실상선원 입구에 들어서니, 신발장 앞 바닥에 이런 글귀가 눈에 들어온다.

“신발과 알음알이를 놓아버리고 처음처럼….”

그야말로 내게 던지는 의미심장한 한 마디다. ‘그래, 처음처럼 초발심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다.’

선원장실에 들어서니, 도원 스님과 조금 전에 도착한 선칠 용맹정진 동참자들이 차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 같이 회색 법복에 삭발한 모습이다. 범상치 않은 외모와 차분하고 부드러운 말투에서 수행의 향기가 묻어나온다. 아무래도 제대로 걸린 것 같다(?)는 당혹감이 엄습한다.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20~30년간 좌선에 몰두해온 재가수행자들이었다.

살면서 겪은 시행착오 · 경계가 화두이자 공부거리

본래자리는 분별심 조작심을 타파해야 보여

공주에서 온 일정 이언대(57) 거사와 멀리 울산에서 올라 온 불과 안정민(53) 거사, 대전 유성구에 사는 보안 서민수(50) 거사 · 자인성 김수왕 보살 부부와 도원 스님, 그리고 필자를 포함한 여섯 명이 1주일 철야정진에 입재한 것이다. 다음은 7일간의 마음 여행을 마친 후, 당시를 회상하며 쓴 용맹정진 동참기이다.

#3월 21일: 몸이 있기에 두려움이 있다

3월 21일 저녁 6시, 공양을 마치고 도원 스님으로부터 ‘선칠 용맹정진’ 기간에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들은 후 7시 30분부터 곧바로 정진에 돌입했다.

선방에서 죽비를 세 번 치는 것으로 저녁 예불을 대신 한 후, 몸을 앞뒤 전후로 움직인 후 반가부좌로 앉는다. 모처럼의 철야정진이라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밀려온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기침감기도 마음에 걸린다. 이틀 전부터 기침을 삭이기 위해 생강차를 끊임없이 마셔서인지 다행히 기침은 나지 않는다.

감기기운도 그러려니와 몸이 7일간의 철야정진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은근히 겁이 난다. 지난해 말, 휴가기간을 이용해 서울 보림선원의 7일 철야정진을 마친 적은 있지만, 그때도 무릎을 비롯한 다리의 고통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이번 선칠 정진은 사실상 8일간의 일정으로 하루 18시간 30분씩 정진해야 하는 벅찬 일정이어서 순간적으로 ‘중도에 탈락하면 망신인데…’ 하는 걱정도 든다.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오온(五蘊)은 공하며, 본래의 자성은 몸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있음을 확신하면서도 말이다. 도원 선사의 “몸과 마음이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신심탈락(身心脫落)’의 경지를 추구하지만, 막상 고통이 엄습하면 그러한 알음알이는 제대로 힘 한번 못 쓰고 무너지기 일쑤다.

몸에서 일어나는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이 모두 내 것이 아니며, ‘내가 있다’는 에고(ego)의식이 윤회의 근원임을 알기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화두를 든다.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 본래면목은 무엇인가?’ 하는 ‘이뭣고?’를 챙긴다. 온갖 잡다한 망상과 괴로움, 뼈를 에이는 고통도 ‘이뭣고’ 화두를 챙기는 순간은 흔적도 없다. 하지만, 화두는 순일하게 이어지기 힘들다. 순간순간 고통과 절망감, 안도감, 자신감 등이 끊임없이 교차하며 흐른다. 이러한 생각의 흐름 역시 공(空)함을 알기에, 화두가 잘 안 들린다는 생각도 놓고 다시 화두를 챙긴다.

#22일: 좌복 위에 펼쳐진 세상

22일 0시에 차와 간식을 먹으며 30분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1시간 30분간의 좌선이 진행된다. 전날, 장시간의 운전 탓인지 피로함이 몰려온다. 평소 50분 단위로 철야정진을 해온 터라 1시간 30분 단위의 좌선은 고관절과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기 시작한다. 겉으론 평온한 선방의 모습이지만, 수행자들의 머리 속에는 고통과 절망, 환희심, 자신감 등의 온갖 만감이 교차할 것이다.

하반신의 고통을 잊기 위해 화두삼매에 들어보지만, 화두가 일여한 상태가 오래 가지 못한다. 이윽고 피로한 몸은 삼매가 아닌 혼침이나 망상을 불러온다. 좌선 중의 망상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던 뿌리 깊은 욕망이 분출되는 경우가 많다. 육체적인 고통이 큰 만큼 마음은 그 보상수단으로 달콤한 환상을 선사한다. 좌선하면서 베드신을 떠올리거나 확철대오해서 만인의 찬탄을 받고 명예를 얻는 상상까지 일어난다.

망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그간 살아온 인생을 순식간에 돌아보기도 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듯한 몽상을 피우기까지 한다. 좌복 위에 앉아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서울과 대전, 미국과 우주를 오가니 참으로 번뇌 · 망상의 신통력이 대단하다. 오랜만의 철야정진에서 아직도 육신을 조복(調伏)하지 못하고, 망상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여실히 확인하게 된다. 역시 이번 용맹정진에 동참한 것은 백번 잘한 일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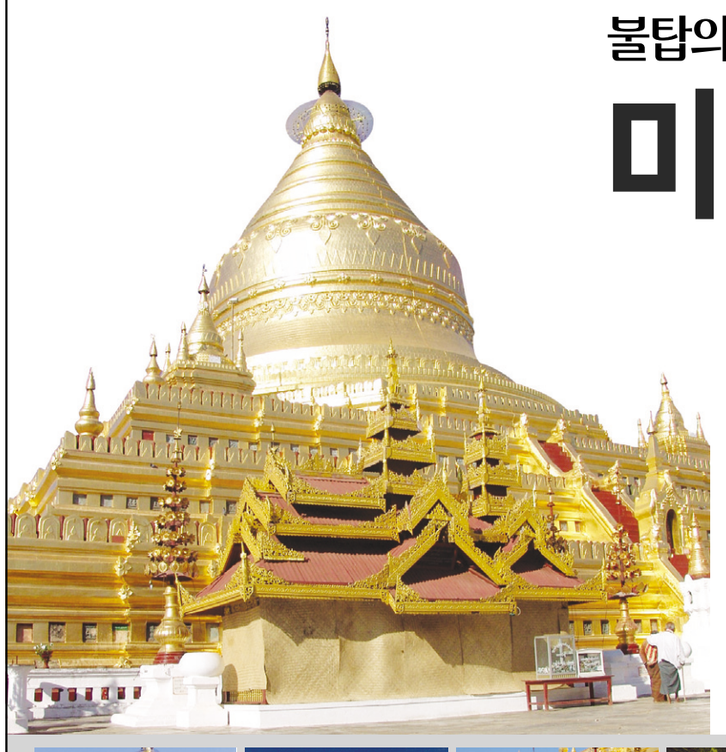
#23일: ‘이~’ 하는 바로 그놈이다

하루 이상의 수행일정이 경과하니 어느 정도 몸과 마음이 용맹정진에 적응하는 느낌이다. 그토록 업습하던 무릎 부위의 고통도 사그라졌다. 사람의 몸은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하기 마련인가 보다. 화두가 한결같이 들리는 시간이 길어지니 육신의 피로함과 번뇌망상도 멈추고 환희심이 일어난다. ‘그래 바로 이거야’, 용맹정진에 동참한 보람을 비로소 실감한다.

23일 12시, 오재(점심공양)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중 핸드폰의 메일을 열어보니, 오래 전부터 염불선을 닦던 도반으로부터 연락이 와 있다. 그는 문자를 통해 “‘이뭣고?’ 화두를 들 때 ‘이~’ 하는 그 놈이 바로 그것(自性)이다”며 “화두가 한결같이 들린다”고 안부를 전했다. 내가 대전에 와서 정진하는 줄 모르는 상황에서 몇 년만에 ‘이뭣고’ 화두 소식을 전해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이~’ 하는 그 놈은 시간과 공간과 초월해 있으면서 시공을 창조하는 동시에, 보고 듣고 감각하고 아는 작용을 통해 드러나는 불성, 바로 그것이다. 부처님께서 새벽 별을 보는 순간 깨달은 것이요, 영운 선사가 복사꽃을 보는 순간 확인한 것이요, 향엄 선사





불탑의 나라, 황금의 땅 미얀마
미얀마 성지순례
출발일 : 5월 24일, 28일 (2회) / 6월 4일, 15일 (2회)

초특가!! 단 4회
신청마감
4월 23일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양곤 - 6일 - 135만원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혜호 - 6일 - 140만원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몽유와 / 혜호 - 7일 - 145만원

특전
1. 국제선 및 국내선 왕복항공료 포함. 2. 전일정 특급호텔 및 식사포함. 3. 1억원 여행자 보험 포함
4. 각종 항공세 포함 (국제선 및 현지항공세 $10, 관광진흥개발기금, 인천공항세, 유료할증료) 5. 일정표상에 명시된 파고다 입장료 포함.
6. 미얀마 비자비용 (25,000원)
7. 불포함 외에는 추가비용 없습니다. (불포함 : 개인적인 제반사항 및 생수비용, 가이드+기사팁)

- 구화산 / 상해 / 보타산 6일 5/23일, 6/6일
- 북경 / 백두산 6일 - 베트남 하롱베이 / 캄보디아 씨엠립 6일 - 캄보디아 씨엠립 5일 - 방콕 / 파타야 5일 - 대만 4일

2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최고로 모십니다. 불교성지전문 마하연투어 대표전화 ☎ 02)365-7747



'좌선은 연습, 생활이 실전' 확인… 진실한 삶 발원

가 기왓장 조각이 대나무에 "딱"하고 부딪히는 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된 것이기도 하다. '이~' 하는 그 놈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만, 너무나 오래 잊고 산 습(習)으로 인해 자각하기가 쉽지 않다.

도반이 '너의 본래의 얼굴[本來面目]을 확인하라'며 문자로 보내온 소식이 죽비와도 같은 경책이 되었다. 참으로 감사한 하루다.

#24일: 복통에서 온 위기 경행으로 극복

선원장 도원 스님은 방선 시간에도 좌복에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백전노장의 재가 수행자들은 입선, 방선 후에 표정에 전혀 변화가 없이 평온하다. 중도에 정진을 포기하게 되면 여러 사람에게 누를 끼칠 것 같아 악착같이 임하다 보니 몸이 꽤나 긴장했나 보다. 아랫배가 살살 아파오고, 몸에 힘이 빠진데다가 얼굴마저 창백해진다.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 화두는 흩어지고 앉아있는 시간이 평상시보다 몇 배나 길게 느껴진다.

하지만,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입선 5분 뒤에 일어나 선방 주변을 돌며 경행을 한다. 육신의 고통과 혼침(昏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30분 정도 경행을 한 후 다시 좌복 위에 앉는 식으로 반나절을 보내며 복통에서 온 위기를 넘긴다.

#25일: 보리와 망상이 둘 아니다

화두가 순일하면 1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그런데 혼침에 빠지거나 망상에 빠질 때도 시간은 쏜살 같이 흐른다. 묘한 것은 화두가 성성(惺惺)할 때나, 망상을 할 때나, 비몽사몽간에 졸 때도 각성(覺性)은 깨어있다는 점이다. 혼침에 빠져있거나 망상 놀음을 하다가도 그것이 혼침이며 망상인 줄 알면 망상과 혼침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화두 챙기는 놈도 '그 놈'이요, 망상 피우거나 조는 놈도 '그 놈'임을 알게 된다. '번뇌 즉 보리'임을 상기하니 영가 선사의 <증도가> 한 구절이 떠오른다.

"배움이 끊어진 할 일 없는 한가한 도인은 망상도 없애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으니 무명의 참 성품이 곧 불성이요, 허깨비 같은 빈 몸이 곧 법신이로다."

우리는 번뇌와 보리, 중생과 부처, 망심과 진심, 생사와 열반 등 구분 짓고 나누고 개념화 하는데 너무나 익숙하다. 그런데 '본래 자리'는 그 같은 양극단과 분별을 초월한다. 그 분별심, 조작심을 타파하기 위해 동원된 수행법이 화두다. 화두는 정견을 세우고 '본래 부처'임을 확신하는 데까지 수행자를 인도하는 방편인 셈이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헛된 분별심을 내려놓고 밉다 곱다하는 마음이 없으면 단박에 오롯이 알리라."

3조 승찬 대사 역시 <신심명>에서 같은 법문을 했다. 하지만 범부는 '진망불이(眞妄不二)'의 가르침을 좀체 믿지 못한다. 지공 화상은 <불이송>에서 "진심과 망상은 본래 둘이 아닌데 범부는 망상을 버리고 도를 찾는다"고 경책했듯이, 진심과 망심이 다른 것이라고 여기는 한 안심을 얻기는 힘들다. 망심이 흔들리는 파도라면 진심은 고요한 바다와 같이 본래 하나의 물임을 받아들일 때 '번뇌 즉 보리'의 묘리를 깨닫게 된다. 좌선을 통해 이러한 도리를 다시 확인하니, 여러 인연에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든다.

#26일: 잠의 습격, 방심은 금물

보통 수마(睡魔)와의 싸움은 용맹정진 3일째에 최고조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 정진에서는 3일을 무난히 넘겨서 웬일인지 정진이 더 잘 되는 것 같았다.


새벽예불.

용맹정진 6일째인 26일 아침 6시, 죽을 먹고 난 후 정진이 수월하다는 방심은 된 서리를 맞고 만다. 쏟아지는 잠에 잠시도 자세를 고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겹다. 화두를 챙겼는가 싶으면 어느새, 목을 한쪽으로 기운 채 졸고 있다. 화두가 성성할 때는 처음의 자세가 유지되기 마련이지만, 망상이나 혼침에 빠질 때면 여지없이 몸이 기운다. 게다가 잠꼬대 비슷한 소리까지 가끔 튀어나오니 민망하기 짝이 없다.

쏟아지는 수마와 대결하기 위해 다시 경행을 해본다. 좌복에서 일어나자마자 잠은 흔적도 없지만, 다시 입선 시간이 되면 졸음이 쏟아진다. 6일간 쌓였던 졸음의 댐이 터지는 듯한 기분이다. "졸음을 이기기가 참 힘드네요" 하고 말하자, 자인성 보살은 "잠이 본래 없다고 확신하고 정진해 보세요" 라고 조언한다. 저녁공양 후 머리를 감고 정신을 차리니, 7시 30분 이후 정진부터는 졸음이 사라졌다.

#27일: 도반이 스승이다

23일 저녁 9시부터는 신도 10여 명이 자율적으로 철야정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직장인이나 주부들이어서 자정이 되면 귀가하지만, 서너 분은 항상 새벽 3시까지 정진을 한 후 귀가했다. 수자원공사에 근무하는 인월 거사와 논산 연무대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성월 거사 부부는 회향하는 날까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철야정진을 늘 함께 했다. 용맹정진 대중 6명 외에 10여 명이 함께하면 정진은 더욱 잘 된다. "도반이 공부의 절반은 해준다"는 말이 실감 난다.

휴식시간에 성월 거사가 "용맹정진 대중의 정진 모습에 환희심과 분발심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해본다. 선배와 후배가 서로에게 선지식이 되을 느낀다. 특히 부부가 함께 도반이자 스승으로서 격려하며 정진하는 모습은 너무 아름답고 부럽다.

#28일: 정성과 진실의 삶 발원하며

"계향 정향 혜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28일 새벽 3시, 10층 보광명전. 선칠 용맹정진을 회향하며 새벽예불을 올린다.

"저는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반야를 향해 정진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용맹지를 갖추고, 비로자나 부처님의 깨달음과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실천행과 지장보살의 수많은 몸과 관음보살의 변화신을 갖추겠습니다."

행선축원(行禪祝願)을 올리니, 7년처럼 길었던 7일간의 용맹정진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좌복 위에서 정진하는 시간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경계에 물들거나 흔들리지 않고 지혜와 자비를 닦으며 중생을 제도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다. 선칠 회향식을 겸한 자자(自恣: 안거 마지막 날 수행자들이 서로 자기가 범한 잘못을 고백하고 참회하는 행사) 시간에 스님과 용맹정진 대중은 서로 합장하며 대승보살도를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나는 내심 '정성과 진실'로 사람과 삶을 대하리라 마음먹었다.

선원에서 내려와 대전천을 바라보니 한 생각이 질문이 되어 떠오른다.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 그대의 본래면목은 무엇인가?'

대전천의 중장비들은 분주히 물길을 정비하는데 오리 가족은 한가롭게 물고기를 낚는구나.

하하하! 글 · 사진=김성우(작가 · 본지 논설위원)


방선 시간, 연차를 마시며 피로를 풀었다.

'선칠 수행도량' 묘실상선원


묘실상선원의 형상 없는 비로자나불.

선칠(禪七)이란, 1주일 단위의 집중 참선수행을 의미한다. 중국 선종에서는 '7일 안에 깨달으라'란 뜻으로 선칠 결제를 하며, 석 달간의 안거기간에 맞춰 12주 동안 진행하기도 한다.

2년 전 대전에서 진제 스님(동화사 조실)의 상좌인 도원 스님이 창건한 묘실상선원은 올해부터 매달 마지막 주를 7일 용맹정진기간으로 정해 철야정진을 하는 선칠수행도량을 표방하고 있다. 하루 18시간 30분씩 좌선 위주로 진행되는 선칠은 1시간 30분 또는 1시간 단위로 입선을 하고 휴식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아침 죽 공양과 함께 점심 · 저녁 공양을 마친 후 1시간 정도의 휴식시간이 있으며, 자정부터 12시 30분까지 차를 마시며 휴식한다.

7일 용맹정진에 동참하려면 평소에 경전 공부를 통해 바른 안목을 갖춘 상태에서 어느 정도 철야정진의 경험을 쌓아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묘실상선원에서는 불교대학을 개설해 매일 저녁 8~10시에 경전 강의(금강경 · 법화경 · 화엄경)와 간경, 철야정진(금 · 토요일), 안거 결제 등을 실시하며, 선교겸수(禪敎兼修)로 간화선을 지도하고 있다.

경전 강의와 함께 선칠 용맹정진에 직접 동참해 참선을 지도하는 도원 스님은 "출 · 재가, 남녀노소가 하나 되어 환희심을 갖고 정진하는 참선도량으로 일구겠다"고 말했다. (042)585-0778

'선지식을 찾아서' '내가 만난 선지식'은 쉽니다.

다라니수저 사찰공양실 불자용수저 "다라니" 시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수저 불자가정에서도 사용하게 품질은 최고! 디자인은 세련!


"다라니수저" 출시기념 공장도가 시판

■ 사찰에는보시 · 불자가정에는 선물!
사찰 공양간에서 공양을 하다보면 처음 만나는 것이 수저다. 공양실의 첫 번째 얼굴이 수저인데 대부분 공양실 수저를 보면 모양도 제각각으로 공양일체감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수저가 오래되 긁히고 달아 보기도 깔끔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코팅이 벗겨지면 스탠을 만들 때에 합금을 해서 제작하므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올 수 있어 유럽 선진국에서는 장기간 사용하면 가정이나 식당에서는 교체를 한다. 수저 상단에는 건강장수를 기원하는 "길상문양"과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옴"자를 넣었다.

■ 사찰명과 스님법명을 넣고도 제작!
300set 이상 주문시 사찰명 또는 스님 법명을 새겨 제작해 드릴 수 있으며(실비), 선물 포교에 활용하게 수저 set마다 고급 비닐로 포장 되어 있다. 다라니수저는 set당 4,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나 출시기념으로 공장도가격 set당 1,500원씩 사찰과 불자가정에 보급하고 있다. 포장단위는 가정용 20set, 사찰용50set, 100set 단위로 전화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문의 : 02)793-0023
농협 : 793-0023-1234-08 고기영
믿음과 신뢰의 기업 고영산업

제1회 한국전통무예전국대회 격파명인전

■장 소 : 대전시청 잔디광장(우천시 실내체육관)
■기 간 : 2010년 4월 24일(토) ~ 25일(일)
■주 최 : 무예총, 사)세계불교태권도연맹
■주 관 : 사)세계불교태권도연맹
■신청기간 : 2010년 4월 10일까지
■접 수 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787 세계불교태권도연맹
■계좌번호 : 585401-01-212410 국민은행 사)세계불교태권도연맹
■참 가 비 : 15,000원
■연 락 처 : 031-964-5867, 010-8383-8085
■참가 범위 및 자격
- 연령 제한 없음, 성별 구분 없음, 누구나 출전 가능(타무술 수련자 가능)

■경기방법
- 주먹격파 : 격파용블럭 11장(공동) 정권 사용
- 손 격 파 : 격파용블럭 11장(공동) 손을 이용한 모든 부위 허용(손날, 메주먹, 팔목, 바탕손, 장권 등)
- 발 격 파 : 5장송판(공동) 발을 이용한 모든 부위 허용(앞축, 뒷축, 발날, 발바닥 등)
※동일한 장수(양)을 주최측에서 설치해둔다.
※1인이 주먹, 손격파, 발격파 순으로 격파한다.

■시 상
성적 합산순위에 따라 10인(Top 10)을 선발하여 10인 전원에게 10걸의 칭호화
- 10인 전원에게 상금 00만원 지급
- 족자로 된 상장
- 격파명인 대형 가슴띠 증정
- 기념상징물 증정

■특 혜
- 입상자 전원에게 TV출연 예정
- 입상자에게 국제왕중왕대회 출전권 부여
- 특별상 및 장려상 시상





사단법인 세계불교태권도연맹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787번지
031-964-5867, 010-8383-8085

불교복지 중심말은 '대리고 · 협력 · 보편주의'

<代理苦>

강 사 : 박광준(일본 불교대학 교수)
일 시 : 2010년 3월 26일
주 제 : 붓다의 삶과 사회복지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주 최 : 조계종 중앙신도회, 동국대 불교대학원

세상의 모든 존재는 홀로일 수 없는 까닭에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중생이 아프니 보살도 아픈 것처럼 참된 불자는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다. 불교사회복지는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행임에도 대중의 참여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가운데 "나는 사회복지 대상자가 아니다" "그들의 고통은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일깨우는 특강이 열려 눈길을 끈다. 일본 불교대 박광준 교수는 3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붓다의 삶과 사회복지'를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대리고(代理苦) 이론을 소개했다. 이날 특강은 <붓다의 삶과 사회복지> 발간을 기념해 열렸다.

#우리는 장애인 덕(?)에 건강하다

불교인으로서 불교적 장애인관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무라오카는 "고통을 대신 짊어진다"는 대리고(代理苦)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누군가가 특정 질병을 앓으며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라오카는 특정 질병을 갖고 있는 집단과 병이 없는 집단의 관계가 서로 연관됐다는 관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관계는 병을 가진 집단이 병이 없는 집단에게 이타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로 무라오카는 질병의 발생률에 관한 데이터(일본의 질병 종류별 발생률과 모집단, 2001)를 제시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질병의 발생 빈도는 갑작스레 변동하지 않고, 거의 일정한 비율로 나타납니다. 이 점은 대리고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운증후군은 1000명당 1명 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1000명중 한 명이 다운증후군에 걸리면 나머지 999명은 다운증후군이 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그는 '이타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운증에 걸린 한 사람은 자신이 그 고통스러운 짐을 짊어짐으로써 나머지 999명이 다운증에 걸리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적인 장애인관은 어떻게 정립해야 할까요?

만약 사람들이 대리고 사상을 받아들인다면, 자신들이 장애인에게 어떤 빚을 지고 있는 것을 안다면, 그 빚을 어떻게 해서든 갚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회복지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을 사회의 짐으로 간주합니다. 무라오카는 이를 '희생자 비난 이데올로기'라고 규정하고, 희생자 비난에 대항할 수 있는 의료사상으로 대리고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사회복지란 복지 니즈(needs)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누구에게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복지서비스란 위험의 분산과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비롯해 누구나 복지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현재의 복지수급자를 사회의 짐이라며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리고 이론은 정작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란 건강한 사람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무라오카는 대리고 이론이 불교사상에 기초함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불교에서는 널리 많은 중생을 구제하는 행위를 이타행이라고 하는데, 대리고란 "다른 사람을 대신해 고통을 짊어지는 이타행의 한 표현"입니다. 이는 보살도의 인욕(忍辱)에 해당됩니다. 불교사상에 근거한 이러한 생각을 만약 장애인에 대한 관념에 적용한다면 가장 불교적이자 가장 사회복지적인 장애관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협력하는 마음 길러야

붓다라는 용어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 그를 '초인적인 존재'로 보기보다는 '인간붓다'로 파악하는 것이 붓다를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붓다가 붓다인 이유는 그 사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을 철저하게 실천한 것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다고 해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시도 정신을 놓지 않고 있어야만 바른 실천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붓다의 삶이란 실천적인 삶입니다. 붓다 자신이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에 만족하고 자신만이 깨달음의 세계에 머물렀다면 붓다가 아닙니다.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와 모두가 자신이 도달한 경지의 삶을 영위하도록 온갖 실천적 노력을 했던 것, 그것이 붓다의 자비심이며 그렇기 때문에 붓다입니다. 붓다의 지혜와 더불어 붓다의 실천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붓다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붓다의 삶'이라는 말을 제목으로 삼게 됐습니다.

복지국가(Welfare State)란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 서비스가 충실한 국가입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해 전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최저 생활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국가체제를 말합니다.

프리들랜더(W.A. Friedlander)는 인간의 존엄, 자발성의 존중, 기회균등, 사회연대의 네 가지를 사회복지의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이상으로 삼는 사회 모습은 인간다운 삶의 질이 보장된 조화로운 사회, 개인의 존재가 존중되고 지역사회의 관계 속에서 삶이 보장되는 사회, 다양한 사회성원들 간에 사회연대 의식으로 결속된 사회입니다.

복지사회의 실현은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사회복지가 앞서는 국가는 국민소득의 많은 부분을 복지에 지출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복지수준이라는 것은 반드시 복지에 투입되는 돈의 양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의 질이란 '사회자체의 질'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을 존중하고 차별이 적은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에 비해 적은 돈으로도 높은 복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가 생활화되어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는 사회복지제도 이전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권위적입니다. 인간을 볼 때 인간됨을 먼저 보지 않고 신분이나 직업, 소득 및 교육수준, 장애 여부 등을 먼저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결핍된 것의 하나가 서로 협력하는 능력입니다.

#뭇생명 모두가 소중

붓다는 "모든 인간에게 자신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러므로 자신이 싫은 것을 다른 이에게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신에 기반을 두고 승가가 발전했습니다. 승가는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이자 그 실험의 장이었습니다.

승가는 다양한 출신계급으로 구성됐지만 승가 내에서는 사회의 차별적 관행이 철저하게 배제됐습니다. 승가 내에서 붓다를 특별한 존재로 모시는 모습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만, 붓다 스스로 자신의 특권을 경계하고 있었고 다른 승가 구성원과 다름없는 생활을 임종 때까지 실천했습니다.

승가의 한역은 화합중(和合衆)입니다. 집단 내에서의 화합이 매우 강조됐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승가의 입단 조건에 대해서는 붓다 역시 고심했습니다. 수행에 있어서 좋은 벗(善知識)의 중요성을 특히 중시했던 붓다가 승가 내의 화합을 강조했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붓다의 승가가 공동체 실천을 장이었고, 승가 내의 질서란 평등의 질서였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승가 공동체가 붓다가 꿈꾼 이상사회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붓다가 꿈꾼 것은 승가의 원리가 보다 넓은 전체사회 속에서 실현된 모습입니다. 모든 이의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이 붓다와 수행자들의 바람이었습니다.

평등의 이상을 공유하는 수행자들의 모임은 '사방(四方)의 모임'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방을 자신의 집으로 여긴 곳이 곧 사찰입니다.

작년 이 책의 집필을 위해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을 몇 군데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서울노인복지센터의 경로급식에서는 '사방의 모임'의 정신을 엿보았습니다. 식당 안에서 누구나 동등하게 처우를 받는 것은 사방의 식당이 된 것입니다. 사회복지 용어로 말하자면 보편주의(Universalism)의 실천입니다. 보편주의란 서비스 이용자의 자산이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의 반대 개념은 선별주의(Selectivism)입니다. 선별주의란 어떤 기준 이하의 소득수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별주의적 실천을 행하게 되면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들이 스티그마(stigma, 개인의 자아정체성을 자극하는 데에서 생겨나는 오명)를 느낍니다. 즉, 자신들이 빈곤자라고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굴욕감을 느끼고 수급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방의 모임'은 선별주의의 부작용을 줄이는 사회복지의 새로운 대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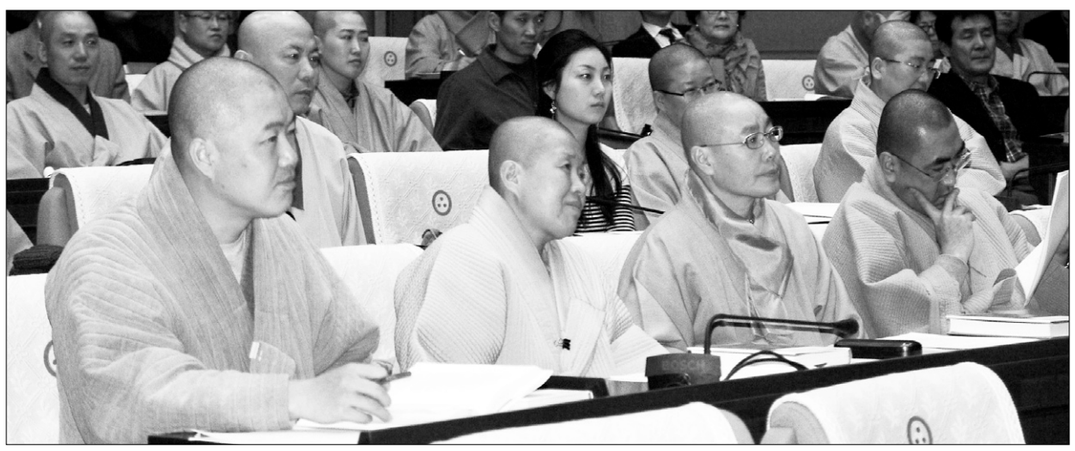
우리의 삶은 모든 생명들과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공생입니다. 공생의 생(生)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이란 모든 존재가 생명을 서로 나누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원리로 본다면 다른 생명의 행복이 커지면 자신의 행복도 커지는 겁니다. 자신의 행복을 바란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행복 파이를 키워줘야 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불교사회복지의 기본 정신입니다.

정리=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박광준 교수는 강연에서 "붓다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몸과 정신을 가지고 한계에 도전해 인간으로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경지에 도달했다. 하지만 우리는 붓다의 가르침을 접한지 오래 됐지만 그 가르침이 우리 삶 속에 침투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차별없이 서로 존중하면 복지의 질 높일 수 있어



3월 26일 열린 <붓다의 삶과 사회복지> 출판기념 특별 강연에 참석한 사부대중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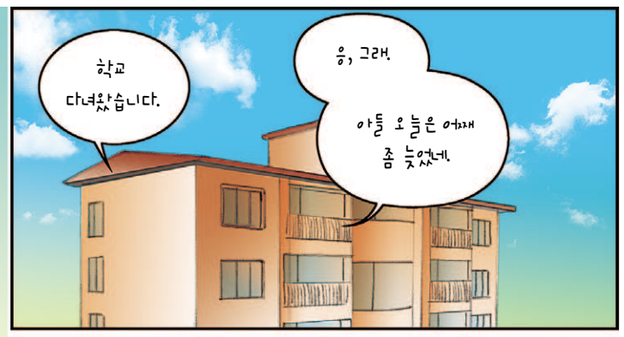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쾌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귀신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제 권하기가 쉽습니다.!
* 귀장술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매매 • 이동운 보는 법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귀장술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암시록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자녀액운 착귀탈 정단법
* 취직시험 • 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선거 후보당선 벼슬하는 여부 판단법
* 관청 • 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소송 • 관재사의 승패 판단법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도주 • 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투시법
* 前生의 夫婦인연 원침살이 現生에 미치는 현상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착귀신론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작해론
* 산소 • 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 • 백초스님
상 • 하권 / 720면 / 정가 각 120,000
百超律歷學堂
입금 계좌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비법전수중
(02) 3667-4446
010-3813-4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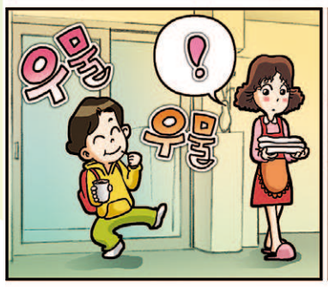
요절복통 여래네 집

#6. 심부름 값



스튜디오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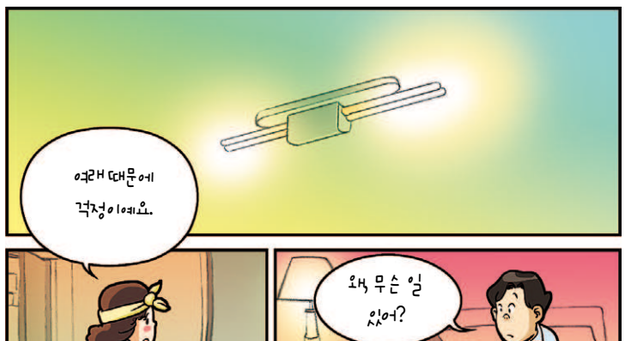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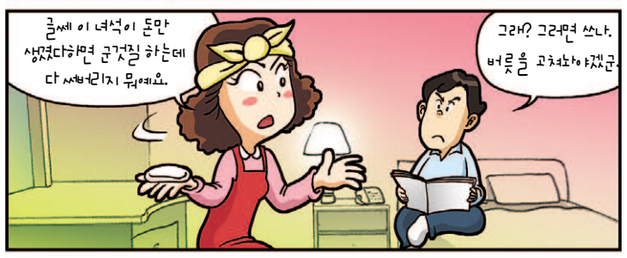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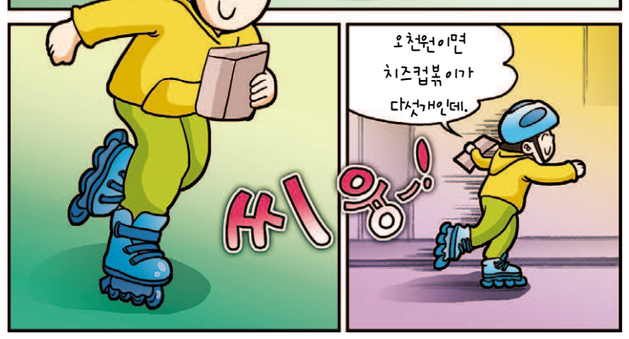












이주일의 화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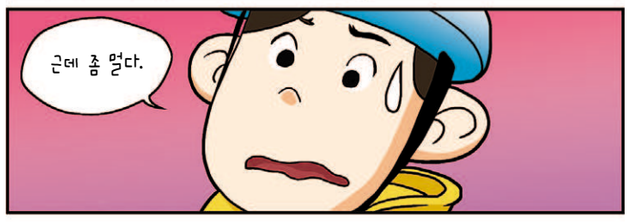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자신의 이목으로 삼아라.
그러면 밝은 눈으로 비춰보지 못할 것이 없고
밝은 귀로 듣지 못할 것이 없다.

선림보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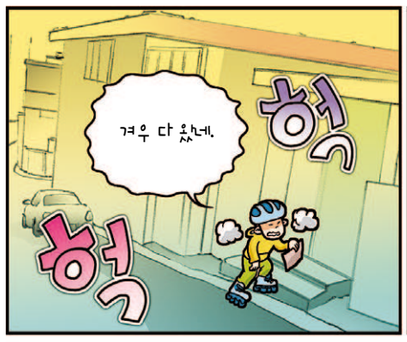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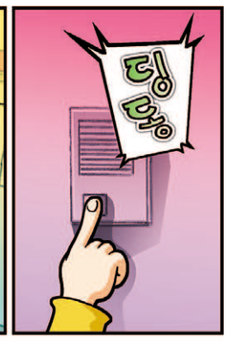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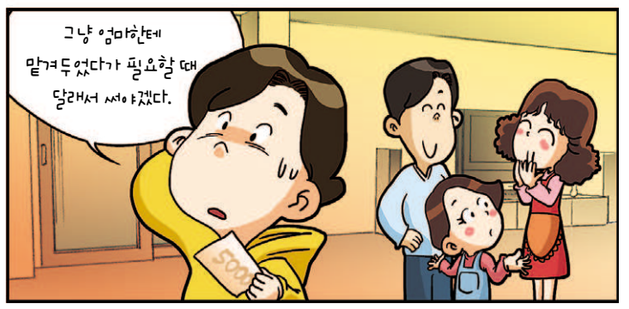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自然
품격높은 최고의 선물!!!
100% 순수 국내산! 국내산이 아닐경우 1억원 배상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께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30년 전통의 산삼취급전문업체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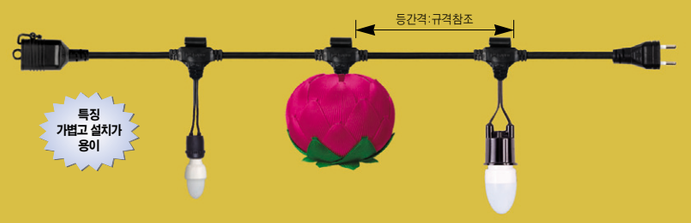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0년,120년 외 자연 산삼 보유. (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문의상담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심 마 당 국립농산물 품질관리 검정필 (분석 51160-150)
주문처 | 서울 (02)713-7798 / 010-5250-7798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원터치 연등 회전걸이

불제개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현대불교 독자가 읽은 이 책

행복의 조건



행복을 사회과학으로 풀어낸 책이 출간됐다. 기존의 종교적 체험이나 인간관계 개념의 행복론과는 접근 방법이 다르다. 美 하버드대 의과대학 교수 조지 베일런트가 쓴 <행복의 조건>이다. 베일런트는 긍정심리학의 세계적 권위자다.

<행복의 조건>은 3가지 집단을 연구했다. 먼저, 1921년 하버드대 입학한 268명을 대상으로 무려 72년간 추적 조사했다. 사업가 윌리엄 그랜트의 재정지원을 받아 '그랜트 연구집단'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연구집단은 '이너 시티(Inner City) 그룹'이다. 1939년 하버드 법대 법학교수였던 셸든 글루액이 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과 법적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14세 남학생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연구에 나섰다. 세 번째는 80세에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불행하고 병약한 이들은 7.5%에 그쳤다. 반면 50세에 3가지 이하를 갖춘 이들 중 80세에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4가지 이상의 조건을 갖춘 사람보다 80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3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복의 조건> 각 장에는 대상자의 사례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하지만 저자는 익명(匿名) 대신 작명(作名) 센스를 발휘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과 불행하고 병약한 삶을 대조할 때는 리처드 럭키(lucky)와 알프레드 페인(pain)이 등장한다. 70대에도 창조적이고 열정적인 삶을 제시할 때는, 19세에 미술관을 설계한 유명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연상되는 '프랭크' 라이트, 자선(慈善)의 표본으로는 헬렌 켈러를 연상시키는 '엘렌' 켈러가 나타난다.

끊임없이 배우고, 유머를 즐기며, 친구를 사귄다면, 그리고 금연하고 술을 즐이는 동시에 일찍 귀가해 가족들 얼굴을 한 번 더 본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고리타분한 훈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평생토록 밀착 조사하고, 통찰한 결론이라고 베일런트는 강조한다.

항상 배우고 웃어야 행복해져

'터먼 여성 집단'이라 부른다. 스탠퍼드대 천재아 연구(터먼 연구)팀의 협조를 받아 연구대상자 672명 중 여성 90명을 선정했다. 90명은 모두 IQ 140 이상으로 캘리포니아 도시 지역의 학생으로 구성됐다.

연구결과 행복의 조건을 7가지로 요약했다. 가장 으뜸은,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즉, 성숙한 방어기제이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47세 무렵까지 형성돼 있는 인간관계였다. 두 번째는 평생교육을 의미하는 교육연수(年數)로 나타났다. 평생 독서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사람의 행복감이 여타 그렇지 않은 대상보다 훨씬 높게 조사됐다. 세 번째는 안정된 결혼생활이다. 네 번째는 45세 이전 금연, 이어 알코올 중독 경험이 없으면서 적당한 음주, 규칙적인 운동, 적당한 체중 등이 행복의 조건으로 꼽혔다.

50세를 기준으로, 7가지 조건 중 5~6가지를 갖춘 106명 중 50%가

행복의 조건 | 조지 베일런트 지음 · 이덕남 옮김 | 프런티어 펴냄 | 1만7100원

진정화

송강 스님 편역 '금강경'

한손에 잡힐 정도로 작고 간편해 언제 어디서든 독송할 수 있는 수지 독송본 <금강경>이 나왔다.

<세상을 밝히는 보석 금강경>은 불교방송 자비의 전화를 진행하는 송강 스님(서울 개화사 주지)이 구마라집의 한역본을 저본으로 조계종 소의경전인 <금강경>을 펴낸 것이다.

일반 대중들을 위해 한문과 한글을 나란히 배치했으며, 각 페이지마다 각주를 달고 번역을 함께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세상을 밝히는 보석 금강경 | 송강 편역 | 도반 펴냄 | 9500원

이해하고 기도하세요

보경 스님 '약찬게' 강의 내용 담은 '기도하는 즐거움'

한 종각이 부모를 잃고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살다가 7년이 지나 그동안의 품삯을 받고 나왔다. 나이 서른이 다 되도록 장가도 못간 처지가 처량해 종각은 품삯을 들고 장님에게 점을 치러 갔다. 종각은 품삯 모두를 복채로 냈는데 점쟁이는 고작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글자를 써주며 "밤낮으로 외우시오!"라고 말했다.

품삯을 모두 날렸다고 생각한 종각은 그만 분통이 터져 미쳐버렸다. 그리고는 사방을 돌아다니며 "대방광불화엄경! 대방광불화엄경!"하고 염불만 했다. 하루는 바위에서 외우다 잠이 들었는데 건장한 남자가 오더니 "전생에 탐심이 많아 뱀의 몸을 받아 수백년을 살았다. 뱀이 되어서도 도랑 바닥의 금덩이가 아까워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대가 '대방광불화엄경'을 외는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천상으로 가게 됐다"고 말했다. 잠에서 깬 종각은 꿈에서 본 대로 그 냇가로 갔다. 그곳에서 금을 발견한 청년은 이후 정신도 돌아오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염불로 총각의 신세가 달라진 일화이다. 혹자는 염불수행을 하근기 수행으로 치부해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서울 법련사 보경 스님(사진)은 "모든 경전의 제목을 외우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기도가 된다. 경전의 한 구절 한 구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힘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진리에 눈을 뜬 성현들의 가르침은 어떤 면에서는 동일한 듯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질적이다. 스님은 "종교나 사상이 생겨난 지리 · 문화적 배경에 하나의 해답이 있고 문화적 배경의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출발한다. 서로 이것을 이해하면 더불어 사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불교를 포함한 대다수의 종교의 시작은 그 궁극의 경지가 '깨달음' 또는 '구원'이라 할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 즉 자기 위안과 공덕의 성취를 바라는 경우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계기로 기독교에서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인도에서는 '만트라' 진언을 반복해 외우기도 한다. 불교도 마찬가지이다.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같은 불보살들의 명호부터 '신묘장구대다라니' '능엄신주' 등 다라니, <대방광불화엄경> <나무묘법연화경> 같은 경전의 제목을 반복해 외우는 기도 방식들이 애용된다. 그 중에서도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이후 가장 먼저 설한 법인 <화엄경-약찬게> 기도는 불자들에게 많이 암송된다.

<화엄경>은 모두 80권 39품 10만 게송 240만자로 그 양이 방대하다. 이를 용수보살이 770자 110구로 요약 정리한 게송이 <약찬게>이다. 일정한 운율이 있어 대다수의 불자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암송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가 많다.

보경 스님은 "신도들이 <약찬게>를 무작정 독송하기 보다는 한 음절 한 음절에 담긴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신행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강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매달 법회 때마다 <약찬게>를 알기 쉽게 다양한 예화를 들어 강의를 했고 이를 엮어 <기도하는 즐거움>으로 펴냈다.





간결한 시문(詩文)인 <약찬게>는 그 내용이 매우 조직적이고 신행적이어서 한번 독송하면 <화엄경> 1편을 읽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스님은 "아무리 많은 경전과 다라니를 외울지라도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여전히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나그네의 고달픔을 안고 살아갈 것"이라며 "자기헌신과 삶의 경건한 자세를 갖출 때만이 비로소 행복과 자유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도하는 즐거움 | 보경 지음 | 불교시대사 펴냄 | 1만3000원

이나은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2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3	산에는 꽃이 피네	법정	문학의 숲
4	법정 스님의 내가 사랑한 책들	편집부	문학의 숲
5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6	맑고 향기롭게	법정	조화로운 삶
7	오두막 편지	법정	이레
8	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법륜	정토
9	부처님의 생애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10	누구 없는가	법전	김영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가르침은 여럿이나 진리는 하나

제자 박영호가 풀어쓴 '다석 마지막 강의'

최근 한 목사가 불교비하 발언을 했다. 또, 한 초등학교 교사는 개신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믿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타종교에 배타적인 행동을 보이며 종교편향 발언을 하는 기사들을 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과연 그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예수가 정말로 그렇게 타종교인을 배척하라고 가르쳤을까? 절대 아니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타종교에 대한 몰이해와 성경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는 데서 나온 결과라 할 수 있다. 비교종교학자 오강남 교수(캐나다 리자이나大)도 그의 저서 <도마복음>을 통해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문자 속에 담긴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독교, 불교, 노장사상, 양명학에서 공통분모를 찾으려 했다.

이번에 출간된 <다석 마지막 강의>도 <도마복음>처럼 타종교의 이해를 돕고 서로의 믿음을 존중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이 책은 다석 류영모(1890~1981)의 육성을 녹음한 테이프를 글로 옮기고 류영모의 직제자인 박영호가 풀이했다. 일평생 삶과 죽음을 궁구하며 진리를 좇은 대사상가가 들려주는 간결하고 명료한 진언 속에서 다석 사상의 핵심을 만날 수 있다. 책은 류영모가 81세 되던 1971년 광주에서 수녀 · 수사에게 <맹자> <사도신경> <봉헌경>부터 요가까지 종교의 경계를 넘나들며 강의한 것을 담았다.

책에서 류영모는 불교 경전을 비롯해 <맹자> <중용> <주역> <구 · 신약 성경>을 두루 아우르며 '가르침은 여럿이지만 진리는 하나'임을 보여주는 일원다교(一元多敎)의 사상을 펼친다. 류영모는 "예수와 석가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본받을 스승"이라며 "하느님이 주시는 생명인 얼(성령)을 공자는 덕(德)이라 하고, 석가는 법(法)이라 하고 노자는 도(道)라 하고 예수는 얼(靈)이라고 한 것이 다를 뿐이다. 이름만 다를 뿐 실체는 똑같다"고 강조했다.

"가는 게 없으면 오는 게 없어요. 오는 건 가려고 옵니다. 가는 건 오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 가운데는 가고 오는 가운데니까, 가는 가운데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 있는 데가 가운데 입니다." (제2장 중용 강의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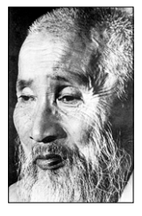
류영모의 강의는 알아듣기 어렵기로 정평이 나 있다. 그의 높은 깨달음으로 형이상학의 깊이가 오묘한데 고차원의 언어유희로 표현이 절묘해 알아듣기 이만저만 어렵지 않다.

그래서 류영모의 직제자 박영호가 스승의 입말을 최대한 살려 이해를 돕도록 풀어썼다. 박영호는 "일생 동안 다석 사상과 더불어 살아오면서 기쁨과 보람을 얻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하느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 석가, 노자, 공자 등 여러 성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며 "이 책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예수와 석가처럼 큰 깨달음에 이른 몇 사람만이 냈던 독창적인 '제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한다.

다석 마지막 강의 | 류영모 강의 · 박영호 풀이 | 교양인 펴냄 | 2만2000원

이나은 기자

다석 류영모(1890~1981)



다석 류영모는 불경, 성경, 동양철학, 서양철학에 두루 능통했던 대석학이자 평생 동안 진리를 좇아 구경각(究經覺)에 이른 우리나라의 큰 사상가였다. 그는 우리말과 글로써 철학을 한 최초의 사상가였으며, 기독교를 줄기로 삼아 모든 종교와 사상을 하나로 꿰는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사상 체계를 세웠다. 그는 2008년 7월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린 '세계철학대회'에서 함석헌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철학자로 소개된 바 있다.



신간! 실증설(實證說)

실증한 이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일구의 도리로 보인 1부와, 태초로부터 영겁에 이르는 성품의 이치를 낱낱이 법문으로 설한 2, 3부를 보아 실증하기를...

www.zenparadise.com

신간! 방거사어록

말 밖의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할 수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대원 선사 서문 중에서...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2-3494-2460

나한님의 영험이불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목조, PC고건축, 사찰문, 나한님

한국고건축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금호 임영창 합장

8치, 1자, 1자 2치, 크기로 조성합니다.
16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500 나한님 목조각, 채식조성
1,250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2009년 현재나한 11,532분째 풍부한 경험, 실적으로 조성불사중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예불문에 나오는
"일천이백오십분의 나한님은 부처님의 최초제자인
다섯비구, 가섭삼형제의 제자였던 천명의 비구들
(우루빈나가섭의 오백제자, 나제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가야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그리고
사리불과 목련을 따르던 이백오십명을 말합니다."

◈ 1,250 나한도 1권 판매금액 180,000원

◈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이애경)

불사 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황보매실농축액

본 제품 원료는 개량종 매실보다 구연산 함량이 뛰어난 토종 매실을 사용. 설탕과 화학 식품첨가물을 일체사용하지 않은 제품입니다.
한의서 처방 1회 정량 본 제품 원액 3~5% 백색우유에 혼합하면 즉석에서 요구르트로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우유를 조금 많이 넣어 매실우유 음료로 먹어도 좋습니다.

불심서원으로 과육(果肉)을 혼합하지 않아서 영양소는 2배 많은 제품을 친척이나 이웃에 권해도 공덕이 됩니다.

1.우유가 체질에 맞지않아 못드시는 분! 황보매실 농축액을 타서 드시면 맛도 좋아지고 소화가 잘되므로 칼슘보충이 잘됩니다.
2.동의보감에 매실의 영양소와 우유의 영양소가 결합되어 변비나 식중독에도 효과가 탁월하다.
3.간 기능회복과 숙취해소 피로회복 채질개선에 많이 사용된다.
4 황보 매실제품을 식사대용으로 각종선식과 함께 타서 드시면 됩니다.

(황보 매실100%농축액 1병240g + 황보 매실벌꿀 농축액 1병 400g)

2병1박스 4개월분 무료배송 39,600원



www.hwangbofood.com 검색창 황보푸드

e-mail : hbbho@naver.com

02)565-7770 / 070-8899-5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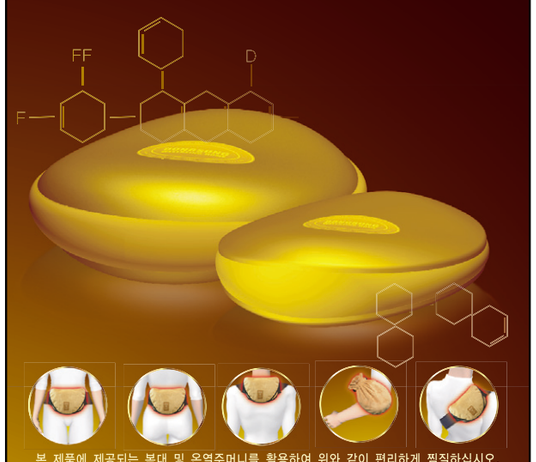
농협 301-0047-4429-81 / 국민 810101-04-202312

GOLD Bulgama

황금빛 찜질로 건강100세!

"우리 몸을 따뜻하게 다스리는 황금빛 찜질"
불가마 골드의 온열요법은 우리 가정에 쉽고 편리한 찜질 문화를 선사합니다.

• 불가마 골드는 5분 충전으로 2~3시간의 무선온열 뜸 · 찜질 체험 •
• 삼마준바이오, 토르마린, 비장탄 등 배합으로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발생 •
• 금 도금처리, 온열요법 및 파동요법, 유해파 중화 기능 •



본 제품에 제공되는 복대 및 온열주머니를 활용하여 위와 같이 편리하게 찜질하십시오.

(주)동성웰빙홈 | 심전 대리점 송정미
011·9865·9401/070·7523·9401

봉 행

국제 전수 금강보살계 대법회

세계불교승가회 외국고승들에게 국제전수금강보살계를 받읍시다.

기미년3.1독립운동 민족대표와 11.3광주학생독립운동 학생대표 추모를 위한 국제전수금강보살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세계불교승가회 세계적인고승들을 아사리와 존증사로 초빙하였습니다.
외국신도 약 100여명이 동참하고 스리랑카대통령께서는 장관, 보좌관등 100여명과 스리랑카고승 50분이 함께 이법회에 참석하시겠다고 3월9일 오후6시 대통령접견실에서 선언하셨습니다. (관계부서에 청원서, 경위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참석하실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용성조사율맥으로 받는 국제전수금강보살계에 동참하시어 스리랑카대통령님과 함께 계를 받는 수승한 인연을 맺어 모든 불자들께서는 보리심을 증장시키길 바랍니다.



국내 고승 금강보살계단 존증사단



스리랑카 대통령과 함께 금강보살계를 받읍시다

점찰선악업보경

이 점찰법은 신라시대 진표율사(713-780)께서 김제 모악산금산사와 속리산법주사, 금강산발연사, 팔공산동화사 등을 점찰 근본도량으로 하여 고려시대까지 성행하였으나, 이조시대에 이르러 배불정책으로 단절된 것을 석가산큰스님의 기도정진과 원력으로 점찰선악업보경, 그참법과 행 의식을 정립 역경하시어 600년만에 재현한 것입니다.
본 승가대학원 승정학부에서는 점찰참회법을 수강시간으로 정하여 전수하고 있습니다. 전지 받으실 큰스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대각교단 승가대학원 원장 관산화남



세계 고승 아사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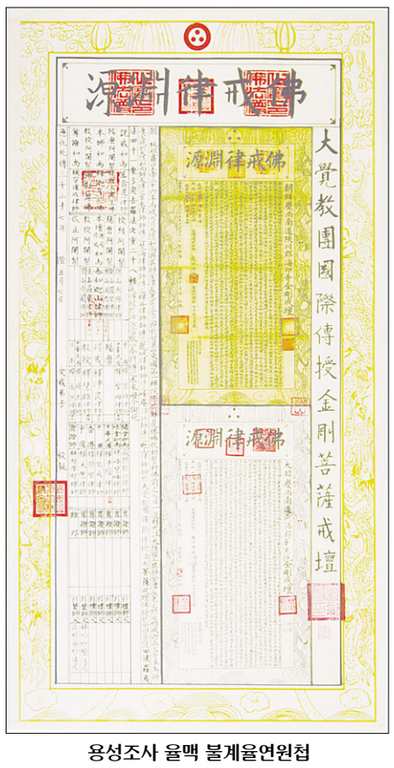
세계 고승 존증사단



홍콩 수계의식

※ 특별수계자는 외국고승들께서 가사, 장삼을 수여합니다.
※ 수계받을 불자들은 불계율연원첩을 드립니다.
※ 불계율연원에 법호를 기재하실 존증사,
인례사부하실 스님은 4월 15일까지 신청마감합니다.
※ 수계를 받으실 스님, 법사, 불자들은 4월25일까지
각 사찰별로 신청받습니다.
※ 부산접수처 : 051)632-0108. 011-586-4648.(자원암)

◆ 장소 : 대구시 호텔인터불고 엑스코 국제연회장.
◆ 일시 : **2010년 6월 18일 금요일 오후 1시**
◆ 후원 : 세계불교승가회. 세계고승최고지도자협의회.
◆ 협찬 : 불교TV방송, 현대불교신문, (주)우성에프아이,
(주)HAMEL S CLUB, (재)S.E.A.V.
◆ 주최 : (사)봉암 변진설 기념사업회.
◆ 주관 : 대각교단 국제전수금강보살계단 봉행위원회.
대구시 북구 읍내동1122번지 4F 대각교단
◆ 전화 : 053)325-5288. 053)325-0400.
팩스 : 053)325-0400. 010-3900-3050.
E-mail : sambo111@hanmail.net



용성조사 율맥 불계율연원첩

국제전수금강보살계단아사리존증사단

명예설계사 : 오명대장로 (대만 영구명예세계승가회회장)
정심대장로 (대만 세계화승회회장)
각광대장로 (홍콩 불교연합회회장)
설 계 사 : 만웅대선사 (전해인사주지)
도성대선사 (전해인사주지)
득도아사리 : 정량장로 (중화민국불교회회장)
전계아사리 : 석가산장로 (대각교단총재)
갈마아사리 : 석각성대선사 (중국 불교부회장)
석보산대선사 석관산대선사
교수아사리 : 혜웅대선사 (인도네시아 세계불교승가회비서장)
석법산대선사 석영산대선사
수경아사리 : 석혜철대종사 묘정대법사 (호주 불교회장)
의지아사리 : 명광대법사 (대만 불교회장)
석미산대선사
개당 화상 : 적묵 능인대화상 (전통조계종총무원장)
배당 화상 : 석운암대화상 (임제선종총무원장)
유 나 : 석묘각대화상 (가산법통수호보존회회장)
존 증 사 : 담바자브대화상 (몽고 불교회회장)
능계대화상 (중국 오대산자복사방장)
혜성대화상 (중국 유운선사방장)
수지대화상 (중국 묘법사방장)
혜겸대화상 (원광불학원부원장)
장공대화상 (대만 인선사방장)
세징대화상 (대만 태평암사방장)
굉정대화상 (미국 법인사방장)
프라마하대승정 (태국 마하츄라롱대학부총장)
스리다마소카대승정 (스리랑카 나바포로나루하라야사원)
프라슈나비데스승정 (태국 왓타이다마람사원)
마다파다다마사라대승정 (스리랑카 프리벤나사원)
보페가마스리와사테로승정 (스리랑카 와다나라마야사원)
아난다테로부승왕 (스리랑카대학 교수협의회회장)
대원대화상 (중국 육조사방장)
석혜월대화상 (대각교단)
석법장대화상 (금강사주지)
석지월대화상 (봉월사주지)
석벽암대화상 (벽암사주지)
인례 사부 : 석마석화상
석효천화상 (자원암주지) 석월산화상 (대원정사주지)
석만오화상 (해동사주지) 석청화화상 (천수사주지)
석지성화상 (팔봉사주지) 석현덕화상 (부도사주지)
그 외다수 국내외고승대덕
참가단체명 : 가산법통수호보존회.
대한불교전통조계종. 대한불교서산종. 대한불교현수종.
대한불교자은종. 대한불교구생종. 대한불교가산종.
대한불교석가종. 대한불교임제선종. 대한불교지장선종.
대한불교직지종. 대한불교운문종. (사)호국불교단체협의회.
대각교단승가대학원

대 각 교 단 총재 태화 석가산화남
봉행위원장 개 당 화 상 석능인화남

최연의 산 이야기 <6> 북한산 5

천하를 경영한 자 북한산에 올랐구나


진흥왕이 올랐다는 비봉. 이 곳에 세워진 진흥왕순수비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지고 표지석만 남았다.

북한산에 관한 기록은 각종 역사지리서와 이곳에 올랐던 이들이 남겨놓은 글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국보 3호인 진흥왕순수비(眞興王巡狩碑)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려와 조선 때의 학자들이 북한산에 올라 남겨놓은 비문(碑文), 기문(記文), 시문(詩文)들이다.

이들 학자들이 북한산에 올랐던 이유는 매우 다양한데, 벼슬을 버리고 초야에 묻히기 위해 산에 든 사람과 북한산을 유람하기 위해 산에 오른 사람 그리고 산성의 증·개축을 위해 현장조사차 오른 이들도 있었다.

이러한 남겨진 기록들 중에 역사적 자료로서 귀중한 가치가 있는 비문인 진흥왕순수비와 태고사(太古寺)의 원증국사탑비(圓證國師塔碑)의 내용을 살펴보고, 학자들이 남긴 기문과 시문 중 사찰과 관련된 내용만 가려서 소개하고자 한다.

진흥왕순수비는 마모가 심하여 전체 318자 중 159자 정도가 복원되어 그 내용을 대강이나마 해석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진흥왕이 선왕(先王)인 법흥왕의 교시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신을 공경하기에 알맞은 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백제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지방 유지들을 통하여 민심을 살피어 그에 합당한 보상을 약속하고, 왕이 직접 북한산에 올라 그 시야에 들어오는 곳(한강하류와 인천지역)을 모두 경계로 획정(劃定)하고, 한성에서 금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나는 곳마다 잘 살펴 합당한 상을 주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 주목할 사실은 진흥왕이 올랐던 북한산은 남서쪽 끝에 있는 비봉이며 그가 획정 지은 땅도 북한산 주위의 한강유역이라 결국 그가 차지한 땅은 임진강 남쪽 정도였는데 800여년 뒤 이성계란 야심찬 장수는 북한산의 최고봉인 백운대에 올라 '등 백운봉' 이란 시를 남기고 마침내 온 나라를 얻었다.

댕댕히 휘어잡고 상상봉 올라가니
조용한 암자 한 채 구름 속에 누웠구나
눈앞에 보이는 땅이 내 것이 될 양이면
초월강남(楚越江南)먼먼 덴들 어이 아니 안 가리

역성혁명으로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측근 신하로서 한양의 도성 건축을 주도하고 신권정치(臣權政治)를 주장하다가 왕권강화(王權强化)의 노선을 견지한 이방원에게 참살당한 삼봉(三峯) 정도전(鄭道傳)도 북한산과 인연이 깊다.

고려 말 공민왕이 노국공주가 죽자 시름에 빠져 신돈(辛旽)으로 하여금 사부로 삼아 국정을 자문케 하였으니 이때 신돈이 개혁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귀양 보내거나 죽이자 삼봉은 삼각산 아래로 은둔하여 고려의 장래를 걱정하는 시를 남기기도 했다. 이때 얻은 호가 삼각산의 세 봉우리라는 의미로 삼봉이라 하였다.

고요히 앉았자니 먼 생각 일어
저 삼봉의 마루에 오르게 하네
송악산 서북쪽 바라보니 높고
높게 검은 구름 무심히 떴네

태고 보우 국사가 태고사에서 입적하여 부도와 국사의 행장을 기록한 탑비를 이곳 태고사에 세웠는데 그의 행장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 태고사 원증국사탑비로서 고려 말의 대학자 목은(牧隱) 이색(李穡)이 글을 짓고 명필 권주가 썼다.

그 내용 중에 신돈이 권세를 부리는 것을 우려하여 왕에게 올린 글을 소개하면 "나라가 다스려지면 진승(眞僧)이 그 뜻을 얻고, 나라가 위태로워지면 사승(邪僧)이 때를 만납니다. 왕께서는 살피시어 그를 멀리 하시면 종사(宗社)에 큰 다행이겠습니다."

문수사에서 주석하였던 고려 말의 고승 탄연(坦然)이 문수사에 대하여 시를 남겼다.

한 칸 방이 어찌 그리 텅 비고 넓기만 한가
일만 인연 모두 적막하네
길은 바위틈을 뚫고 통하여 있고
샘은 돌을 뚫고 떨어지네
하이얀 밝은 달 처마 끝에 걸려 있고
선들바람 숲속 구렁에서 일어나네
누가 저 스님(上人)따라 맑게 앉아
참 즐거움(眞樂) 배우려나

비봉 동쪽에 있는 승가사에 대해서는 문성공(文成公) 정인지(鄭麟趾)가 시를 남겼다.

낭떠러지 바위에 산길이 험하여
지팡이 짚고 또 등나무 휘어잡네
처마가엔 가던 구름 머물고 창 앞에는
쏟아지는 폭포수 많기도 하여라
차를 끓이니 단지에서 가늘게 우는 소리 나고
물을 길으니 우물에 자그맣게 물결이 이네
몇 사람의 고승이 있어 참선하기도 하고
또는 노래도 부르네

지금은 절터에 돌기둥만 남은 옛 선림(禪林)이었던 부왕사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가 들러 시를 남겼다.

산구경은 어디가 좋은고 하니 부왕이라
옛날의 선림이라네
해 지니 봉우리는 물든 것 같고 단풍 밝아
골짝은 어둡지 않네
풍경소리 원근(遠近)에 들려오는데 온갖
새들 유심(幽深)을 함께 즐기네
머리 머리 절묘함을 차츰 깨치니 영구(靈區)는
곧 도심(道心)과 서로 맞는구나

■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닭이 살던 자리

'끄끄드크그그'라고 해야 할까? '크아끄끄커어억'이라고 해야 할까?

기분 나쁜, 무슨 일인가 당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긴 했었다. '또 뭐가 왔나?' 싶었으나 '뭐 별일 아니겠지' 생각하며 살피지 않았다. 문만 열면 보이거나 집 뒤에 붙어있는 것도 아니었다. 울음소리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좋을 듯해서 집에서 산 위쪽으로 집 한 채 들어설만한 거리를 두고 닭장을 지었다. 닭들이 급박하게 울부짖을 때마다 달려가는 것도 10년이 넘다보니 꾀가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이즈음 몇 번인가 요란한 울음소리에 달려갔다가 허탕을 친 것도 새벽의 작은 소란을 무심히 넘기는데 한 몫 했다.

꽁지에 불이 붙었던 이전에 비하면 작은 소리였다. 사소한 떨림에 휩싸이다보면 정신만 어지러울 뿐이라고 내 스스로를 타박하기까지 했다. 그래도 느낌만은 좋지 않았다. 시퍼런 빛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스쳐가는 모습을 본 것만 같았다. 윗집에서 풀어놓은 진돗개가 망을 뚫고 들어가 서너 마리의 닭을 물어 죽인 일이 발생한 지도 2년의 세월이 흘렀고, 살쾡이가 침입해 닭을 채간 것도 3, 4년 전이었다. 그때마다 닭장을 보수했으나 그 뒤로 이렇다 할 사건이 없는 동안, 닭장을 둘러친 망이 삭고 나무에 못을 박아 만든 틀이 썩어 들어간 것은 외면하고 있었다.

점심 무렵, 늦은 잠에서 깨어 아침을 먹고 모이를 주기 위해 집 뒤로 돌아서 산비탈을 타고 닭장 앞으로 올라갔다. 나를 보고 출입구 앞으로 달려오던 닭들이 보이지 않았다. 이게 또 뭔 일인가? 닭의 깃털이 땅바닥에 널려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한 마리 정도 뭔가에 희생됐구나!' 하고 생각했다. 몰살이라니!

눈앞의 모습을 현실로 인정하기 위해 닭장 안으로 들어가 구석구석을 천천히 살폈다. 닭들이 횃대에 앉아 자는 곳도 비어 있었다. 횃대 한쪽이 바닥으로 떨어져 사선으로 누워 있었고 그 밑에 닭털이 깔렸다. 지붕을 이어붙여, 비오는 날이나 눈이 덮인 겨울에 쉴 수 있게 만든 곳에도 닭털만 수북하게 깔렸다. 깃털 사이에 거무튀튀한 것이 있어 살펴보니 잘린 닭의 발이었다. 한 뼘 정도 떨어진 곳에 하나의 발이 더 있었다. 철망 가까이에선 모이주머니와 염통이 붉은 빛으로 햇살을 받아들이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지붕이 없이 나일론 망으로 덮어씌운, 닭의 놀이터 겸 산란장이 놓여진 곳에는 닭의 날개 네 개가 깃털과 뒤엉킨 채 너부러져 있었다. 침입자가 퍼질러 앉아 식사를 한 흔적이 분명했다. 모가지가 붙은 채 구석에 처박힌 대가리도 하나 보였다.

> 닭의 죽음이 나의
> 삶과 상관없는 일처럼
> 느껴지지 않으니
> 그것이 씁쓸하다

어딘가에 머리를 처박고 있는 놈 한 마리 정도는 있겠지. 다시 한 번 닭장 안을 살폈으나 한없이 자유로운 깃털들이 어우러진 모습에 어지러울 뿐이었다. 닭이 있던 자리에 서서 사라진 닭을 보고자 하니 세상이 텅 빈 상태로 다가왔다.

이사 온 첫 해, 이웃 아주머니가 기르라며 준 닭 한 쌍의 명맥이 십삼 년째 이어지고 있었다. 해마다 어미의 품에서 눈을 뜬 병아리들이 닭장 틈 어딘가로 침입한 족제비나 구렁이에게 잡아먹히면서도 몇 마리씩은 살아남아, 원하는 사람에게 주거나 손님상에 올리는 와중에서도 대여섯 마리의 숫자가 유지되고 있었다.

새벽의 소리가 한낮의 닭장 안, 닭털이 깔린 땅 위에 찬란한 햇살로 반짝였다. 철망을 뚫고 침입한 검은 물체의 습격. 살려줘 살려줘 파다다닥 뛰고 날고 처박히고, 날개야 부러져라 날아도 날아갈 곳 없는 갇힌 세상. 콱, 물리고, 크으으으, 몸속으로 박히는 이빨, 삶의 마지막 속으로 파고드는 새벽의 어스름. 두려워라 아프지도 않은 닭의 몸부림. 그때 닭들이 본 세상은 얼마나 어두웠을 것인가? 얼마나 넓게 텅 빈 세상이었을 것인가?

닭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닭의 죽음이 나의 삶과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니 그것이 씁쓸하다.

저녁 무렵부터 다시 봄눈이 내린다. 앞산도 옆산도 보이지 않게 공간을 가득 채우며 눈이 내린다. 한때 닭이 살던 자리도 덮으며, 그들이 차지했던 공간도 메우며 눈이 내린다.

■ 유승도 (시인)

마음이 푸근하고 정겨운 곳!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불교용품
불교서적
불교달력
NAVER 검색창에 붓다쇼핑 을 쳐보세요
바림칼라등 30cm
비단접등 12cm
청사초롱
공단등
공단칼라등
바림등
연 등 할인가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 붓다쇼핑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051)515-8888
515-2988, 555-1087, 508-9377~8
팩스:508-0101 인터넷:070-7425-0518
※ 36년 전통의 동진/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달력 카다록은 매년 8~9월에 우편발송합니다.
♣ 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공단등(6cm) @2,400원(80개이상)
공단등(8cm) @3,000원(96개이상)
공단등(10.5cm) @5,000원(24개이상)
공단등(13cm) @12,000원(12개이상)
공단등(20cm) @30,000원(4개이상)
공단칼라등(6,8,10.5,13,20,30cm)
바림등(6cm) @2,600원(80개이상)
바림등(8cm) @3,300원(96개이상)
바림등(10.5cm) @5,500원(24개이상)
바림등(13cm) @13,000원(12개이상)
바림등(20cm) @35,000원(4개이상)
바림칼라등(6,8,10.5,13,20,30cm)
비닐만월등(특) @170,000원(100개)
영가만월등(100개) @170,000원(1Box)
청사초롱등(100개) @250,000원(1Box)
비단접등(12cm) @290,000원(100개)
방수전선간격(50구)
22cm / 23cm / 25cm / 30cm
50cm / 1m ※기타주문생산
연잎(일반) 5,000원(1묶음) 연분/진분/노랑/주황 빨강/녹색/흰색
LED전구(국산) 2,500원(50개이상) 1BOX: 50개 / 백열전구색 제조원 : 동진전구
밀대양초(70개) 77,000원 ★삼환양초(국산) 크기:4.6×25cm
파라핀(12병) 50,000원 ★하나양초(국산) 1Box:1.8ℓ×12병
영원향(단) @10,000원 (10케이스 이상) 길이: 14.2cm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주문은 현불삽!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의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의)
49,0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氣giban
나만의 참선세계 氣g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氣giban
성불할때까지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동반자 氣giban
氣giban 참선 선정과 만남, 진정한 나와의 만남입니다

▷ 문의 : TEL 02)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 (입금이 되어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서울 총무원 02)579-3690
연락처 010-2606-5121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기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 학 · 빙의 · 퇴마
스님이 쓰는 역학과 최면 영가와 명리를 실전위주로 확실한 비법을 개인 지도함.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역학 : 귀신 빼는 명리(우주물상을 연상법으로 사주, 궁합, 택일,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귀신든 병
스님 : 염불, 사물, 사찰 운영법 지도
부산 051)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역학 동영상 CD 판매
역학! 집에서 혼자 학습 할 수 있습니다
www.saju.or.kr
010-4800-2378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대한불교도서관건립 불사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佛書의 典當 대한불교도서관 건립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도서관추진위원회
010-2002-6332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약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근불교전통의식근
불공, 49재(입제,회향)
범음범패
천도재, 산신기도, 방생기도,
점안식, 이운식, 작법, 바라
* 성심 성의껏 모시겠습니다.
금해 스님
010-4720-6522

전 통 범 음 범 패
실전위주 교육
천도재, 49재, 점안식, 수륙재, 영산재, 화청, 바라나비무, 각종불공
천도전문도량
학인모집, 신행상담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동양불교범음대학)

역학 개인지도
(명리학, 신점)
- 조용한 도심사찰에서 기도하면서 공부하실 분
- 철저한 개인지도
- 숙식제공, 30일 완성

032)584-4684

혜봉스님 비법전수
- 빙의퇴치법, 무병장수, 죽비 타골법.
- 전수비 999천운
- 전수기간 9일

한국심령과학연구회
(www.jjjag999.com)
070-4123-8553
011-9585-4908

달마 그리실 스님 모십니다
- 갓바위 아래 사찰로서 월 유동인구 약 10만명.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팔공산 약사암
053)851-1080

처사님(기사) 모십니다
▷숙식가능한 분,
50대, 경기도
011-264-8312

종무원 구함
사찰에서 숙식 가능한 분
컴퓨터 워드, 기본 정도
연령 : 30~55세 (남여 환영)
041)545-6531
011-422-675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성남
011-9854-981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2)2234-21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양평
010-8922-1168

비구니 스님이 계신 사찰로써 불심과 신심이 있는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50대 중반 환영, 숙식 제공
울산시 북구 연지암
052)298-9911
010-4030-8188

조용한 산사에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강릉
033)661-5878
011-320-507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금호동 관음사, 50세 이하
010-6260-3310

토굴 암자
평생 기도하시면서
같이 사실, 체격이 좋으신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50세 이상
051)803-3458

조계종 노비구승이 건강상 쉬고자 본종의 비구니 50~60대 스님으로 고찰 조용한 곳에서 정진하며 사찰을 돌보며 평생 사실 비구니 스님 찾고 있음. 조계종 스님만 전화바람.
지장보궁 내원암
경북 054)653-1180
010-6353-1180

대방등 대집경 대승기도
-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 위치 : 백선사 절 (전철1호선 부천역 소명사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비구니 스님 1분,
행자스님 1분.
동거동락을 함께 하실
스님 구합니다.
▷부산 연제구 연산9동
011-830-9540

- 비구니 기도 (부전)스님 모십니다
(운전 가능하면 더욱 좋음)
- 55세 이하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긴급
(숙식제공 : 월 120만원)

경남 거제
011-801-9828

부전스님 자리 구합니다
50대 초반 비구스님 입니다.
부산, 경남 지방근교 사찰이나
포교원을 맡겨주시면 신심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4000-1809

공양(조리원)보살님
아동복지시설 진여원
■ 급여:지자체지원기준, 자격증:조리원,
■ 연령:여50~55세,
■ 지역:충북 충주시, 상근가능하신 분,
■ 제출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이곳은 아동복지(생활)시설로 아이들과 직원 약40여명 정도 살고 있는 곳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실 신심이 돈독한 분을 모십니다.
전화 043)851-6013
팩스 043)856-6013 담당 : 수경화
사회복지법인 성불복지회 진여원

지리산 약사기도도량
약천사
같이 더불어 운영하실
비구니 스님(40대)
모십니다.
061)781-6328
017-621-6328

여 사무장 구합니다
(PC 가능자)
40~50세, 출퇴근 가능
▷서울 강북소재 사찰
011-9087-6287



하루밤에 깨우치는
나경(패철)사용법
문학박사 전용원 저 2만 5천원 전국 대형서점
전화주문: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2만 5천원 입금, 전화주시면 저자가 직접 서명하고 낙관찍어 월간역학 1권(8,800원) 무료기증 함께 보내드립니다.
전화 1688-1137 역학 동영상강의 www.kbs.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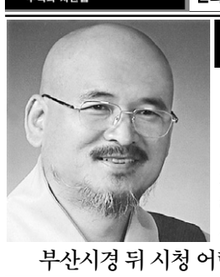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한옥 사찰건축 전문
- 완벽한 사찰건축 기획, 설계, 시공 및 사찰불사 자문일체 (토목, 건축공사 일체)
- 먼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안목
- 건축 전(全)공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사찰불사(佛事)로서는 귀중한 돈만 낭비되고 결코, "절 다운 절이 되지 못하며 그러한 사찰은 도량의 기운이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껏 보고 지적해왔습니다

고건축 전문 기능인 그룹 (人安)
031)581-2120 / 061-741-1624

무료 공개강의
▶빙의퇴마 (기공, 명상, 최면) ▶ 육임, 육임풍수(신점 학문)
▶사주명리 (새롭고 완벽한 통변)
- 실전위주의 완벽한 교육으로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 개업까지 완벽히 도와드립니다.
- 초급, 속성반 (대학교수 직강)

4월 14일(수) 오후2시 : 육임, 육임풍수 / 4월 15일(목) 오후2시 : 명리, 빙의퇴마
청운사 경담 합장 / 수원시 031)241-7732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이름 · 상호 팔자에 맞게끔 찾아드립니다.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근절,경산,칠곡,구미,포항,서울,뉴욕,감포 4월 동시모집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목 · 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모집: ☎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야간반〕
1)초급4개월 : 중급4개월 : 연구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7시~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박지원(객원기자) 051)632-0064 / 010-8544-035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스님...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중철 010-2543-1037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 법당 : 50외 44
- 요사 : 117평
- 부지 : 3,000평
- 가액 : 13억

- 위치 : 경북
- 법당 : 4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230평
- 가액 : 23억

- 위치 : 대구
- 법당 : 24평
- 요사 : 84평
- 부지 : 700평
- 가액 : 17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서울뉴타운
- 부지 : 100평
- 종교용지
- 용적율350%
- 가액 : 10억

- 위치 : 서울산사
- 부지 : 150평
- 법당 : 20평
- 요사 : 40평
- 가액 : 6억 5천

- 위치 : 강동포교원
- 전철10분, 시설완벽
- 법당 : 30평
- 면적 : 60평
- E/V 유, 주차 유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위탁알선판매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및 토굴안내

시내 아담한 법당

- 대지 평수 : 108평
- 법당(전통와가) 30평, 주지실 15평
- 1층: 요사, 방 6칸
- 부산 앞 바다, 남향, 뒷산 공원
- 가액 : 3억 8천

부산 근교 아름다운 대사찰ㅈ

- 총 대지 : 약 5600평
- 법당 32평, 목조(5포7포)
  요사채 외 건물 8동(시민선방)
- 텃밭 1200평, 주차장 300평(버스)
- 총금액: 15억(청룡백호 확실)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대지 90평
-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1억 8천만원 (답사 후 조절 가능)

011-297-9149
010-5483-7502

단독사찰안내

- 부산 영도 영선 1동
- 대지 36평
- 1층 요사채 22평, 2층 법당 15평
- 시설완비
- 가액 : 3억 5천
  (융자 3억 안고, 5천입구)

010-4940-0195
010-8995-019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고현면
- 부지 총 2,000평(종교부지 165평)
  법당 15평(단청), 산신각 5평(단청)
- 요사채 30평,
- 저수지 물 보이고 옆 계곡물 흐름
- 가액 : 2 억 (가격절충)전세가능

010-5430-3963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내동
- 공단상가 407호
- 평수 29평
- 방2, 법당, 공양간
- 가액: 5천만원
  (융자 2천 포함)

010-5042-1003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 울주군 온양읍
- 재래시장 앞
- 법당 55평(3층 건물 중 2층 전체)
- 시설: 삼불 시설완벽
  (도시가스 시설완벽)
- 방2, 욕실1, 화장실2, 주방1
  시설비 1000만원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010-8915-3345

암자 ·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대지 344㎡, 104평
- 아궁이, 황토방,
- 단독주택 2채
- 방3, 공양간 1, 인법당
- 가액: 1억 8천 5백만원

055)632-3840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내
- 재래시장안에 있는 포교당
- 보살, 법사님, 스님에게 적합함
- 법당 45평
- 보증금 4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9367-2618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자연관광지
- 계곡물 철철,경관 수려함
- 법당, 요사채 산신각,
  각 1동
- 부지 임야 10,000평
- 가액 : 4억

011-877-7677
010-4876-5535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감만시장 앞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 3층법당, 4층 요사채
- 동불 삼불
- 즉시법회 가능
- 시설비 1,500만원 절충가능

051)638-1134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 옆
- 평수 : 140평
- 가액 : 전세 1억 월 170만원
  시설비 있음
- 모든 시설 완벽하며,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8766-0377

조용한 토굴(급)안내

- 위치 : 공주시 정안면
- 평수 : 25평, 20평(등기필)
- 황금벽돌
- 시설 완벽하게 갖추어져있음
- 가액 : 3천 5백만원정
- 중국 청도 이주로 급 양도

011-9405-818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율동리
- 대지 및 건물 : 800평
- 건물 : 법당, 요사책 약 50평
- 산신당 약 5평, 용왕당 약 2평
- 가액 : 평당 40만원

016-9711-8309
011-9570-830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도천면
- 총 1309평 중 종교용지 220여평
- 법당 15평, 산신각 5평
  요사채 42평
- 부곡온천 차로 7분거리
  논리보건소 인근
- 가액 : 1억 5천만원

010-8675-4088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사하구 괴정동
  역세권
- 대지 230평
- 건물: 법당, 요사채 각 40평
- 은행융자 3억원,
  노인요양병원 적합
- 가액: 7억 9천만원(절충가능)

011-584-1291

포교원안내

- 위치: 울산시 남구
  신정3동 487-3
- 50평, 반지하
- 삼존불, 탱화, 산신님, 덕성님
  원만히 다 갖추어져 있음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천만원
- 완벽한 포교원

010-4040-358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대지 총 800평, 법당 20평
- 요사채 2채, 방 4
- 큰 창고, 주차시설완비, 관상용 양어장
- 깨끗한 약수가 있는 곳, 현재 관광지 목적으로, 림도(林道)산림욕을 공사하고 있는 곳
- 비구니 스님 기도처로서는 최고 명당
- 가액 : 2억 3천

010-3138-4897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공덕 1동
  531-1번지
- 2층, 3층 각 70평, 합 140평
- 2층 공양실, 휴게실
- 3층 법당, 종무실, 스님방,
  부전방, 객실
- 삼존동불, 소불168불
- 2층, 3층 단청 내부시설 완벽,
- 주차 편리
- 보증금 1,500만원에 월 10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2878-3380

사찰터 및 공장안내

- 된장공장 인수하실 분
- 위치: 강원도 영월 근교 동강 앞
- 산좋고 물좋고, 경치 좋은곳
- 땅 2,200평, 고급주택 1동
- 공장 1동, 시설완벽함
- 가액 : 5억 5천만원
  (절충 가능함 _주인직접)

011-792-8969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 주택빌라 아파트
  밀집지역 4거리 코너
- 평수 : 30평 (3층 중 2층)
- 탱화10점, 소불100분, 인등 270등
- 보증금 5백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2천만원 절충
  (새롭게 완벽 시설)

010-2446-2626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동구 좌천동
  가구거리
- 대지 35평 , 건물 30평
- 법당, 요사채(방2), 욕실,
  주방, 심야보일러
- 몸만 들어오시면 기도 가능
- 보증금 2백만원, 월16만원
  시설비 2천만원
- 스님 건강상(급)안내

010-2660-4090

사찰터안내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
- 평수 약 2만평
- 현재 조립식 2채
- 전기시설 완벽, 단독진입로
- 평수에 관계 없이 허가가능
- 진주 진양호가 보이는
  운치 있는 위치
- 가액: 4억(절충가능)

017-547-1120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 평수 : 3층, 4층, 5층(총130평)
- 3층 방 4개, 4층 방 3개,
- 5층 대 법당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10-2599-6020

사 찰 안 내

- 250년의 도심지 최고의
  포교지 고찰
- 위치: 부산시 중심가
- 평수: 200평, 법당 목조 30평,
- 산신각 목조단청완료
- 요사채 및 방사 7개
- 250년 된 소나무 두주
- 가액: 7억 5천만원

011-590-2878

사찰터안내

- 위치: 울산 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 대지: 526평 . 바로 뒤 산
- 1급 주거지역
- 가액: 평당 90만원
  (절충가능)

017-855-6717
017-856-2344
052)247-734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0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 (목조) : 약 20평,
  산신각,요사채,2동중황토방1개,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 4억

011-816-9104
011-815-9104

주택토굴안내

- 위치: 밀양시 부북면 덕곡리
- 밀양 자동차학원
  북측 500m거리
- 대지 200평
- 건물 3동(총평수 109평)
- 3동 중 2층 건물 1동
- 심야보일러. 지하수 시설완벽
- 가액: 2억 3천만원

011-836-1829
010-3351-1829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시 광진구
  구의사거리
- 건물 : 2층의 2층
- 보증금 1천만원, 월1백만원
  시설완벽
- 시설비 만나서 협의가능
- 옥상은 보증금 500만원
  월30만원

010-3190-7295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문현동
- 평수 약 20평
- 작은법당 1, 방3
- 스님, 법사님, 보살님
  (상담, 요양목적 유리함)
- 법회 공간은 부족함
- 보증금 300만원, 월 17만원
  시설비 200만원

010-8510-169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인접
- 4층 건물 중 2층
- 평수 약 50평
- 큰대로변,건물내주차장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 오존불
- 보증금 1,500만원,월 11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70-8805-1233
010-4740-3001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 주안
- 대지 50평, 2층건물
- 1층 요사채 25평,
- 2층 법당 25평
- 3층 옥상 삼성각
- 아파트, 재래시장,
- 여성복지관 인접
- 교통편리. 법단 원목시설
- 가액 : 4억 1천만원

010-8941-148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김해 시내 시장부근
- 4층 건물 중 3층 약 50평
- 삼존불, 신중,지장,산신불 ,
  각단탱화 일체
- 상담실 및 거실, 방2,
- 보증금 300만원, 월38만원
- 법당 및 모든 비품, 집기 일체,
  시설비 2,20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55)335-0314

농가주택(급)안내

- 사찰암자적지
- 전북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23번지
- 장안산 덕산 계곡 상류
- 면적 1792㎡, 목조 79㎡×
  목조66㎡ = 2동
- 상담후 가격절충가능

011-644-2563

포교원안내

- 위치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 지하철 3분거리
- 3층 65평, 방 3, 공양간, 법당
- 보증금 20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1400만원
- 계산시장 입구
- 해외유학관계로 급 양도

010-6478-7750

사찰터 및 공장안내

- 된장공장 인수하실 분
- 위치: 강원도 영월 근교 동강 앞
- 산좋고 물좋고, 경치 좋은곳
- 땅 2,200평,
- 고급주택 1동
- 공장 1동, 시설완벽함
- 가액: 5억 5천만원
  (절충 가능함 _주인직접)

011-792-8969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200평, 전 200평
- 요사채 40평,
  법당 가건물 20평
- 상담실, 식당, 창고, 40평
- 뒤에는 작은산,
  앞에는 강이 흐름
- 대출 7천가능,
- 가액 1억 5천만원

010-9307-0145

사찰터안내

- 위치 :경북 김천시 대학면
- 답 1470평 중 대지 288평
- 건평 45평
- 호두나무 54그루중
  34그루 수확중
- 사계절 물이 흐르고 있으며,
- 생수가 있음 ,직지사 근처
- 가액: 2억

010-4015-462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팔달동 마을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차고, 창고, 법당 뒤 대나무,
- 옆 계곡, 깨끗한 우물
- 계절마다 꽃이 피고 산세수려
- 즉시 법회 가능
  몸만 오시면 됨
- 평수 대략 250평
- 문중땅.
  건물 시설비 6,900만원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4504-780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화곡역1분거리 번화가
- 버스정류장앞 시장입구
- 3층건물 중 3층 옥상사용 ● 법당 20평
- 후불탱화, 백의관음불, 후불,산신탱화
- 현 성업중, 시설완비,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2300만원 . 확장불사관계로 급 임대함

010-3552-335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에서 10분거리(8km)
- 부지 : 총 5200여평(종교1000여평)[전체 관리지역]
- 건물 : 법당 외5포내9포25평,지장전목조17평, 삼성각목조8평, 요사채54평, 45평, 황토목조18평, 5층사리탑, 등
- 주변 : 아름다운조경, 대형주차장, 텃밭천평 (건물가능), 별장터.
- 가액 : 15억 상담후 절충가능

055)356-6083
sambon4@naver.com

명 당 터 안 내

- 위치: 경남 창영 ● 평수 : 임야 약 1만평(약 80% 사용가)
- 특징 : 사찰 암자 및 선산 등 . 모혈명당, 고암면 감리 (밀양 넘어가는 국도 첫째 산, 정봉 아래 정혈, 도로에서 약 120M)
- 가액 : 28억 5천만원, 평당 30만원(전체가 한송이 명당) 인연자에게 가격 떠나 양도.

043)744-2951

사 찰 안 내

- 최고의 명당 사찰 터
- 위치: 경북 청송 주왕산 사계절이 펼쳐지는 곳
- 총 대지 : 4,000평
- 대웅전, 30평, 관음전, 지장전,삼성각 단청완료
- 석등 大 4개, 中 4개, 석탑 3개
- 요사채 및 방사 4개
- 일급수,약수물자연식수,복지시설,약초재배도가능
- 종단 본산 수련장, 교육도량으로 적합
- 도로 사정 아주 좋음
- 가액: 5억

011-590-2878

포교원(급)안내

- 수원시 세류동 주택가 지하 45평
  수원 시외 버스터미널. 밀레오레 300m
- 법당1, 방사2, 샤워실1, 세탁실1, 창고1
- 칸막이 시설 되어 있음 (시설비 의논 가능)
  가액: 1억 1천 5백 만원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람

011-279-3538
010-3391-3538

단독건물 포교원 안내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 평수 : 약 100평
- 법당, 방2, 화장실, 거실, 부엌
- 시설 일체 완비
- 가액 : 보증금 4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약 1,10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마당 텃밭 주차장 완비

010-4450-285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장흥
- 법당20평, 요사채25평,부지 350평
- 공양실, 삼성각, 선방 총 5동
  전체 동 기와단청
- 건물 뒤 거대 바위산 있음, 바위 모양이 달마 형상
- 가액: 1억 5천만원 (융자 3천 포함)

018-603-1456

작은 토굴 안내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현내
- 평수 236평, 임법당 14평, 방2개
- 주차장 넓음, 주변 환경 수려하고 조용한 수행환경
- 스님 혼자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법회하실 새로운 인연을 기다립니다 (시설일체완비)
- 가액: 7천만원(조절가능)

033)682-4652



Dr.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⑬ 요추염좌

허리를 삐긋하는 이유

요추염좌(腰椎捻挫)는 요추(허리등뼈) 주위의 근육이나 인대가 늘어나거나 파열돼 발생합니다.

요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대부분은 요추염좌 상태입니다. 요추염좌의 원인은 외상, 나쁜 자세, 작업 시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 임신 중 골반 관절의 일시적인 이완 등에 의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50대에서 많이 나타나는 요추염좌는 급성과 만성으로 나뉩니다.

물건을 들려고 허리를 굽히는 순간,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찾아오면서 꼼짝도 못하게 되는 경험을 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흔히 "허리를 삐끗했다"고 하는데 이 증상을 급성 요추염좌라고 합니다.

급성은 허리에 담이 들었거나 허리를 삔 상태를 말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잘못 들거나 넘어졌을 때, 또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해서 걸리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성적으로 허리에 담이 든 상태인 만성 요추염좌는 허리에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져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선행요인으로는 과도한 체중과 부적절한 자세, 선천적 척추 기형 등입니다.

요추염좌는 손상 부위에 발생한 염증과 주위 근육의 경직 부위, 다친 관절 부위를 얼음찜질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2~3주 동안 안정을 취하면 통증이 대부분 완화됩니다.

이 증상은 한번 삐끗한 부위는 특별히 무리를 가하지 않아도 완치되는 경우가 드물어 주의를 요합니다. 요추염좌는 치료를 받아도 재발돼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허리 통증을 유발시키고, 나중에는 조금만 피로해도 허리에 통증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허리 디스크 등으로 악화됩니다. 젊었을 때 한두 번 삐끗했던 허리 때문에 나이 들어서도 고생하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만성적인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대부분 환자들은 생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할 근육통쯤으로 여기면서 잘못된 생활자세 습관을 고치지 않아 염좌 부위가 여러 번 재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요추염좌 증상으로 고생하는 이들 중 하나가 군인입니다. 과도한 훈련 등으로 긴장된 생활습관을 가지기 쉬운 군인은 평소 쓰지 않던 근육이나 관절을 갑작스럽게 무리를 주는 행동이 많아, 골반과 허리가 쉽게 비틀어지면서 요추염좌 증상이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직업 군인인 23세 남성이 열마 전 필자를 찾아왔습니다. 군부대 병원에서 검사 결과 요추염좌 판정을 받고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1년 이상 받아왔지만, 통증은 일시적으로만 완화됐을 뿐 자주 재발됐기 때문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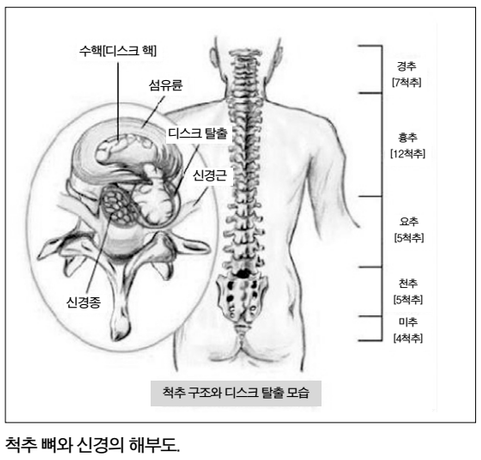
그 분의 체형검사 결과 좌우 골반이 심하게 우측으로 비틀어지면서 좌우 골반의 거상(높낮이)의 차이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좌우 허리 근육과 골반근육은 심한 비대칭 증상을 보였고, 다리 길이는 3㎝가량 차이가 나는 상태로 심각한 골반 불균형 상태에서 염증이 심하게 악화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필자는 그 분에게 비틀어진 골반과 약해지고 손상된 근육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맞춤 체형교정 처방 등을 했습니다. 그는 1주일 여의 체형교정치료와 3개월 여의 맞춤체형교정 운동치료 후 허리 통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요추염좌를 디스크로 잘못 생각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요추염좌가 디스크가 아닌 것은 맞지만, 디스크로 진행하기 위한 초기 증상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디스크는 손상도가 신경계까지 간 것을 말합니다. 일단 손상된 척추 신경은 다른 신경계와는 달리 재생이 안 됩니다.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가서 진단 후 요추염좌라고 판명 받으면 디스크가 아니라고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추염좌가 디스크로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면 꾸준한 교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디스크로 진행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포스츄어앤파트너스 교정센터
황상보 원장 T : 1544-9697



척추 구조와 디스크 탈출 모습

척추 뼈와 신경의 해부도.



김경현 원장의 몸 · 마음 이야기 ❶ 침

권압으로 두피자극 머리 속 시원

〈拳壓〉

생명현상의 총체적인 흐름을 기(氣)라고 한다. '기'가 인체를 순환하는 길이 경락(經絡)이다. 경락에는 14개의 큰 길과 여러 갈래 작은 길들이 있다. 경락을 통해 내부를 순환하는 기가 밖으로 나오는 곳이 있다. 그곳을 경혈(經穴)이라고 한다. 경혈은 지금까지 알려진 360여 기본 경혈 외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혈들이 발견되고 있다.

경혈에는 인체 내부의 온갖 정보가 나타난다. 반대로 이 경혈을 자극하면 내부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장기의 활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 경혈을 통제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 경혈을 통제하는 방법이 바로 한방요법이다.

'일침이구삼약(一鍼二灸三藥)'이라는 말이 있다. 침, 뜸, 약의 세 가지 방법 모두 이상이 나타난 기의 흐름을 바로잡는 방법들이다. 부분을 자극해 전체를 조절함이 침과 뜸이고, 전체를 다스리는 방법이 바로 약이다.

침법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인체의 자생력 즉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이용해 모자란 곳을 부추기고(補) 남는 곳을 억제하는(瀉) 방법이다.

경혈에 따뜻한 자극을 하는 방법이 뜸이다. 뜸의 효과를 원용한 원적외선, 근적외선 치료와 찜질방 등은 인체의 자생력을 바탕으로 일정 부위에 깊은 파장의 열을 집어넣어 기를 순환시키는 방법이다. 침과 뜸은 경락과 경혈에 대한 시술 방법의 차이라 할 수도 있다.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담겨있다(一微塵中含十方).' 부분은 전체를 대표함이 한의학의 원리이다. 체세포 하나를 복제하면 온전한 한 마리의 양이 나올 수 있다. 부분으로 전체를 치료하는 침법을 분구침법(分區針法)이라고 한다.

귀의 모습은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모습과 유사하다. 귓볼은 머리가 되고 귓바퀴는 척추가 되며 귓구멍 쪽이 복부와 내장이 된다. 이를 응용한 것이 이침(耳針)법이다.

가운데 손가락과 손목의 생명선을 연결하는 선을 인체의 정중선(正中線)으로 보고, 둘째 넷째 손가락을 두 팔, 첫째 다섯째 손가락을 두 다리에 배당하는 방법이 수지침(手指針)이다. 손끝을 머리로 보면 수지침, 손목을 머리로 보면 중국의 수침(手針)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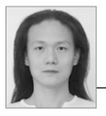
발바닥의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를 복부 내장으로 잡고 나머지 혈위를 배당해 찾아내는 방법이 족침(足針)이다. 얼굴에서 전체를 찾는 면침(面針), 머리에서 치료점을 찾는 두침 또는 두피침(頭皮針), 사지관절 이하에서만 치료의 혈위를 찾는 우리나라 전통의 사암침법(舍岩針法)도 있다. 모두 일정분야에서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방법들이다.

긴장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필자는 두피침을 응용한 권압을 많이 권한다. 권압은 주먹을 쥐면 손가락 둘째 마디가 튀어나오는데 이 마디들로 머리 표면을 자극하는 방법이다.

머리의 정수리는 모든 기운이 다 모여 있다는 백회(百會)이고, 백회의 전후좌우는 신령스런 기운들이 모여 있다는 신총(神總)혈이다. 주먹 마디로 세게 눌러 나가다 보면 특별히 아픈 부위가 있다. 아픈 곳을 자주 눌러주면 아픔이 나중에는 시원함으로 바뀌며 머릿속이 한결 시원해진다. 뇌혈관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높아졌던 뇌압을 낮추기 때문이다. 두침을 응용한 두피자극법과 함께 직장인 수험생 등 편두통이 잦은 이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선재한의원 (02)518-0845

김경현
경희대 한의학과 · 경희대 대학원 한의학과 침구학 전공(석사), 마산불교한방병원 원장 역임.
현 선재한의원 원장, 보리도량 선재마을 회주, (주)미디어동물원 대표이사, 봉은사 신도회 지도위원, 연우와함께 부회장.
1999년부터 불자의료인들과 함께 선재마을의료회를 창립해 매월 세 차례씩 무료진료 활동을 하고 있다.



황현수의 불교와 무술이야기 ⑬

무술공부도 '맹모삼천'

사제와 산에서 1000일 간 수련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홍파장이라는 호흡법을 중심으로 내공을 쌓는 단련을 했고, 사제는 철비박(외공의 한 분류)이라는 기법으로 손목에서 팔꿈치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을 단련시켰습니다. 철비박은 말 그대로 팔을 강철과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각각 3년을 수련한 후 서로의 능력을 실험해 봤습니다. 저는 홍파장으로 굉장한 스피드와 힘이 생겨 상대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수준에 올랐음을 확인했습니다. 사제는 저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사제의 철비박을 확인하기 위해 일단 팔끼리 한 번 부딪쳤습니다. 순간 저는 쇳덩이와 부딪친 듯한 통증을 느꼈고 모든 균형이 깨져버렸습니다. 단련된 철비박은 정확히 표현하면 쇠막대기 보다 강인했습니다. 사제는 철비박으로 삽자루도 부러뜨릴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외공만 닦아도 그에 상응하는 기가 충분히 쌓입니다.

필자는 기운을 외가권과 내가권으로 나누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외공권을 닦았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기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외공은 근육을 단련해 얻어지는 힘이고, 내공은 호흡법을 통해 기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이 두가지 수련법은 다르지만 결말은 같습니다. 또, 내가권은 외가권에서 파생됐습니다. 내공과 외공을 불문하고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초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인한 정신력, 인내심, 끈기, 수행 환경, 바른 자세입니다. 특히 내공을 닦는 이들은 그 기가 쌓이기 전에 어떠한 음욕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태국 전통 무술인 무에타이의 고대석조물. 무에타이는 주로 철비박 기법을 사용한다.

'맹모삼천(孟母三遷)'이란 말이 있습니다. 공부든 수행이든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술 고수들은 수양에 적합한 환경을 찾아 산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무술은 상대를 가격하기 위해 신체에서 순간적으로 엄청난 힘이 나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신체 불균형이 일어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 수련법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목의 힘을 빼고 목을 위로 폅니다. 이 자세에서는 등뼈가 똑바로 서게 되는데 이 때 기혈의 통과가 쉬워집니다. 둘째 상체의 힘을 빼고 양어깨를 내립니다. 그러면 가슴이 자연스럽게 오목해지고 편안한 호흡을 하게 됩니다. 셋째 허리를 항상 부드럽게 유지시킵니다. 이를 위해 자주 사방으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꼬리뼈를 항상 곧바로 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골반은 상 · 하체를 연결하는 중요한 부위이고 이 자세가 기혈의 순환을 돕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어깨와 팔꿈치는 긴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내립니다. 이는 소화기의 자율신경이 이완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스트레칭을 할 때 근육의 힘 대신' 의(意)를 사용해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일곱째 양 손 · 발이 허리를 중심으로 자연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스트레칭을 합니다. 여덟째 내 · 외를 일치시킵니다. '외'는 피부 · 근육 · 뼈를, '내'는 심(心) · 기(氣) · 력(力)을 말합니다. 아홉째 기(技, 동작을 뜻 함)는 연속적이어야 하고 그 사이 호흡도 끊기면 안 됩니다.

열번째는 동(動)중에 정(靜)을 추구합니다. 이는 동중에 정(動中靜)을 추구하고, 정의 움직임 속에서 동(靜中動)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어느 변화에나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수련법입니다.

근본불교학자/ 다음카페: 37수도장

불자 정보

778호 |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 언양, 독채
● 대지 440평, 건물 대략 50평
● 큰방 3, 거실 大, 주방大
● 법당은 거실과 함께 꾸며져있음
● 마당, 버스 4~5대가량 들어올 수 있는 넓이
● 보증금 2000만원, 월 30만원
010-2291-5558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
사무실1, 방 6개.
● 시설 최상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절충가능
010-4199-0047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 빌라 주택 밀집 지역,시장입구
● 법당 40평, 방2, 공양간, 화장실
● 삼불, 후불탱화는 인등으로 설치되어 있음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11-544-9777

포교원(급)안내
● 위치: 강남대로,논현역 7호선 신논현역 9호선 중간 영동시장 대로변
● 위치 A급● 법당시설완비
● 사무실, 방 1
● 시설비 포함 7,000만원
010-4031-6643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 대지 150여평
● 법당, 요사채, 삼성각 500옥불봉안
● 영험도량
● 가액: 3억 (절충가능)
051)202-8770
016-9677-1083

포교원안내
● 구미역 뒷편, 금오산입구
● 주택 1층
● 마당 넓고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으니 구경하시고 결정
010-9161-7277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고성
● 약 900평
● 법당, 요사채
● 산세 수려하고 물도 좋음
● 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1억 8천만원
055)672-0340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역 2분)
● 평수 약 42평 (3층중 2층)
● 법당 약 20평
● 방 2개 주방겸 거실
● 포교활동 최적지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별도
010-4626-2258

포교원안내
● 위치 : 청주시 흥덕구 은천동
● 평수 70평, 2층, 큰방3, 작은방3
● 공양간, 세면실 별도
● 현재 법회중,
● 주차시설 양호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43)222-9686
010-9199-78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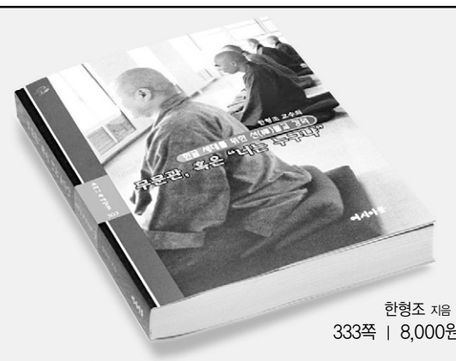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 대지 : 106평, 법당 : 40평
● 요사채(1,2층) : 60평
● 포교활동 최적지
● 가액: 3억 7천만원 (1금융권에서 1억 2천까지 융자즉시 가능)
011-790-9171
010-5628-8404

작은암자안내
● 깔끔하고 아담한 암자
● 팔공산 뒷 갓바위 입구
● 대지 90평
● 건평 30평
● 가액: 1억 4천만원
010-3477-0010

사찰안내
● 위치 : 밀양시 지방 국도변
● 평수: 약 200평
● 요사채 65평 1동(양옥)
● 법당 20평 1동(아미타 삼존불)
● 요양원 기도원 적합
● 스님, 법사님 적격
● 가액: 2억 2천만원(은행융자 8천만원 가능), 전세도 가능(1억)
010-8675-8011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459번지
● 대지 약 900평,
● 법당, 요사채 합 60평
산신각 6평
● 주차장 약 500평
● 전세 4500만원
시설비 1,000만원(시설비 조절가능)
010-2747-9791

포교원안내
● 위치 : 전남 구례군 용방면
● 평수 : 400여평(논과 밭 포함)
● 요사채 20평(방3개, 화장실)
● 가액 : 5000만원
● 비구니스님에게만 판매함
010-5462-3358


한형조 지음
333쪽 | 8,000원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만법귀일(萬法歸一) 선(禪)에서의 모든 물음은 하나로 귀착된다. "너는 대체 누구냐?"


감산자전
감산대사지음 · 대성스님 옮김
247쪽 | 8,000원
마음은 본래 맑은 못과 같으나, 눈앞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까닭에 그 성품을 흔탁하게 하여 온갖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고민에 빠지며 번뇌를 낳는다. 그 근본 원인은집착에 있다.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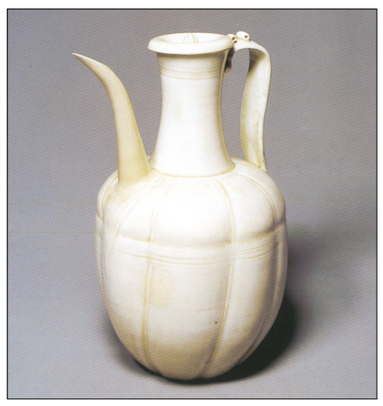
다구를 찾아서

8 대관다론

이로움 · 해로움은 부리에 달려있다

북송 휘종(徽宗, 1082~1135)만큼 사람들로부터 극단적인 평가를 받았던 군주는 드물다. 누구보다도 차를 사랑했던 그는 뛰어난 화가이자 예술품 애호가였다. 반면 휘종은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황음무도(荒淫無道)했다는 군주로 평가받기도 했다. 명대의 소설 <수호지>에서 묘사된 휘종은 향락을 탐닉하고 채경, 동관, 양사성, 이언, 주면 같은 간적(奸賊)을 등용해 정권을 전횡하도록 내버려둬 부패가 극에 달하게 됐다. 이는 천하를 혼란케 한 군주라고 평가받게 한 연유이다.

한편 휘종이 그린 화조도(花鳥圖)는 신품(神品)이라는 칭송을 받을 만큼 예술성이 높아서 중국미술사에 확고한 지위를 얻었다. 그는 전국의 명화와 골동품을 수집했고, 화원(畵院)을 만들어 그림에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양성하는 등, 예술을 장려해 중국 미술사상 '선화시대(宣和時代)'라는 황금기를 이루기도 했다. 휘종은 채경을 통해 차의 전매제도를 공고히 했다. 이는 그가 차에 대한 애호와 품격에 대한 이해자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그가 차의 이론서인 <대관다론(大觀茶論)>을 저술했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북송 청백자다병(北宋 靑白瓷茶甁).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소장(東京國立博物館所藏). 높이 28.3cm 입지름 6.0cm 바닥지름 6.2cm.

<대관다론>에는 차나무의 생육 조건, 채다 시점, 제다 과정, 차의 감별, 점다(點茶) 도구와 점다 방법 등 20편으로 구성돼 있다. 그의 점다법은 다색(茶色)의 완성미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백색의 다말(茶沫)을 완상(玩賞)하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점다의 일곱 단계를 살펴보면 대략 이렇다. 첫 번째, 잔의 가장자리에 물을 부어가면서 차와 탕수가 잘 섞이도록 격불(擊拂)한다. 두 번째, 격불된 차거품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면서 탕수를 잔에 따른다. 세 번째, 격불을 점차 가볍고 균등히 더해 찻가루가 더 잘 풀리게 한다. 네 번째, 탕수를 더하고 차선을 부드럽게 돌려서 차거품이 환하게 일어나 운무가 생긴다. 다섯 번째, 차거품의 상태를 보아 격불을 더하든지 아니면 그친다. 여섯 번째, 차거품이 뭉게뭉게 피어나면 격불을 그친다. 마지막으로 차거품을 균등하게 나눠 마신다. 각각의 단계마다 휘종은 격불하는 손의 모양과 힘의 강약, 다선의 움직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격불 단계마다 정면점(靜面點), 일발점(一發點), 교잔(咬盞) 등의 명칭을 부여해 말발이 피어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은 그의 예술적인 완상미를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말발을 피우기 위해서는 탕수를 따르는 다구가 필요하다.

<대관다론>에는 이것을 병(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병의 재료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 좋다. 크기와 작기는 알맞게 정하는 것이 좋다. 탕수를 따를 때의 이로움과 해로움은 오직 병의 부리에 달려 있다. 부리의 입이 약간 크고 구부정하고도 곧으면 탕수를 따를 때 힘차고 팽팽해 흩어지는 일이 없다. 부리의 끝은 둥글고도 작으며 싹둑 잘라내야 한다. 이렇게 된 것은 탕수를 사용할 때 수량을 알맞게 조절하고 물방울도 뚝뚝 떨어지지 않는다. 대개 탕수가 힘차고 팽팽하면 빨리 쏟아내고 딱 멈출 수가 없다.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지 않으면 찻물의 표면이 갈라지지 않는다(餠宜金銀小大之制惟所裁給注湯害利獨瓶之口嘴而已嘴之口差大而宛直則注湯力緊而不散噗之末欲圓小而峻削則用湯有節而不滴瀝蓋湯力緊則發速有節不滴瀝則茶面不破-金明培譯)."

휘종의 설명에 의하면 병은 주자(注子)를 가리키는 듯하다. 주자는 몸체, 손잡이, 주구(注口, 부리), 뚜껑으로 이뤄져 있어서 물을 따를 때 정밀한 물의 양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주자는 처음 제작된 때부터 단일 명칭으로 부르지 않고 주구(酒具)나 생활용기로 이용되면서 여러 가지 기형 또는 담는 내용물에 따라 이름이 달라졌다. 주자라는 명칭은 명대부터 사용됐다. 한국에서는 주주(酒注), 수주(水注), 관주(灌注), 주자(注子)라고 부른다. 한편 주자는 당대의 그림 속에서도 등장하고 송대에는 많은 요(窯)에서 생산되기도 했다. 금과 은으로 만든 주자의 경우는 술이나 차 혹은 물을 데우는데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도자기로 만든 주자는 승반(承盤)과 함께 한 조로 제작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제사나 연회에서 사용됐던 것으로 보인다. 승반이 있는 것은 보온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유물로 남아있는 주자의 경우 주구(酒具)로 이용되거나 혹은 다구(茶具)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이 둘에 대한 구별은 명확치 않다.

백기란 · bdaol@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29 해인사 적목련



봄인 듯, 봄인 듯하면서 아직 쌀쌀한 날이 남아 있다. 하지만 마음속엔 이미 봄이 들어앉아 있어 생각과 행동은 봄이다. 옷도 겨울옷은 이미 마음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고, 한 번 꽃을 본 마음속에는 아직 피지도 않은 꽃들이 순서도 없이 피어난다. 한 뼘도 안 되는 마음이 변화무쌍하다.

해인사 대적광전 아래 화단에는 아담한 적목련이 한 그루 있다. 꽃은 아직 피지 않았을 것이다. 찾아낸 지난 사진 속에서 적목련이 활짝 피어있다. 목련이 피면 봄도 가야 한다. 목련이 질 때쯤에는 이 마음을 또 어쩔까. 목련은 피지도 않았는데 생각만 피어난다.

옛 판화의 세계

북망산행이란 글을 짓다 (北邙山行)



고판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북망산행(北邙山行).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

이 삽화는 송나라 때 석법천 스님의 '북망산행'이란 글을 판각한 작품이다. 그림의 하단은 사람이 죽어 장례를 치르는 모습과 상단에는 외로이 산소만 남아 있는 모습을 표현해 인생의 무상함을 잘 나타냈다. 송나라 때 스님인 석법천(釋法泉)은 어린 나이 때 많은 서적을 널리 열람했고, 선지식을 두루 참문해 현오한 기틀을 슬기롭게 깨달아 북망산행이란 글을 지었다. 북망산은 중국 하남성 낙양 북쪽에 있는 산으로, 옛날의 왕후나 공경들의 무덤이 많이 있다. 북망산은 무덤이 많은 곳,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다.

법천 스님이 지은 '북망산행'에는 "세간의 어떤 물건 굳고 단단할 수 있겠는가? 큰 바다 수미산도 마지막엔 마멸된다. 인생이란 문득 쉽게 볕에 마르는 이슬과 같아 종래부터 만나는 일 있으면 끝내 기별하는 것이니 괴로움 즐거움 슬픈 느낌 잠시도 그만두는 일 없는데, 하물며 다시 100년이란 세월을 꿈속에서 달리는 데 놀란다. 가는 사람 멀고 멀어 다시 오지 않고 지금 사람 옛 사람의 뜻 알지 못한다. 소나무 심고 비석 세워 묘문에 머물게 해 죽은 사람 위해 긴 세월의 계책으로 삼고자 해도 혼백은 멀리 하늘로 올라가고 형체는 흙으로 변한다.

낙양성 안 1000만 사람들아! 끝내는 북망산 아래 먼지가 되느니라. 혼침하고 헷갈려 돌아갈 때의 길 잘 기억하지 못하니 그대 위해 외로이 앉아 길이 신고함을 슬퍼한다. 옛날에 사람 보내며 긴 길에서 울었는데, 그 사람 묻힌 외로운 무덤 방초 위에 누워 있어 요망한 여우 구멍 뚫어 자손 갈무리하고, 밭가는 사람 뼈 파내며 구슬 보배 찾는다. 늙은 나무엔 쓸쓸히 들바람 생겨나고 동서에 허물어진 무덤 개인 하늘에 이어졌네. 한식날도 이미 지났으니 누가 제사 모시겠느냐? 무덤가에 남은 꽃 적막하게 붉구나. 해와 달이 서로 재촉함이 흐르는 화살과 같고 가난한 이나 부자나 현명하고 어리석은 사람 모두 이와 같으니 어떻게 함께 항상 즐거운 고을에서 노닐 수 있겠는가? 설사 겁화를 겪는다 해도 그곳엔 생사 윤회가 없느니라"고 적고 있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선칠용맹 정진 안내

근 선칠용맹정진 (19시간 정진)
근 선칠가행정진 (14시간 정진)

◆결 제 : 2010년 4월 18일 일요일 오후 7시
◆해 제 : 2010년 4월 25일 일요일 오전 6시

선칠수행도량
묘실상선원
대전시 동구 중동 47-18
☎ 042)585-0778

수제화 고무신코 만 행 화

특 무 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진회색

최고의 선 물

특무명 3목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20-280mm (5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지압·동 깔창
쇼극예사
실 리 콘
동 99%
가격 20,000원
• 사이즈 : 230-280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자연색

조각무명 3목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20-280mm (5mm단위)
• 색상 : 회색

지압동 깔창
사계절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3-1 밴드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85mm
• 색상 : 검정,회색

망사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3-1 끈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85mm
• 색상 : 검정,회색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NAVER 특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64형으로 나누어서 본
나의 체질을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나의 체질을 알아야 나에게 맞는 음식. 맞는 과일. 맞는 차를 알고먹어야 병을 만들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제마의 사상의학공부를 40년 넘게 하면서 손등의 피부를 만져보면 정확한 체질을 알려드리오니 시간을 꼭 내셔서 만나보세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병은 무엇이며 현재 병증은 왜 있는지를 체질을 알면 다 알수있기에 궁금하신 분, 사는 동안은 아프지 않고 살고 싶은 분은 찾아오세요
현재 병증이 나오면 한약차로 처방을 해주는데 드셔보면 5일 안에 변화를 본인이 느낍니다.

아토피 피부병은 바로완치됩니다.

스님들께는 건강한 몸으로 수행하시라고
모든 특혜를 드립니다

상담연락처 010-9373-3778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78호 현대불교
2010년 4월 7일(음 2월 23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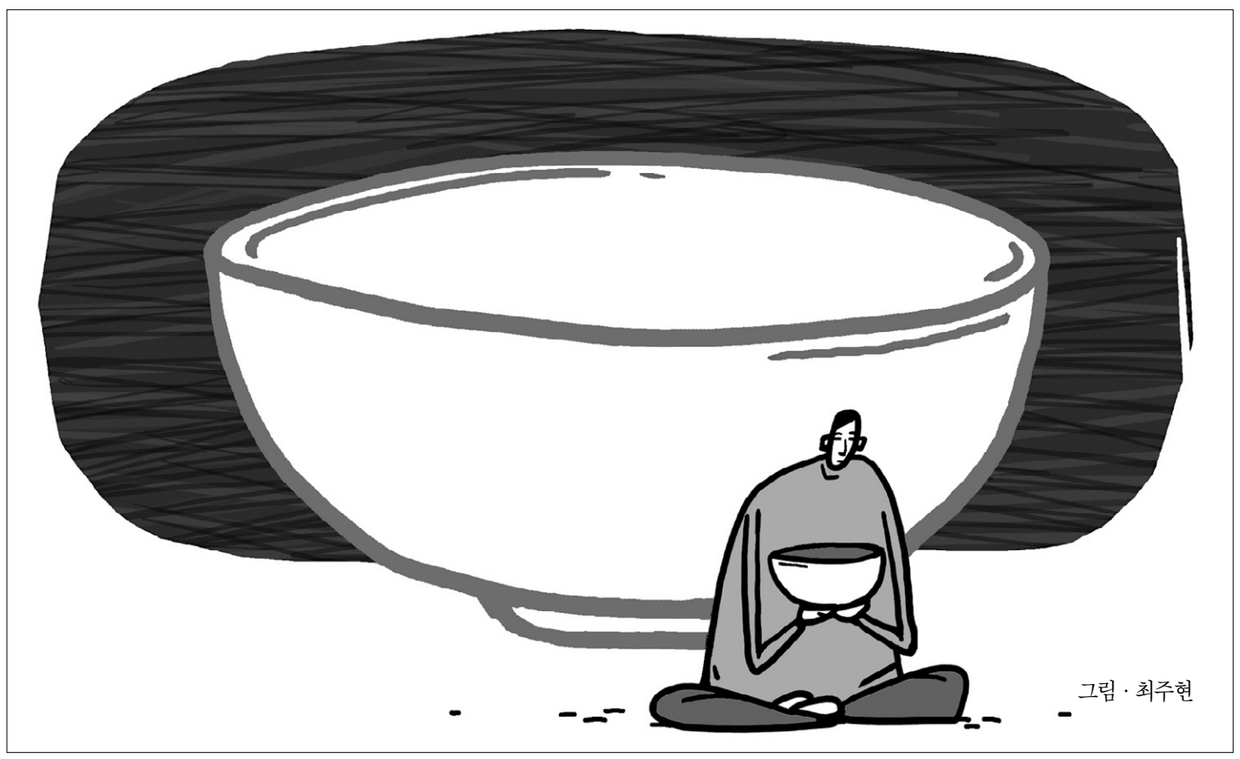
내 자부처가 더 가깝지 딴 데 부처가 더 가깝습니까?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그래요. "참 신기합니다." 이거예요. "참, 스님! 마음법을 이렇게 알게 되었으니 제가 수십 번을 머리를 깎아서 신을 삼아 드린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당신 주인한테 당신이 갚는 거니까, 그렇게 잘 돌아가고 잘 사는 게 바로 갚는 거야. 그 공부를 잘하고 잘 사는 게 갚는 거지, 나한테 뭘 갖다 주고 이래서 갚는 게 아니다 이거야. 자기 마음의 뜻을 알고 일체가 다 부처님의 그 가르치신 뜻을 알면, 당신의 뜻을 알면 다 알게 돼 있어. 그게 갚는 거다." 이랬습니다. 이 몸뚱이는 한 철 살다가 옷을 훨훨 벗어 버리고, 또 새 옷을 입고 싶으면 입고, 말고 싶으면 말고, 보살로서 중생들이 원하면 보이지 않게 다 구제하고 다니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고…, 마음대로죠, 그것이.

우리가 어렵게 살다 보면요, 저 고기들 하나, 벌레 하나 사는 것을 봐도 참 애틋해요. 우리네 살림살이와 똑같거든요. 모습은 사람 사는 거하고 달라도 사는 이치는 똑같아요. 내가 예전에 산길을 걷다가 봤는데, 개미 한 마리가 다리가 부러져서 못 가고 질질매고 있으니까 개미 세 마리가 달려들더니 그걸 끌고 갑디다. 개미도 그러는데, 사람으로서 그 도리를 모르고 살아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죠.

또, 착을 두지 마라 하는 뜻에서 한마디 하겠는데, 이것도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어느 스님의 어머니가 장님인데, 아들이 입산을 하고나서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그 아들 한번 보려고 길거리에서 물을 떠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고 있었거든요. 자기 아들 발에 상처가 있어서 만져 보면 아니까. 그랬는데 그 아들이 상처 안 난 발을 씻기게 하고는 또 다른 발 내놓으라니까 그 씻은 발을 도로 내놔서 또 씻게 했답니다. 그래서 아들을 몰라봤거든요. 그러곤 아들이 저만치 가는데 동네 사람이 "아, 댁의 아들 만나서 발도 씻겨 주고 했구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못 만났다." 하니까 "아, 지금 저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아들을 쫓아가다가 개천에 빠져서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물발이 세니까. 그런데 그 스님이 어머니가 떠내려가는 거를 보고는 그 껍데기는 벗겨서 떠내려보내고 그 알맹이, 자기 어머니의 영혼만 건져서 자기한테 받들고선 갔답니다. 다 거기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으니까. 영과 영이 한데 합쳐도 영이지 다른 거 없어요. 두드러질 일이 없죠.


그림 · 최주현

꺼내도 줄 일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계성이 들렀을 때 그 사람을 미쳤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착을 두지 말고 영(靈) 그 자체, 그 마음만 여기다 넣고 그냥 관해 주고는 생각날 때마다 거기다 넣어 버리면 외려 그 영계성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자꾸 마음으로 몸을 붙들고 날치니까 도저히 없어질 수가 없죠. '수만 개를 갖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수만 개를 꺼내도 줄지 않는다.' 하는 부처님의 말씀의 뜻이 우리 사는 데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남을 구제를 해라.' 이러는 것도 당장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줘라 이런 뜻이에요. 내 자부처가 더 가깝지 딴 데 부처가 더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마를 때 물을 먹이려면 내 부처가 내 몸을 끌고 가서 먹여야죠. 가져오게 해서 먹이든지, 끌고 가서 먹이든지 먹일 거는 먹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부처님이 이 자리에 계시더라도 부처님이 대신 배고픈 걸 면하게 해 줄 수는 없다 이겁니다. 자기 자신들이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먹는 것이고 또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도 주인공이 다 먹이게끔 하거든요. 자기 자부처가 스스로 형성시켜서 이끌고 가는 자기 몸뚱이를 안 먹이겠습니까?

내가 예전에 그것도 시험해 본 사람입니다. '야, 그러면 어디 살리나 죽이나 보자!' 하고는 다 그냥 버리고, 남들은 산에 들어가면 미숫가루를 해 가지고 들어간다죠? 나는 다 내버리고 먹을 것도 없이 홀홀단신, 이 닦는 것도 버리고 머리 감는 것도 버리고, 예전 얘깁니다. 그렇게 다 버리고 들어간 거예요. 깎고 들어갔어도 이만큼 길러지니까 그거를 동여매고 말입니다. 그랬는데 말입니다, 배고프면 먹여 줘요, 하하하…. 잘 데 없으면 자게 만들고요.

어느 때인가 한 번은 잘 데가 없어서요, 가을이어서 땔기도 열리고 갈대도 무성하고 이런데, 날씨는 쌀쌀하고 아주 추워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털퍼덕 주저앉아서 그냥 있는데 '얘, 저리로 가보자.' 이래요. 그래서 그리로 갔어요. 갔더니만 갈대 있죠? 갈대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랫도리는 너덜너덜하고 그런데 갈대밭을 지나가니까 상처가 나서 피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디 들어가 보자. 뭐 이까짓 몸뚱이야 언제 가도 갈 거….' 그러면서 들어갔더니만 그 안에 말입니다, 이만한 땔기들이 그냥 빨갛게 익어 있었어요. 그래 그거를 흠씬 따 먹다 보니까 살겠더라고요.

그런데 갈대가 이렇게 촘촘히 있는데 그걸 눕히라고 그래요. 내가 글공부 한 것이 없으니까 그런 걸로 다 가르치는 거예요. 갈대를 이렇게 젖히니까 아, 그냥 스스로 방이 돼요. 그리고 스스로 둘러쳐졌고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갈대를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었으니 거기 바닥도 뜨듯하고요, 또 갈대가 둘러싸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 드러누워서도 따 먹고 앉아서도 따 먹고, 서서도 따 먹고 그냥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을 견디면서도 아주 웃으면서 참 즐겁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뚱이는 강물 흐르듯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착을 두지 않아도 주인이 있다면, 자기 자부처가 있다면 다 살릴 거예요. 자기 부처가 없어야 말이지, 모두 여러 분한테 다 있는데요. 특별히 부처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라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에요. 중생이라는 것도 이름이고 부처라는 것도 이름이에요. 뭐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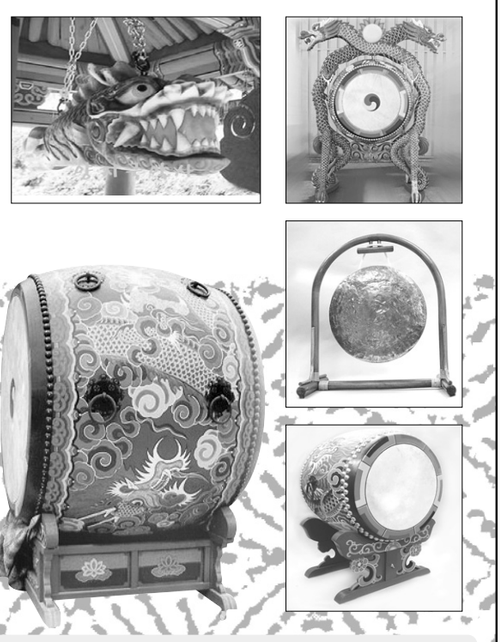
질문자1(남): 스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스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지난달 법형제 법회에서 큰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밥 한 숟가락을 남에게 베풀면 두 숟가락 세 숟가락이 돌아오는 걸 아세요?" 하고 이렇게 질문 아닌 질문을 던지셨는데 여기 있는 대중들 가운데서 대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그 대답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님께서는 물질 보시보다는 마음 보시가 중요하다고 법문에서 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선원에 나오기 전에는 남에게 뭘 베푼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원에 나오고 스님하고 인연이 되면서부터, 제가 하는 일이 아주 위험한 일이니까 스님의 법력에 좀 기대는 마음으로, 간혹 스님께 정성을 올리곤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저의 심부름을 해 주셨는데 저녁에 식탁에서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오늘따라 이상하게 좀 수입이 많았다." 이렇게 얘길 하면 저희 어머니가 "아, 오늘 내가 선원에 다녀왔다." 꼭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면 '뭐, 우연의 일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늘 그게 일치가 됐었습니다.

그래, 참 이게 틀림없고 묘한 도리구나 하는 걸 확신을 갖게 됐었는데 쭉 지나다 보니까, 제 주위 사람들에게 스님 법문 테이프나 책자를 한 권씩 아무 생각 없이 권하고 나면 꼭 그 과보가 정확히 돌아오는 걸 늘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법우님들하고 간혹 약주를 한 잔씩 해도 그게 틀림없이 돌아오는데, 제 일반 사회생활 하는 친구들하고는 그렇게 해 봐야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묘하고 재미있는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최근까지 물질로 하는 보시가 항상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형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만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구정 전날이었는데, 그날 스님께 세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려고 삼막사쪽 도로변에 세워 놓은 차를 탔습니다. 차를 타고 시동

☞26면으로 계속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향다원

비교불어 佛教許
종교법인으로 등록!
입종하시면 보호받습니다.
우리종단은 문화와 예술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입종비는 無!
우리종단의 특징은 !
승려사유재산보호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개최
인사기록카드 입력
재직증명서 발급
경력증명서 발급
입금거래명세표
자동법인입출금
비품구매현황표
일계표, 월계표
분기별입출금분석표
부서별지출글액관리표
회비,기부금거래명세서
예산차이분석표
프레젠테이션 작업
포토샵작업
신속 정확
입종 합종
투명한 행정으로
본종 소정의 양식 팩스나 E-메일 전화 등록으로도 가능함
비구. 비구니. 법사. 선방, 포교원 운영자. 예술인. 등
사원등록증. 임명장. 위촉장. 추대장. 추대장. 추천장. 도첩장.
수계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신도증. 자격증. 신분증
社團法人 대한불교우리조계종
총무원장 人化堂 知道 합장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 안내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불교인 뿐 아니라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푸른 솔숲 향기와 목조 황토방 선원에서
깨달음의 휴식을 가져 보십시오"

일 정	지 도	인 원	대 상
2010년 4월 24일 - 4월 30일 [6박 7일]	우또다나 사야도	15명 (선착순)	일반인

■ 수행장소 : 강원도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월사 담마선원 (황토방에 욕실과 화장실 완비)
■ 수행내용 : 좌선, 행선, 일상생활수행 매일 수행 점검을 위한 사야도(큰스님)의 면담과 법문이 있음
■ 입제 및 회향 :
• 시 작 날 - 4월 24일 오후 5시
• 끝나는 날 - 4월 30일 오전 12시
■ 참 가 비 : 20만원 (우체국 201780-01-001463 예금주 : 담마선원)
■ 준 비 물 : 수행에 편한 복장, 세면도구, 방한쇼울, 필기도구
■ 문의 및 접수 : ☎ 담마선원 033)644-1686
email:dhamma53@hanmail.net

buddhanews.com

조그만 거 가지고 아등바등하지 마세요

☞25면에서 계속

을 걸려고 하는데 입춘 축원을 안 올리고 내려온 것이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이 전부 차에 타고 차 문을 닫은 상태여서 '아이, 뭐 이번 한 번은 빠질까?' 하다가 '아니지, 할 건 해야지!' 하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사무처로 다시 올라와서 접수를 하고는 내려왔는데 처음에 차를 탈 때는 그냥 탔는데 접수를 하고 차로 내려와서는 저도 모르게 오른쪽 뒷 바퀴를 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빠진 걸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날이 구정 전날이었기 때문에 '이런 날 카센터에서 문을 열겠나?' 걱정을 했는데 보니까 바로 여기 선원 앞에 있는 카센터가 문을 열고 있어서 거기 갔었죠.

저는 평소에 출퇴근을 걸어서 하고 차는 주로 제 집사람이 운전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저는 차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카센터에 가 보니까 바퀴 네 개 가운데서, 오른쪽 앞바퀴는 바람이 많이 빠졌고 뒷바퀴 두 개가 다 못에 찔려 있었어요. 그날 제가 선원에 들렀다가 금왕에 있는 저희 조상님들 탑공원에 참배를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 상태로 그냥 고속도로로 갔었으면, 저는 또 달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쩌면 대형 참사가 날 뻔 했었습니다. 그래 제가 차를 손보고 금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게 '아, 이게 물질 보시가 물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생사와도 관련이 되고 마음공부를 하고 지혜를 넓히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냐.' 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어느 스님의 예화를 들어 지게로 나뭇짐 해 주는 것보다 마음 보시가 더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물론 마음 보시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고 한데, 경제적 어려움도 벗어나고, 또 우리가 마음이 밝아지기 위해서라도 각자가 할 수 있는 대로 물질 보시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바르게 생각한 건지 어떤지 스님의 높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습니다. 한 바가지 주면은 이자가 늘어서 세 바가지가 올 거고, 한 바가지를 훔쳐 갔으면 세 바가지 손해를 보는 거죠. 그게 천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한 바가지를 주면 세 바가지가 오지만,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한 바가지를 훔쳐 갔다면 세 바가지가 외려 손해가 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없으면 채워 주고 없으면 채워 주고 할 수 있는 자기 그 보배가 모두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배로부터 자기 거 먹을 생각은 안 하고 남의 거를 물질로써 훔치려고 한다면 그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아상이나 인상이나 수자상, 이런 상이 많아서 남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업신여김을 당하죠, 또. 다른 것들도 그래요.

그전에는 가끔 시장에 나갔는데 지금은 시장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뭐 나가지 않으려고 해서 나가지 않는 게 아니라 식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안 나가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내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요. 나가서 보나 앉아서 보나 들어와서 보나 뭐 그냥 다니기가 그렇게…. 예전에 너무 다녀서 그런지 그렇게 가게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말입니다, 시장에 가 보면 어린애를 업고 말라서 시들시들한 야채를 요만큼 놓고 파는데 그거는 깎지도 않고 그냥 삽니다. 그러면 스님은 왜 시들시들한 걸로만 찾아다니며 사느냐고 야단입니다, 또. 아, 못 먹을 걸 왜 사느냐는 거죠, 깎지도 않고. 외려 더 주면 더 줬지 그걸 왜 깎습니까, 글쎄. 그리고 내 돈입니까, 그게? 왜 그런 짓을 해요? 인심이나 쓰지. 내 돈도 아닌데, 하하하…. 아, 여러분의 돈도 다 자기 돈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도 아니고요. 갈 때 가져갈 거라면 자기 재산이지만, 갈 때 가져가지 못할 거라면 다 자기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다리가 없는 사람이 가죽을 깔고 기어다니면서 뭘 팔죠. 우리가 뭐 때수건이 없습니까. 스님들이 척척 사다 주죠. 그래도 때수건 하나를 사고서는 그냥 누가 볼까 봐, 미안해할까 봐 몇만 원이라도 요렇게 똘똘 뭉쳐서 거기다 천원짜리로 싸서 주고 오죠. 그리고 또, 돈 얻으러 그릇 들고 다니는 사람 있죠? 남이 보면은 '저 중은 얼마나 희떠워서 남의 시줏돈 받아 가지고 저렇게 쓰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몰래 그걸 주고 오느라고 애를 씁니다, 또. 이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남한테 잘났다는 소리 들으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봤을 때 당장 불쌍하니까, 바로 옛날의 내 모습이니까 내가 나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그렇게 나와 같이만 생각해라. 그러면 얕잡아 볼 것도 없고, 아무리 미련하더라도 '아이, 전자의 내 모습하고 똑같구나, 너도.' 그러면 웃음이 나고, 나중에는 그쪽도 나와 같이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일일이 그냥 그렇게 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그러면 도리가 아니죠. 부처님 공부 하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주면 반드시 몇 곱쟁이 불어서 온다는 거죠. 만약에 공을 저 벽에다 친다면 거기에 박히지 않고 공이 튀어 오잖아요. 바로 그 공과 같은 겁니다. 치면 다시 날아온다 이 겁니다. 그리고 '뭐, 치고 자시고 할 게 있어야지, 없는데 줄 게 어딨어?' 이러지마는 마음이 넉넉하면 저절로 그렇게 주게끔 생깁니다.

부모네들 천도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돈이 생기면 꼭 천도를 하겠다, 부모님들 천도를 꼭 해 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 다 할 수 있게끔 생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달인가 한 달 반인가 있다가 "아유, 스님! 생각지도 않았는데 돈이 생겼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지내겠다고 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재사를 지내고도 또 두 번 더 지낼 만큼 남았으니 그건 애들 학비를 대 준다나? 그래서 "그거 참 잘했다." 그랬죠. 아주 받을 수가 없는 돈인데 받는 사람도 있고, 자기 한테 옛날에 아버지가 참 잘해 줘서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면서 어려울 텐데 쓰라고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 **너무 찌들게 사시지 마시고**
> **평탄하게, 항상 여유 있게 사세요**
> **근본자리에 다 맡기시면 여유가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지, 가는 게 없는데 어떻게 오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 죽어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 보니까 자기 곳간에는 아무것도 없고 짚단 하나밖에는 없더랍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었던 얘기일 겁니다. 어린애 낳을 때 짚단 하나 준 거밖에는 없었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다시 나올 때 거지가 돼서 나오는 거죠, 이제. 거지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준 것이 어디 딴 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다시 나올 때 잘살게끔 통장을 해서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또 자식들 당대에 잘살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조그만 거 가지고 아등바등하지 마시고요….

질문자2(남): 일체 만법을 나투어서 설해 주시는 큰스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큰스님께서 설하시는 법문을 들으면서 제 자신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잠깐 생각해 봤었습니다. 제가 한 마음 법을 만나지 않고 계속 전자와 같이 살아왔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제 자신을 돌이켜보니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스님께서 항상 '모든 것은 자기 마음에 있으니 돌려서 그 용광로 마음자리에 놓아라.' 이렇게 설하셨지만 분명히 생각은 있거든요. 그러나 '도대체 어떤 것을 놓으라고 할까?' 항상 이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대체 뭘까, 뭘까?'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아, 생각나는 모든 것 자체를 그 마음자리에다 돌려놓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실직고 한다면 처음에는 분명히 좋은 것부터 놨었습니다. 좋은 것부터 놓다 보니 '아, 이것은 아닌데, 모든 것을 다 분별하지 않고 놓으라고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나는 그 자체를 그 자리에다 다 돌려놓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진 제 자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감히 큰스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도 항상 일체제불과 더불어 큰스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체험담 아닌 체험담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문사의 지국에 새벽 근무하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들 IMF시대에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저는 어느 순간에 신문 첫장에 그래프로 표시돼 있는 환율을 보게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1달러에 얼마다, 내일은 1달러에 얼마다 하는 그것을 보고 처음에는 굉장히 분개했었습니다. '이걸 언론에서 내보인다면은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불안해 할 텐데….' 하는 것이 처음 생각이었는데 '아차, 이런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돌린다면 그 또한 큰 작용을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새벽 1시면 항상 신문을 접는데 접을 때마다 내 마음 깊숙이, '이 환율이 아무튼 내려가야 된다.' 그렇게 간절하게 발원하면서 항상 분별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환율 그래프를 계속 보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내려가야 된다 이런 생각 없이 '분명히 현 환율은 굉장히 높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환율이 내려가야지 않겠느냐.' 하고,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분별이 되겠지만 이런 생각으로 계속 발원하다 보니 점차적으로 내려가는 것을 또 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것이 어쨌든 간에, 어떤 법을 응용해서 돌아가는가는 모르지만 분명히 되는구나!' 그걸 느끼게 됐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스님께 많은 분들이 오래 사십사 하고 그러지만 저는 큰스님께서 백 년 천 년 항상 마음으로는 사시리라 생각하면서 언제나 끊임없이 나툼으로 나투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스님: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한마디 하고 내려가야 되겠네요. 여러분이 사시면서 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 영혼의 근본은 항상 살아 있기 때문에 이웃 간이든지 누구든지 남들을 다 도와줄 수 있고, 9대손이든 10대손이든 전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계기와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식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어도 살아 있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에 너무 찌들지 마시고 평탄하게 항상 여유 있게 사세요. 다 맡기시면 여유가 있어집니다. 거기다 아무리 맡겨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항상 체가 없는 영이기 때문에. 두드러지지도 않고 꺼내서 만날 써도 줄지도 않는 겁니다, 샘물 나오듯이.

질문자3(남): 큰스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광주지원에서 올라왔습니다. 큰스님, 저는 광주지원 스님들과 각 지원 스님들, 그리고 큰스님께서 마음을 내 주셔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4월 20일, 2년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군이라는 곳으로 수행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행 길에 오르는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마음 좀 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마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마음 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신 법우님들과 처사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큰스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스님: 그래요. 여러분이 다 갖추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성이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내가 불성이 있어서 여여한 줄 어찌 알았으리까. 내가 불성이 있어서 갖추어 가지고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내가 불성이 있어서 만법을 들이고 내도 손색이 없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이거 말입니다. 그렇죠? 이 불성 하나가 그렇게 여여하게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두 갖추어 가지고 있다고요, 진짜! 마음은 체가 없고 너무나 많아서 이 허공에 꽉 차듯이 그렇게 많이 차 있어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음은 너무 많아서 없는 게 마음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갖추어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안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 나쁘고 좋은 걸 본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할 거 없이, 갖추어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대로 써라 이거죠. 잘해요.

※위 법문은 1998년 4월 5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사찰 (전문시공), 일반 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 · 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1통, 갑근세 증명1통, 전세 계약서 사본1통)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 역 3. 친지방문
2. 공 증 4. 국적취득신청
상 담 010-9955-9093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 · 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아쟈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준비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불자 보살님들 여러분이 인도하여 주시며, 형제같이 지낼 분
2. 본인이 여러남자 선을 보고 자유로 선택하여 결정함.
3. 3개월까지 무료 침식제공
4. 일본은 불교국가라 불자 우대
5. 우리도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한함 , 재혼자 남·여
(가족 사항 자세히 기입 할 것)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자택유무

자비회에서는 궁합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세요.

담당스님 만 해 합장



불자 세상보기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종교와 정치는 철길 같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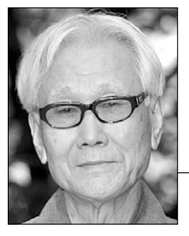
얼마 전 조계종 총무원은 강남 봉은사를 직영 사찰로 지정했다.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이에 대해 조계종의 자율적 결정이라기보다 정권의 외압에 의한 것이라고 폭로하였다. 그러자 외압설의 진원지라 할 수 있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해 자승 총무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좌파 주지 운운'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명진 스님도 알지 못한다고 발뺌했다. '안상수 외압설'은 진실게임이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난해 총무원장 스님과 안상수 원내대표 등의 식사 모임을 주선하고 그 모임에 동석한 김영국 거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명진 스님의 발언은 100% 진실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이 봉은사를 직영 사찰로 지정한 배경에는 안 원내대표 등 이명박 정권의 외압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불교계 안팎의 문제 제기에 자승 총무원장은 결코 외압은 없었노라고 '외압설'을 부인했다. 심상찮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던 여러 불교단체 대표들은 지난 3월 25일 총무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안 원내대표의 '좌파주지 운운' 발언은 사실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스님은 안 원내대표의 외압 때문에 봉은사를 직영화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어쨌든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은 매우 적절치 못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망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석이라 하더라도,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단의 수장 앞에서 좌파 주지 운운한 것은 불교의 자주성을 모독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한, 참으로 부당한 언행이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심해진 여러 종교 편향 사례에 분노하여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많은 불교도들은 2008년 8월 27일 시청 앞 광장에서 '헌법파괴 종교차별 종식 이명박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안 원내대표도 이러한 사실과 불교인들의 불편한 정서를 모를 리 없다고 본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의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은 불교를 경시하고 무시한 데서 연유한 것 같다. 12개 불교 관련 단체가 안 원내대표의 사과와 공직 사퇴를 촉구한 것은 결코 지나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돌이켜 보면 한국 불교는 1700년 가까이 우리 겨레와 고락을 같이 하면서, 혹은 민족문화창달의 원천으로서 혹은 조국평화의 수호신으로서 민족사에 큰 공헌을 해왔다. 그러나 조선조 500년간의 박해와 일제치하에서의 시련을 겪으면서 빛나는 문화창조의 전통을 상실한 불교는 침체의 늪 속에 빠져들게 된다. 광복 이후 더욱 거세어진 서구문명의 유입과 참혹한 6.25 전쟁의 격랑 속에서 몹시 쇠약해진 불교는 설상가상으로 이른바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로 말미암은 '비구-대처'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한국불교는 좌절하지 않고 자구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30년 전 전두환 정권의 10.27 법난으로 불교의 자존심은 다시 한 번 무참히 짓밟히고 만다. 한마디로 한국불교 1700년의 역사는 종교와 정치의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가 빚어낸 영욕의 역사라고 함직하다. 우리는 이러한 불교역사, 아니 동서고금의 모든 종교의 역사를 상기하면서 다시금 종교와 정치의 올바른 관계를 복원해가도록 해야 한다.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제시는 고타마 붓다의 탄생 설화에 잘 나타나 있다. 싯다르타 태자가 태어났을 때, 당시 카필라성의 유명한 관상가이자 예언가인 아시타 선인은 태자의 서른 두 가지 특별한 상호를 보고, "이와 같은 32상을 가진 사람은, 만약 그가 집에 머무른다면 위대한 전륜성왕이 될 것이오, 출가한다면 거룩한 여래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한다. 이 예언은 결국 여래와 전륜성왕은 참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말해준다. 부처님과 전륜성왕은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인류의 구제자다. 부처님은 정신적 구제자를 대변하고 전륜왕은 세간적 구제자를 대변한다. 따라서 불교적 입장에서 본다면, 전륜성왕은 부처님의 이상을 세속 사회에 실현하는 부처님의 대행자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인은 정치인을 존중하고 도와야 하며 정치인 역시 종교인을 존중하고 도와야 한다. 불교적으로 볼 때, 종교와 정치는 기차가 달리는 철길 같아야 한다. 일정한 거리를 두되 서로 외면하지 않는 저 영원한 평행선 같아야 인류의 이상인 자유와 평화를 실어 나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부대중 칼럼

김동민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불교는 우상 숭배의 종교인가

절에는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스님과 신도들은 부처님의 조각상인 그 불상에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한 겉모습으로만 판단한다면 불교는 영락없는 우상숭배의 종교입니다. 허나 정말로 그럴 까요? 단편적 겉모습으로 한 종교의 진수를 말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불교에서는 눈이나 귀 같은 감각식(感覺識)에만 의존하는 판단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불교는 우상을 부인하는 종교입니다. 모든 불자들이 소중하게 받들고 있는 <금강경>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릇 모습 있는 것은 모두 거짓이고 실이 없는 것이다. 만약 여러 모습을 모습 아닌 것으로 본다면 곧 여래를 보리라."

이런데도 불구하고 개조(開祖)께서 부정하고 있는 일을 추종자들은 왜 하고 있는가? 필자는, 그에 대한 답을 한 신학대학교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편이다." 한마디로 끝낸, 참으로 명쾌한 답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불교의 특성을 설명하건데, 불교는 수행(修行)의 종교입니다. 하느님이나 신을 절대자로 믿고 그 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구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자력(自力) 수행으로 어떠한 경지에 이르려는 종교입니다. 수행의 목적은 고(苦, 괴로움)로부터의 해탈 또는 그런 개념의 행복추구입니다. 석가여래께서는 이 세상 즉 사바세계(娑婆世界)에서 겪는 일체의 일을 고로 보셨고, 그로부터 벗어나 행복할 수 있는, 당신 스스로가 수행 · 고행을 통하여 체득하신 방법을 제자들과 추종자들에게 설하셨습니다. 설하신 행복에는 두 차원이 있는데, 첫째는 이 사바세계에서의 행복이고, 다음은 구경(究竟)의 행복입니다. 구경의 행복이란, 존재 그리고 윤회전생(輪回轉生)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진여(眞如)와 합일하는 절대자유의 영원한 행복입니다.

불자들이 지극정성으로 불상에 예배드리는 것도 역시 수행의 방편이며, 불상은 그 도구일 뿐입니다. 중생은 근기가 약합니다. 지혜가 없고, 의지와 집중력이 부족하고,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불상을 모셔놓고, 그것을 스승 석가여래라고 생각하면서 신심과 수행심을 가다듬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의식을 올리기도 하고, 가피(加被)를 빌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절에서 불상을 기복(祈福)의 대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즉, 부처님에게 개인적 소원성취를 비는 행위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타(利他)의 마음으로 남과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참 불교적인 기도입니다. 그런 염력(念力)이 합해질 때, 우리 사회는 청정함과 평화와 자비의 기운이 가득할 것입니다.

기복불교는 조선왕조 치하에서 500여 년간 이어진 혹독한 불교탄압의 산물입니다. 그 후 일본의 식민정책과 광복 후의 혼란과 육이오 전쟁, 왜색불교 청산을 위한 비구대 대처간의 싸움과 그 후유증으로 소생하지 못했습니다. 쇠퇴했던 당시의 부정적 잔재가 아직 많이 남아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참고로, 불교는 과학의 종교입니다. 관찰이나 체험으로 증명된 것만을 믿습니다. 여기서 관찰이라는 것은, 그것이 특히 우주만유의 법 또는 진리에 관한 것일 경우, 명상으로 하는 관찰을 가리킵니다. 명상은 종교적인 초3차원적 방법입니다. 석가여래께서 독특한 방법으로 관(觀)하신 우주만유의 진리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과학자들에 의하여 놀라움과 함께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물리학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아인슈타인이 1939년 5월 19일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과학과 종교'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장래의 종교는 우주적 종교가 돼야 합니다. 그 종교는 인격신을 초월하고 독선과 신학이론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자연계와 영적 계를 함께 아우르는 진정한 통합으로서, 자연적인 영적인 모든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종교적 깨달음에 기반을 둬야 합니다. 이 같은 서술에 불교가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시대에 과학적 요구에 대처할 만한 어떤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불교일 겁니다."

사 설

4대강 살림 위한 실천이 절실하다

오는 17일 조계사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대규모 불교대회가 열린다. 30여 사찰과 단체가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봉행하는 수륙대재에 신도들과 회원들이 동참한다. 추진위원회는 1만여 명이 동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 행사 이후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여러 방법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수질 악화와 하천생태계 파괴,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탈법 등의 문제점을 누누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질 개선,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되풀이하고 있다. 서로 평행선만 그어왔다. 4대강 사업이 사회적 논란이 된 이후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찬성 의견이 높았던 적이 없었다. 최근(3. 26,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도 여전히 찬성(36.7%)보다 반대한다(49.9%)는 의견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불교계는 지난 3월 초 심포지엄을 열어 여러 관점에서 4대강 사업을 살펴봤다. 그리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정부에 '4대강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자연현상은 100%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신중해야 하며, 겸허해야 한다. 온 국토를 대상으로 벌이는 토목사업에 의한 재앙을 염려하는 불교인의 목소리에 정부는 귀를 닫고 있다. 국민들은 반대하는데,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여전히 밀어붙이겠다는 태도에서 한치의 변화도 없다. 4대강 생명살림을 위한 불교인들의 발원과 실천이 더욱 절실해졌다.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전국 사찰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서명운동을 하기로 했다.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청된다.

'봉은사 직영' 첫 단추부터 다시 꿰자

한 달여 동안 조계종단을 들썩이게 했던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사태가 토론회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불교계의 10개 단체의 대표들은 최근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에게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고, 양쪽 모두 토론회 개최에 동의했다. 폭로와 반박을 반복하면서 부딪혔던 상황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되었다. 다행스런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총무원측은 중앙종회의 동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결정된 사안인 만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봉은사 측은 외압 의혹의 해소와 봉은사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론회를 연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총무원과 봉은사의 견해 차이가 너무 커 토론회가 열리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첩첩한 상황이다. 우리는 이 난을 통해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이 사태로 번진 원인은 지정 목적이 불명확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이 미흡했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종회에서 안건을 채택해 무기명 비밀 투표로 결정한 것을 번복하자는 것이 아니다. 총무원이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지정하기로 한 목적이 수도권 포교벨트 구축이었다면, 수도권 포교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사찰의 역할을 제시하는 중에 봉은사의 역할을 제시했어야 한다.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면 첫 단추부터 다시 꿰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강원지사 : (033)744-361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전통범음범패(바라,나비작법) 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0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가. 초급과정(2개월) ■ 송 주 : 도량석, 종송등
■ 예 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 공 : 삼보통청, 상단·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39위,104위),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달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김법운 스님, 이현진 스님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10년 3월 18일(목요일) 오전 11시
■ 개 강 : 2010년 3월 18일(목요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강의장소 : 경북교구 종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 2리 265)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9. 문 의 처 : 053)857-4339, 팩스 053)857-0206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 · 범패 교육원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법당 · 앰프 · 마이크 · 스피커 설치공사
사찰 CCTV 설치 (적외선 카메라)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엠프 시스템



법당 앰프
PWA-110 320×230×270mm...8.5kg
PWA-730 430×275×275mm...4kg
PWA-3000 200×480×230mm...11kg



무선마이크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기능까지..
(야간에도 녹화 가능함)
4분할
사찰 CCTV 설치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원미디어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장사동 156번지 아세아전자상가 가열 119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H·P 010-8705-4288
대덕큰스님과 불자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나룻배 오가던 뱃길인데 겨레의 봄은 아득합니다

염하의 드센 물살이 고려왕조를 지켜내다
<鹽河>

철책 너머 한강 · 황해 얼싸안아 물결 일렁이네

한강 하구에서 봄을 기다리다





검룡소 새김돌 앞에선 필자. 이곳에서 십리쯤 들어가면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가 있다.

문수산성에서 바라본 한강 하구. 멀리 북녘으로 황해도 개풍군이 보인다. 사진 왼쪽으로 접어드는 물길은 아래쪽으로 들어 염하가 된다.

모처럼 겨울다운 겨울이었습니다. 몇 십 년 만에 큰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서울 토박이인 내가 꽁꽁 언 한강이 온통 눈으로 하얗게 덮힌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싶은데 올해 그런 장관을 봤습니다. 과연 겨울을 장군으로 빗대어 동장군이라 할 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세가 당당한 동장군의 가는 꼬락서니는 영 시답지 않습니다. 고양이걸음으로 오는 봄처녀를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지루합니다. 장군이면 장군답게 갈 때도 앗쌀하게 가야하는데 말입니다.

그런 시샘으로 바람이 엄청 세게 부는 날 김포 끝자락의 문수산성 마루에 올랐습니다. 거기가 땅 끝인지 아니면 땅의 처음인지는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그렇지요. 저 남도 어드메에 '땅끝마을'이 있다는데 사실은 거기가 어디 끝이겠어요, 바다랑 맞붙은 처음인 게지요. 여기 한강이 바다를 만나는 자리인 문수산성 아래, 민간인출입금지구역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산성의 마루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전날엔 황해를 건너오는 된바람에 최악의 모래먼지가 실려 왔습니다. 온 나라가 누래서 꼭 빛바랜 사진을 보는 듯 했습니다. 오늘은 찬바람만 드셉니다.

나이 쉰 줄에 들어 자전거여행을 하게 되면서 한강의 처음에서 끝까지를 자전거로 돌아보려고 별렀습니다. 2004년 8월. 드디어 강원도 태백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새벽에 삼수령을 넘어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를 찾아 갔습니다. 한여름 더위도 물러나 있는 울창한 숲, 오솔길을 자전거 바퀴로 누르며 들어가니 길이 끝난 곳에 신비로운 못이 있었습니다. 하루 2000톤이나 되는 물이 솟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보다 낮은 곳을 찾아 흐르는 물길이 이곳에서 차름(시작)합니다.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이무기가 용이 되고자 이 못에 잠겨 때를 기다렸다 합니다. 손을 오그려 바가지를 만들어 떠먹었는데 그 물맛이 신비 그 자체입니다.

흐르는 물길 따라 자전거 발판을 밟았습니다. 물길 따라 찻길이 있는가 하면 어느 곳에서는 찻길이 끊긴 곳을 만났는데 이런 데가 있어 자전거여행의 묘미를 느낍니다. 강은 산 밑동을 훑어 벼랑을 만든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높다란 벼랑길에서 내려다보며 따라 갔습니다. 꼬박 이틀을 내달린 여정은 단양에서 멈췄습니다. 뒷날 단양에서 다시 차름하려 했습니다만 아직 못가보고 있습니다. 언제든 꼭 소백산을 넘어 충주를 거쳐 여주를 지나 북한강과 만나는 두물머리까지 이어보렵니다.

두물머리부터 이곳 문수산 아래까지는 진즉 자전거로 밟아 보았습니다. 문수산 아래 철조망이 쳐진 곳에 논두렁같이 순찰길이 있습니다. 초지진까지 이어진 이 길은 초병이나 이곳 농사짓는 이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외지사람은 통제를 받습니다. 이곳을 자전거로 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해병대원의 호통에 놀랐던 적도 있습니다. 여기처럼 찔레꽃이 그렇게 아름다운 길은 보지 못했습니다.

한강은 황해로 들어가는 하구에서 임진강을 만납니다. 경기도 남양주 두물머리에서 합쳐진 한강이 여기에 이르러 '통일'이 됩니다. 강원도 북한땅에서 솟은 물이 휴전선을 지나 한탄강과 합쳐진 임진강은 인간의 분단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강을 만납니다. 그런데 혹 조강(祖江)이라고 들어봤나요? 임진강과 한강이 통일된 곳에서 황해까지, 황해도를 지나온 예성강과 만나는 여기까지를 그렇게 부릅니다. 왜 할아버지강이라 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아예 이 명칭은 바닷물에 잠긴 듯 잊혀진 이름입니다.

문수산성 마루에서 툐아 한강의 하구와 그 조강을 바라봅니다. 바로 곁에서 보지 못하여 안타깝습니다. 그곳에 아주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유도라던가요? 1996년에는 북한에 큰물난리가 나서 떠내려 온 소가 거기서 여섯 달을 살다가 구출되어 '평화의 소'라는 이름을 얻었지요. 노녁(북)도 마녁(남)도 선뜻 다가서지 못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애달프게 하는 '분단의 상징'입니다.

조강도 낯설지만 염하(鹽河)도 아는 이가 드물 겁니다. 소금강이라는 말이지요. 한강이 조강이 되어 황해를 흘러드는 한편 다른 물길이 되어 강화도와 김포 사이를 지나면 염하가 됩니다. 바다는 바다이되 물과 섬 사이에서 강이 되어 이렇게 부릅니다. 밀물 때는 너른 바다가 되지만 썰물 때는 개펄이 훤하게 드러난 골에 강처럼 바다가 흐릅니다. 물이 들고 날 때에는 엄청난 소리로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뭍과 섬 사이를 가득 채운 바닷물이 멀리 물러가는 동안 바닷물은 엄청나게 휘몰아칩니다. 그 물살에 질려 고려를 침공한 몽골군사도 문수산성에서 진군을 멈춰야 했습니다. 강화로 수도를 옮기고 장기전에 들어간 고려왕조를 문수산성에서 꼬나보기만 했을 뿐 어찌 쳐보지 못했습니다. 1232년부터 1270년까지 강화에서 왕조를 지켜낸 공로는 순전히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는 염하의 드센 물살입니다.

염하에는 손돌목이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고려왕이 강화도로 피난을 가려고 바다를 질러왔는데 섬은 도시 보일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때 뱃사공이 손돌이었습니다. 엄청난 물살에 시달리던 고려 고종은 '필시 이놈이 나를 죽이려고 엉뚱한 곳으로 배를 몰아가고 있구나'하는 의심으로 그를 죽입니다. 그런데 손돌은 죽어가면서도 염하에 바가지를 띄우고는 '나는 죽어도 그만이지만 이 바가지를 따라 가면 강화도에 안전하게 배를 댈 수 있는 곳이 나오니 꼭 그리하시오'라고 당부합니다. 그는 죽고 왕은 몸을 안전하게 피합니다.

우리시대 영원히 가슴에 남을 전사 김남주 시인은,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고 핀잔을 하는 주인을 그 낫으로 죽인 머슴을 시로 그려내기도 하였으나, 우리의 역사에는 주인을 위해 착하게 죽은 머슴이 설화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객쩍게 된 왕은 머슴을 기리기 위해 손돌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고, 백성은 손돌의 원혼을 달래려는 제사를 해마다 음력 상달(시월)에 지낸다고 합니다.

중학생이 꼭 읽어야 할 한국단편 소설에 빠지지 않는 김동인의 '배따라기'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 소설의 주인공 '나'는 오해로 죽게 한 아내를 그리워하고 그 때문에 집을 나간 아우를 찾기 위해 황해 바닷가를 헤맵니다. 대동강에서 인천까지 다녔다 하니 어느 때에는 이 염하를 지났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문수산성에서 그냥 눈으로도 황해도 개풍군을 볼 수 있습니다. 반세기 전에는 나룻배로 오가던 뱃길이었건만 그 길은 끊긴 채 긴 세월동안 서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봄은 수 십 번 오고 갔지만 겨레의 봄은 언제 올지 아득합니다. 철책으로 막아 놓은 그 너머엔 한강과 황해가 서로 얼싸안고 돌아 거센 물결이 일게 합니다. 휘몰아치는 물살에 뭔들 남아날 수 있을까 싶은데 여기서 겨레의 아픈 사연은 때때로 일어납니다.

그 앞바다에서 난데없이 군함이 침몰하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이 물 속에 갇혔습니다. 심청이가 눈 먼 아비를 위해 몸을 바친 임당수도 그리 멀지 않은 황해의 이쪽. 심청의 정성으로 아비는 눈을 뜨는데 오호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참에 바다가 걷어 가신 모든 넋의 공덕으로 이 하구에 겨레의 봄이 오게 하소서.

서동석 통일문제연구소 운영위원, 민주화운동공제회 이사

빛 살림
정골요법 正骨療法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없어지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병원에서 마저 쫓겨나 죽음을 기다리다 무심코「발치기」운동으로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이운동으로 죽을 병고친사람,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변강쇠처럼 된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제병을 제가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운동은 무병장수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이재복 지음(270면)
빛 살림
정골요법 正骨療法
도서출판 창조. 값10,000원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퇴행성관절, 안짱다리, 고관절,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견비통, 목뻣뻣, 수족냉증, 두통, 갑상선질환, 불면증, 상기증
젖먹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인「기지개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무럭무럭자란다.(생명의 신비!)
강력한 생체전기가 전신을 감싸고 입안에서는 단침이 몽클몽클, 내분비계통을 활성화 시켜서 만성적인 성인병을 치유하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복부 뱃살과 전쟁, 복부비만을 아주쉽게 해결한다. 물혹, 자궁근종, 위염, 위궤양, 변비등의 원흉인 복부적취를 가장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온열쾌장운동법!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국제정골요법협회
소백산수련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 도서구입안내 : 이 책은 서점에는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책신청 : 054)637-9810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김순옥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책 구입시『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